건축사 2014 October

건축사 546

KIRA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2014 10
1966년 창간

칼 럼 편집인 칼럼
에 세 이 진화와 건축
영(零)과 공(空)
특 집 한국건축문화대상 역대 대상수상자 대담

KOREAN ARCHITECTS

KOREAN ARCHITECTS 546

글. **장대익**_ Jang, Dayk
•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 교수

진화와 건축

Evolution and Architecture

성공한 과학 이론들 중에서 현대 진화론만큼 대내외적으로 치열한 논쟁에 자주 휘말려 본 이론도 없을 것이다. 사실 다윈의 자연선택 이론은 그 초창기부터 학자들 사이에서 뜨거운 논쟁거리였다. 그 논쟁들 중에는 창조론자들의 종교적 반발로 인한 것도 있었지만, 자연선택의 힘, 자연선택의 단위, 그리고 진화의 속도 등에 관한 전문가 논쟁이야말로 그동안 지성계를 뜨겁게 달군 주제였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건축과 설계에 관한 비유가 이 논쟁의 한복판에 종종 등장해왔다는 점이다. 과연 현대 진화론 논쟁에서 건축이라는 소재는 어떻게 활용되어 왔을까? 진화와 건축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해보자.

성 마르코 성당의 스팬드럴

자연선택의 힘은 얼마나 강력할까? 고생물학자인 굴드(S. J. Gould)와 집단유전학자인 르원틴(R. Lewontin)은 1979년에 "성 마르코 성당의 스팬드럴과 팡글로스적인 패러다임(Spandrels of San Marco and the Panglossian Paradigm)"이라는 매우 유명한 논문에서 당시의 진화생물학자들이 자연선택의 능력을 과신한 나머지 시험 가능한 가설을 세우지도 않고 "이런 저런 기능 때문에 자연선택에 의해 진화했다."라는 식의 '단지 그럴듯한 이야기(just so story)'에 만족하고 있다고 호되게 비판했다. 이런 비판은, 마치 『깡디드』에 나오는 낙천적인 선생 빵글로스가 "우리의 코는 안경을 받치기 위해 존재한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당시의 진화생물학이 입증할 수도 없는 이야기를 지어내어서 적응 형질들을 터무니없이 양산하고 있다는 지적이었다.

논문의 제목에 등장하는 성 마르코 성당의 스팬드럴(spandrel)은, 자연선택에 의한 적응이 아닌데도 모종의 기능을 수행하는 듯이 보이는 생물학적 형질들을 건축물에 빗댄 표현이다. 이것에는 실제로 적응 형질을 구별하는 작업이 엄청나게 어렵다는 뜻도 담겨 있다. 건축물의 스팬드럴은 생물학적으로는 적응이 아닌 부산물(by-product)이다. 스팬드럴은 대체로 역삼각형 모양인데 돔을 지탱하는 둥근 아치들 사이에서 형성된 구부러진 표면이다. 이탈리아 베니스의 성 마르코 성당의 돔 밑에 있는 스팬드럴은 기독교 신학의 네 명의 사도를 그린 타일 모자이크로 장식되어 있다. 굴드와 르원틴은 적응주의자들이 이 스팬드럴을 보고는 기독교적 상징을 표현하기 위해 '특별히 설계된' 구조물로 간주하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그 스팬드럴은 아치 위에 있는 돔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생긴 부산물일 뿐인데 말이다(사실, 그들이 말한 성 마르코 성당의 양식은 정확히 말해 스팬드럴이 아니라 펜덴티브 pendentive다. 스팬드럴은 펜덴티브의 2차원적 구조라 할 수 있다).

적응주의(모든 생물학적 형질이 자연선택을 통해 진화했다는 주장)를 비판하기 위해 스팬드럴을 이야기하는 것은 현대적으로 다음과 같이 확장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일본 동경시의 지하철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 교수로, 과학과 인문학의 경계에서 공감과 소통을 바탕으로 새로운 교양의 기준을 제시하는 진화학자이자 과학철학자다. '인문적 과학'과 '과학적 인문학'의 새로운 길을 놓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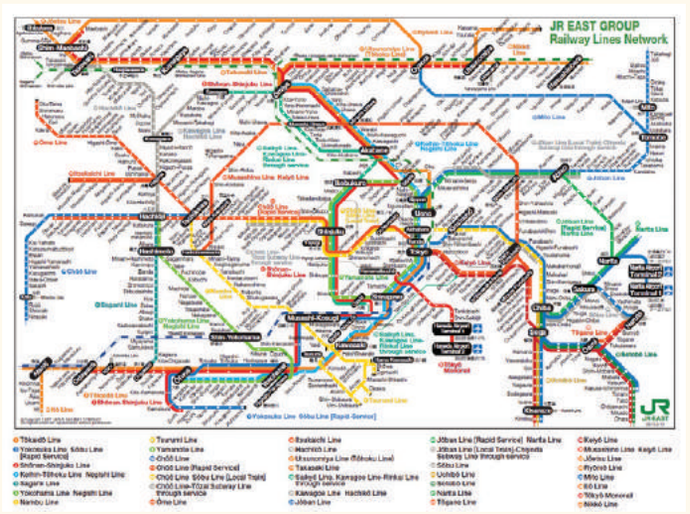
을 타본 적이 있는가? 동경 지하철은 서울 지하철보다 여러 가지 면에서 복잡하다. 한번은 동경에 출장을 갔다가 시내에서 지하철을 갈아타야 했었다. 그런데 환승을 위해 너무 긴 거리를 걸어야 했다. 계단만 서너 번을 오르락내리락 했던 것 같다. 그래서 나중에 일본 친구한테 물은 적이 있다.

"동경 지하철은 환승거리가 왜 그렇게 길대? 다리 아파 죽겠던데…"

"응 그거, 동경시민의 건강을 위해 일부러 그렇게 만들었다는 설이 있어. 여기서 별로 뚱뚱한 사람 못 봤지? 다 환승을 위해 오래 걷도록 만든 덕이지."

"에이, 농담 하지 마. 그럴 리가 있겠어?"

"그래, 사실은 지하철 노선마다 회사가 전부 다르거든. 그래서 회사마다 이해관계가 다르다보니 전체 조율이 안 된 상태에서 노선수가 지금처럼 늘어난 거지. 하지만 어쨌든 그 덕에 우리 다리는 튼튼해졌어. 날씬해졌고, 하하."



일본 동경지하철 노선도

아마 굴드와 르원틴이 일본에 오래 살았더라면 적응주의를 비판하기 위해 동경 지하철의 예를 들었을지도 모르겠다. 환승거리가 길도록 설계된 동경 지하철의 구조는 시민의 건강을 위한 놀라운 설계(적응)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노선 회사의 이해관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생긴 부산물에 불과하다고 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적응과 부산물의 차이이다.

실제로 스팬드럴 비유를 통한 굴드와 르원틴의 비판은 당시의 적응주의자들에게 엄청난 도전을 주었고, 좀 더 정교화된 적응주의를 나오게 만든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이후의 적응주의자들은 어떤 형질이 적응이냐 부산물이냐를 놓고 전보다 매우 신중해졌으며, 이를 가릴 수 있는 시험 가능한 가설들을 제안하기 위해 노력한다.

진화의 작용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 건축양식(설계)에 비유하는 방식이 꼭 하나뿐인 것은 아니다. 실제로 스팬드럴 비유로 적응주의를 비판하려던 굴드와 르원틴에 대해 또 다른 건축양식으로 맞불을 놓았던 경우도 있다. 저명한 인지철학자 데닛(D. Dennett)인데, 그는 『다윈의 위험한 생각』(1996)에서 굴드와 르원틴의 '스팬드럴' 비유가 왜 잘못되었는지를 신랄하게 비판했다. 요지는 '스팬드럴'도 하나의 적응이라는 것이었다. 예컨대 '코벨(corbel)'은 벽에서 약간 돌출하여 무거운 구조물을 지지하는 돌받침을 가리키는 것으로, 급경사진 지붕 아래를 채우고 지지력을 주는 하나의 건축양식이다. 실제로 이 코벨 양식은 중세 초기의 로마네스크 양식의 건물에서 인기가 있었는데, 그 위에 그로테스크 무늬가 기발하게 새겨져 있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니까 지붕을 지지해주는 방법으로써 건축사들은 스팬드럴을 설계할 수도 있고 코벨을 만들 수도 있었다는 이야기다.

코벨 양식

적응주의자인 데닛에 따르면 성 마르코 성당의 스팬드럴은 이렇게 다른 방식의 건축양식들 가운데 선택된 하나일 뿐이다. 즉, 그것은 미적 이유든 구조적 이유든 간에 건축사에 의해서 신중히 선택된 것이지, 단순한 부산물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런 코벨 비유를 통해 우리는 부산물로 간주되었던 것들이 실제로는 적응으로 분류되어야 하는 것들일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실제로 자연계는 우리가 미처 알아채지 못한 놀라운 적응들로 가득 차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현대 진화론자들이 이렇게 특정 건축양식에 빗대어 자신의 진화론을 옹호할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첫째는 자연선택이나 건축사가 모두 특정한 '설계'를 만들어 낸다는 면에서 공통적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는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건축양식에 빗대어 논증을 하는 방식이 상대방의 허점을 더 명확히 드러내는 데 매우 좋은 전략이기 때문이다. 적절한 비유만큼 강력한 논증은 없다. 하지만 문제는 진화가 스팬드럴일 수도, 코벨일 수도 있다는 사실이다.

대담시리즈 ④ 한국건축문화대상 역대수상자 대담

“한국건축문화대상의 의미와 가치”

A Recipient of Korea Architecture Grand Prize ;
The Meaning and Value of the Prize

최근 들어 한국 건축계에서는 크고 작은 건축상이 시상되는 매우 고무적인 동향을 보이고 있다. 그중에서도『한국건축문화대상』은 대한건축사협회가 1971년부터 단독 개최해 오던 「한국건축전」을 1994년부터 국토교통부 및 ㈜서울경제신문과 공동 주최하여 시행하고 있는 건축분야 최고의 권위를 대표하는 시상으로 현재까지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이에 23년의 역사를 이어온 한국건축문화대상의 본질적 의미와 가치를 다시 한 번 되새겨 보고자 역대 대상 수상자 중 현재까지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건축사 몇 분을 모시고 수상과 그 이후에 대한 여러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우리 건축계가 앞으로 나아가는 데 보탬이 되는 지침돌이 되길 바란다.

· 대담일시 : 2014년 9월 24일(수) 16:00
· 대담장소 : 대한건축사협회 8층 임원실
· 진행 : 김수경 편집위원

김수경 편집위원 : 10월은 건축계에 다양한 행사와 더불어 한국건축문화대상 시상이 있는 의미 있는 시기입니다. 올해로 23회를 맞는 한국건축문화대상은 건축인들에게 피로와 고난에 대한 보상이며 축제이기도 한 뜻 깊은 문화행사입니다. 이에 역대 수상자 중 몇 분의 건축사님들을 모시고 한국건축문화대상의 의미와 가치를 되새겨보며, 대상수상 이후 작품활동과 수주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또한 우리 건축계의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듣고자 이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대상 수상작에 대해 직접 소개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평과 그에 대한 설계자의 소감도 궁금합니다.**

–김수경 편집위원

신춘규 : 좀 오래되어 제가 이 대담에 나와도 되나 잠깐 망설였습니다. 취지에는 도움이 될 것 같아 이렇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우선 2008년 민간부문 대상을 받은 아임삭 오창공장의 건축주를 만난 것은 강남 교보빌딩 뒷면에 본인이 설계 · 감리한 석원빌딩 건축주의 추천 때문이었

습니다.
아임삭은 전동공구를 만드는 회사로 수원에 공장을 갖고 있었는데, 오창의 산업단지 내 중부고속도로변에 대지를 매입하고 이전계획을 세우고 있던 회사였습니다. 전동공구박람회 등 사업적인 이유로 독일을 방문할 기회가 많았던 건축주는 독일식의 하이테크 이미지를 가진 공장을 원했습니다. 두 달여 정도 계획에 대한 협의를 통해 어느 정도 만족했다고 생각하고 계약을 하게 되었는데, 제 마음에 무언가 석연치 않은 감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하고 돌아가는 건축주에게 전화를 걸어 마음에 썩 안 드니 2주만 더 시간을 달라고 했고, 건축주는 흔쾌히 동의를 했습니다. 아마 건축주도 계약한 안에 대해 100% 만족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아임삭 밸리(사무동과 공장 사이의 3m 폭에 40m 정도 되는 중정)를 가진 공장을 설계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가 대상을 받은 것은 많은 운이 따랐다고 생각합니다. 평당 220만원 정도에 제가 원하는 공장을 설계 · 감리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감이 겨울 공사여서 시행착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현장심사에 와준 심사위원들이 이 긴 여정 속에 들어난 건축사의 고민과 시행착오를 겪은 노력들을 높이 평가해준 것입니다. 후일담이지만 심사 처음으로 마감도가 좋은 건물과 제 프로젝트를 놓고 30분이상 토론했

대담자(가나다 순)

김용미 건축사 / ㈜금성종합건축사사무소 **신춘규** 건축사 / 씨지에스 건축사사무소 **오세왕** 건축사 / ㈜지디엘 건축사사무소 **인의식** 건축사 / ㈜종합건축사사무소 연미건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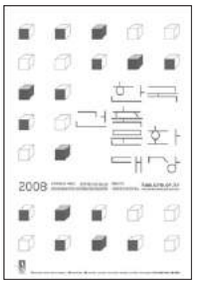
다는 이야기를 듣고 진지해지고 성숙해진 심사과정에 정말 많이 기뻐하고 감사했습니다.

실제로 수년 후 한국건축문화대상에 학교건물을 출품한 적이 있었는데, 진지하게 공사비를 절감하기 위해 고생을 많이 했다고 하니 심사위원이 현장에서도 지적을 하고 심사평에도 건축사가 설명한 공사비가 이해가 되지 않았다고 서술한 분들도 있습니다. 건축사들의 진심을 믿어주고 현장에서 고생한 노고들을 높게 평가하는 심사가 쉽지만은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용미 : 서울남산국악당으로 대상을 받은 것은 정말 뜻밖의 일이었습니다. 그 몇 해 전에 사무실(㈜금성종합건축사사무소)에서 광주시청으로 대상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규모면에서나 작품에 기울인 노력면에서나 상당히 기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서울남산국악당은 한옥이었기 때문에 심사위원들께서 눈여겨보실 거라고는 전혀 기대하지 못했

2008년 민간부문 대상_ 아임삭 오창공장

2009년 사회공공부문 대상_ 서울남산국악당



던 거죠. 남산 한옥마을 내 문화재 한옥의 경관을 해치지 않기 위해서 한옥 외에는 다른 선택이 없었고, 반면 공연장은 현대적 기능이기 때문에 한옥과 현대공간을 결합하는 시도를 한 것이었는데 심사위원들께서 그것을 새롭게 봐 주셨습니다. 전통한옥 옆에 현대적 기능을 담은 새로운 한옥이 들어설 경우, 그동안은 새 한옥이 규모면에서 전통한옥을 압도하는 사례가 많았기 때문에 국악당에서는 특히 비례와 규모에 신경을 썼고, 그 점에 대해서도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한옥에 현대공간을 결합시키려고 하니 엘리베이터, 피난계단, 방화구획과 같은 법적 문제뿐 아니라 디테일과 스케일의 부조화 문제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았습니다. 그러한 노력을 읽어주신 심사위원이 계셨다는 것이 저에겐 행운이었습니다. 물론 한류열풍과 함께 한옥이 재조명되기 시작한 사회적 분위기도 크게 작용했다고 생각합니다.

인의식 : 2007년에 수상한 덕평자연휴게소는 영동고속도로에 위치한 상·하행 양방향 휴게소입니다. 당시 심사평에서 발췌한 내용을 보면 '평범한 개활지를 일정한 숲의 이미지를 디자인 개념으로 설정하여 숲의 이미지를 일관성 있게, 빈틈없이 설계하여 앞으로 우리나라 고속도로 휴게소가 지향하여 나아가야 할 이정표를 제시한 작품'이라고 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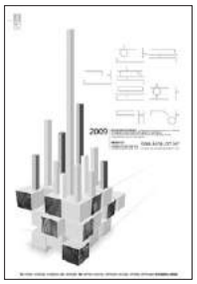
2011년에 수상한 래티스하우스는 서울의 남쪽 끝자락인 내곡동에 위치한 주택으로, 당시 심사평의 내용을 보면 '각 부분에서 전체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건축언어를 질서정연하게 적용하였고, 건축주가 오감을 통해 다양한 방법으로 자연과 교감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 가족의 생활을 담는 그릇으로서의 의미를 넘어 삶의 행복을 담아주는 의미 있는 공간으로서의 주거를 추구한 수작'이라고 평가되었습니다. 두 작품에 대한 평가는 모두 과분한 평가였다고 생각합니다.

2007년 사회공공부문 대상_ 덕평자연휴게소

2011년 일반주거부문 대상_ 래티스하우스

오세왕 : 빌라드 와이는 분당이 개발된 지 20년이 지나는 동안 근린상업용지로 지정되어 오랫동안 나대지로 있던 대지를 주택용지로 전환하여 개발하는 프로젝트였습니다. 따라서 편안하고 안락한 주거지로서 치명적 약점이 될 수 있는 주간선도로 접한 상황에 반응하는 방식이 중요했고, 지형적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 주간선도로와 45도 사선배치로 주동을 배치하여 도로의 간섭을 피하고, 자연스럽게 남향배치가 만들어지고, 인동간격을 보다 넓게 확보하고, 동간의 배치가 열려서 조망권을 확보했습니다. 또한 대지경계와 주택이 맞닿으며 생겨난 삼각형의 땅들은 1층 세대의 앞마당 또는 뒷마당으로 사용하도록 설계하였습니다.

2012년 일반주거부문 대상_ 빌라드 와이



계획의 가장 중요한 해결과제는 당초의 도시계획대로 간선도로와 접해 있는 대지의 형태와 특성상, 편안하고 아늑한 주거기능을 확보하면서도 주변 환경과 어우러지도록 하는 것이었고, 주거동과 동사이, 단지 중앙의 도로와 광장은 주변의 도로 레벨보다 1개층 낮게 계획하여, 단지내 진입을 지하1층에서 이루어지도록 하여, 1층 세대의 프라이버시를 확보하고, 지하층을 각세대에서 다양한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한 것이었습니다.
다양한 고민 끝에, 분당의 끝자락에 조그만 계곡과 앞마당, 그리고 하늘과 바람을 보다 가까이 느낄 수 있는 테라스를 갖는 36가구의 조그만 공동체가 만들어졌습니다.

수상 이후 주변 반응이나 작업량, 작업 스타일 등에 어떤 변화가 생겼나요?

–김수경 편집위원

오세왕 : 전 세계적인 주택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특히 한국에서는 큰 평형의 고급주거건물이 거의 사라지다시피 했습니다. 특히 타운하우스, 빌라단지 등으로 불리던 대형평수의 수요가 소멸된 반면에 최근 들어 땅콩주택, 원룸, 투룸 등 소형평수의 시장은 조금씩 활성화 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수상 이후에 많지는 않지만 간혹 대형건설사나 시행사, 개인 건축주 등의 설계요청이 들어왔지만, 고급 대형주거로 실현된 것은 없고, 원룸이나 투룸 위주의 도시형생활주택 또는 오피스텔 위주의 작업과, 최근에는 소형평수의 타운하우스(연립주택)를 작업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수상작에서 보여줬던 기본개념은 계속 유지하려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사문화된 발코니의 부활과 다락방, 지하공간의 활용, 레벨의 다양화를 통한 평면개발에 노력하고 있다.

인의식 : 수상 이후, 다른 매스컴과 연계된 홍보 덕분에 요즘 같은 불황에도 꾸준히 작업할 수 있는 것에 대하여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작품을 진행할 때, 전보다 더욱 신중하게 접근하고, 완성도 높은 건축을 위해서 혼신의 힘을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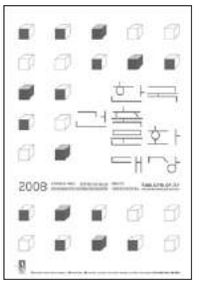
김용미 : 외부적으로 달라진 점은 없었습니다. 한옥으로 받은 대상이라 사람들에게 별로 주목을 받지 못했어요. 대신 제가 달라졌죠. 한옥을 현대화하는 데 관심을 갖게 되었고 한옥과 현대건축을 결합한 작품을 지속적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한옥은 프로젝트가 거의 없어서 실제로 해본 것은 그리 많지 않지만 할 때마다 새로운 것을 시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대상을 받은 경험이 저에게 크게 영향을 미쳤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저는 한옥이든 현대건축이든 구분할 필요 없이 한옥도 얼마든지 건축인들의 창작의 대상이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한옥을 현대화하는 노력과 함께 현대건축을 할 때도 보다 우리 문화의 정체성을 표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춘규 : 글쎄요, 작업량이나 스타일에 있어서는 크게 변한 것이 없습니다. 크게 변한 것이 있다면 그동안에는 건축주들의 요구사항을 더 많이 들어주고 만족시키는 과정에 신경을 써 왔는데, 아무래도 대상을 받은 후에는 설계의도에 대해 조금 더 진지해지고 건축주들의 이야기도 좀 더 들어주려고 하는 상황들은 변한 듯합니다. 다행히 대상을 안겨준 건축주가 저에게 프로젝트를 믿고 맡겨주어서 그 점은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정적인 부분은 저는 일반 건물들을 많이 설계하는데, 아이디어와 작업 성향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하면서도 정작 건축주들이 몸값이 (설계용역비가) 비쌀 것 같다고 하며 꺼려하는 경향이 있어 수주에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 같아 괴롭습니다.

아임삭 오창공장의 건축주가 다시 설계를 의뢰한 분당 51.5 주택(2013) / 신춘규 건축사

한국건축문화대상이 우리나라 건축문화에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십니까?

–김수경 편집위원



신춘규 : 전반적으로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지만 중요한 건축행사임에도 불구하고 축제 같은 분위기로 이끌어내지 못하는 것은 많이 아쉽습니다. 일각에서는 심사위원들이 중견건축사들의 작품에 이유 없이 후한 점수를 주기도 하는 온정주의(?)가 있기도 하지만 이젠 작품성과 건축사들의 진정한 열정에 진지한 심사가 이루어지고 대상의 작품성이 상당히 높아졌다고 자부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 중요도를 알기 때문에 점점 더 많은 작품을 출품하게 된 것을 보면 건축계 내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용미 : 한국건축문화대상이 건축작품의 수준을 올리는 데 긍정적 역할을 해왔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요즘은 공공기관이나 시공사나 건축문화대상을 받는 것을 대단한 영광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작품이 좀 괜찮다 싶으면 상을 받기 위해 설계자가 원하는 대로 열심히 지원해 주는 사례를 많이 봅니다. 상의 가치가 높아진 만큼 받고 싶어 하는 사람도 많아지고, 그 만큼 경쟁이 세지니까 작품 수준도 높아지는 거죠.
작품 수준에 대한 평가도 점차 엄격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건축계의 수준이 상당히 높아져서 이젠 그냥 작품이 좋다고 해서 대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공공적 측면에서 우리 사회를 위해 어떤 새로운 메시지를 담고 있는가도 중요한 잣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서천의 '봄의 마을'이라든가 영주의 보건소 같은 것이 대표적 사례입니다. 깔끔한 디테일로 비싸고 고급스럽게 지은 건물보다 좀 서툴고 거칠더라도 사용자에게 좋은 건축을 만들기 위해 지자체와 시공사가 함께 설계자를 도와 노력한 사례에 상을 준다는 것은 매우 의미가 큽니다. 바로 이 점에서 한국건축문화대상이 작가에게만 상을 주는 한국건축가협회상과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서천 봄의 마을 / 2012 사회공공부문 대상 / ㈜비드 종합건축사사무소 이흥재 건축사

영주시 조제보건진료소 / 2012 사회공공부문 본상 수상 / ㈜건축사사무소 인터커드 윤승현 건축사

임의식 : 한국건축문화대상이 건축 관련 수상제도에서 가장 역사와 전통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요즘 수상작품 심사 때에는 작품의 아름다움만 보는 것이 아니라 공공사회에 대한 기여도, 건축주와 시공자와의 협동성, 독창적인 창의력 등 여러 기준에 의해서 선정이 되기 때문에 상이 주는 사회적 메시지는 매우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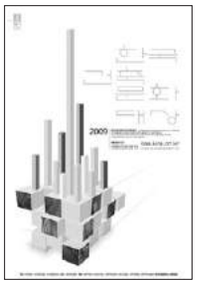
오세왕 : 한국건축문화대상은 우리나라 최고의 건축부문 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도 당연한 말이지만 한 나라의 건축문화를 대표하는 상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건축사에게는 창작의욕을 고양시키고, 건축주와 시공자에게도 자부심을 주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봅니다. 무엇보다 오랫동안 미디어 보도에서 소외되어 오던 건축디자인 부분을 일반인이 관심을 갖게 되는 데 이 상이 기여하는 바가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들어 타 단체나 지자체에서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시상들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습니다. 관점에 따라 매우 고무적인 일이기도 하나, 상이 주는 가치와 의미를 희소시킬 수도 있다고 봅니다. 중복수상 또한 어떤 측면에서는 문제일 수도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김수경 편집위원

오세왕 : 기본적으로는 타 단체나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여러 상들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봅니다. 저도 모 지자체 건축상 심사위원으로 선정되어 활동한 적이 있는데, 지역의 건축문화를 끌어올리는 좋은 제도라 생각됩니다.
다만, 여러 경제신문사 등에서 주최하는, 건축보다는 부동산 부분에 맞춰 정해놓은 유사 시상제도들이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양을 위해 도움이 되는 타이틀을 얻기 위해 건설회사들이 로비를 한다는 소문도 있습니다(확인되진 않았지만…). 이러한 여러 건축유사시상제도들 때문에 일부 몰지각한 건축주들은 한국건축문화대상도 그런 상 중에 하나인 줄 착각하는 경우도 있어 아쉽습니다.

인의식 :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각 단체별로 약간씩 심사기준이 차별화되어 있어 그 나름대로 상의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다만



요즘 그러한 심사기준의 차별성이 점점 없어지고 있다는 점은 다소 아쉽습니다. 그리고 일부 사이비단체에서 금전적인 거래와 연계시킨 후 상을 주는 어처구니없는 행태를 보면, 이러한 불합리한 면들은 많이 정화시켜 나아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용미 : 예전에는 한국건축문화대상과 한국건축가협회 Best 7, 서울시 건축상을 비롯한 여러 지역 건축상들의 수상자 선정시기가 각각 달라서 앞서 상을 수상한 작품은 다음 상에서 제외하곤 했었는데 요즘은 수상작 선정이 거의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떤 작품은 3관왕 그랜드 슬램을 달성하기도 합니다. 작품이 매우 출중하면 그런 영광스러운 일이 있어도 좋은데, 그럴 경우 그것을 공식화하고 더욱 축하해주는 축제 같은 분위기가 조성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걸 목표로 더욱 열심히 작업하는 건축사도 생기겠죠. 그런 긍정적 효과를 만들어내지 못하면서 상이 한쪽으로만 쏠리는 것은 건축계에 긍정적 효과를 줄 것 같지 않습니다. 모든 상이 한 가지 잣대로만 기준 삼아 상을 준다면 건축문화의 다양성을 기대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의미와 기준이 다른 상이 많이 있어서 좀 더 다양한 관점에서 다른 일을 하는 건축사들을 발굴하고 상을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신춘규 : 단체별(한국건축가협회장상, 젊은건축가상, 신진건축사대상, 대한민국공간문화대상 등)로 다른 시상식을 시행하고, 그마저도 건축의 날 및 건축인의 상 등으로 분산되어 있는 것은 한국건축문화대상의 대통령상 품격을 현저히 떨어뜨리고 있다는 생각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대한건축사협회의 국제위원, 위원장, 이사직을 맡아왔기 때문에 특히 더 가까이에서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품격을 떨어뜨리는 이유는 반드시 중복된 건축상 제도에만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동안 제가 지적해온 대통령상이 한국건축문화대상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이유를 몇 가지 더 짚어본다면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대통령상에 대통령이 시상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아마 누군가가 대통령께 우리가 후손에게 물려줄 유산 중 앞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도시건축문화라는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 현재의 국가건축정책위원장도 그 역할을 못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만약, 대통령이 시상을 하면 대중적인 관심도 더욱 많이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시상식의 방법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좀 직설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장관에 대한 예우 때문에 너무 형식적이고 단시간 내에 치루는데 중점을 두어 축제 같은 분위기로 이끌지 못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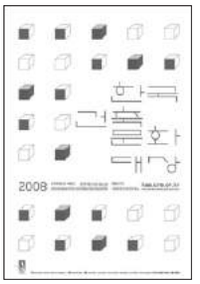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대중에게 알릴 수 있는 접근 방법이 차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서울경제신문사에서 공동으로 주최하고 있어 다른 주요 일간지나 매체들이 접근할 수 있는 루트가 막혀 있습니다.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대중 매체에 홍보할 수 있는 방법 찾아 일반인들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알리면 건축에 대한 의식을 고양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국건축문화대상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무엇일지 궁금합니다. 심사기준의 변화, 접수대상의 확대 등이 주로 언급되는데 수상자들께서는 어떤 생각이신가요.

–김수경 편집위원

신춘규 : 아마 이 부분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사항들과 중복되는 내용이 많을 듯합니다. 이미 설명을 드렸으니 간단하게 몇 가지로 정리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건축계에서 시행하는 건축상 제도의 통합운영이 필요합니다. 분산되어 있는 건축상 제도를 통합하여 FIKA가 운영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수상작의 시상은 건축계의 모든 인사들이 진



심으로 축하해주고 축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축제의 장이 되었으면 합니다.

둘째, 상을 다양화했으면 합니다. 미국건축사협회의 건축상은 매년 개최되는 컨벤션에서 3,000~4,000여명의 건축사들이 모인 가운데 치러지는데, 특이한 것은 작품만이 아니고 다양한 분야에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즉, 한 해 동안 잘된 작품에게도 상을 주지만 오랫동안 건축계에 공로한 건축사에게 골드메달을 수여하는데, 이 상이 가장 영예로운 상이고 국제적으로도 가장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오히려 UIA 골드메달보다 더 값지게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에 공헌한 사무소에 주는 상, 실무에 공헌한 건축사 또는 교육에 헌신한 건축사 그리고 공공부분에서 공헌한 건축사 등을 선정하여 수상하는데, 형식적이지 않고 그들의 업적을 슬라이드로 보여주면서 기립박수를 치며 진심으로 축하하는 모습은 정말 감동적입니다. 분명 건축사들이 작품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양한 모습으로 사회에 공헌하는 건축사들을 격려하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셋째, 대통령상의 의미에 맞게 어떠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대통령께서 직접 나와서 시상하는 상징적인 장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야 언론도 경쟁 취재를 하게 되고 일반 대중도 관심을 갖게 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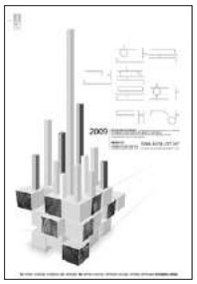
넷째, 지금처럼 건설회관에서 모아 놓고 한 시간 만에 끝내는 장터 같은 시상식은 이제 끝내야 합니다. 축제의 장으로 자리매김 하려면, 차라리 건축사대회에서 수많은 건축사들과 건축인들이 모인 가운데 시상을 하고 축하해줄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2년에 한 번하는 비엔날레 형식으로 가도 좋을 듯합니다. 상의 다양화와 지역을 고려한 상을 마련해 모든 건축사들이 지역을 떠나 한마음으로 참여하여 축하해주고 배우는 그런 축제의 장이 되도록 했으면 합니다. 지금 의무화되어 있는 건축사 계속교육제도를 활용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한국건축문화대상이 '젊은 건축가 상'만큼도 대중매체에 관심을 끌고 있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대한건축사협회는 고민을 해봐야 합니다. 주요 일간지와 대중 매체에 관심을 받아야만 일반인의 건축에 대한 의식도 변화할 것입니다. 항상 대한건축사협회 내에서 일하다 보면 타성과 관성에 젖어 '그것은 그럴 수밖에 없어' 하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내년이면 이제 대한건축사협회가 50주년을 맞이합니다. 후배들을 위해 '왜 이렇지?', '왜 이렇게 하면 안 되지?' 하는 생각을 갖고 변화를 위해 노력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하다고 느끼면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 꾸준하고 지속적인 노력을 해주길 바랍니다.

2013 한국건축문화대상 시상식 전경

김용미 : 심사기준에 대하여 한 가지 제안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한국건축문화대상은 한국건축사를 대상으로 하는 만큼 외국건축사가 기본설계를 하고 한국건축사가 실시설계만 한 경우에는 수상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공식화하면 좋겠습니다. 이 점은 정서적으로는 대부분 공감하는 부분이지만 아직까지 명확한 기준은 없습니다. 2010년에 제가 한국건축문화대상 심사위원이었을 때도 이 문제가 논란이 되었는데, 한국건축사가 실시설계만 한 경우는 대상이나 본상에서는 제외했지만 우수상에는 포함시켰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기준이 없어 해마다 바뀌는 심사위원에 따라 결과가 들쑥날쑥하므로 공식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접수대상을 공공부문, 민간부문, 신인건축사부문 등으로 세분화하는 것은 다양한 시장이 존재하는 건축계 특성 상 균형을 잡는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인의식 : 앞으로 한국건축문화대상에 보다 많은 협회 회원들이 참가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건축사협회 회원들은 평소 이 행사에 관심이 있는 그룹과 무관심한 그룹으로 나누어지고, 관심이 없는 그룹은 다시 이 행사 내용을 무시하는 일부 작가 그룹과 노력해도 성취하기 힘들다는 그룹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가장 고민해야 할 부분은 소외되고 있는 지역 건축사들에게 기회를 주고, 이들에게 다른 방면으로 작품을 출품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지역의 건축여건이 잘 반영된 지역건축상(가칭)을 대한건축사협회장상으로 여러 개 만들어 지역건축사들에게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배출될 한국건축문화대상 수상자들과 젊은 건축사들에게 응원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오세왕 : 어려운 상황 속에 건축을 하는 젊은 건축사들을 보면, 저처럼 베이비붐 세대의 막내이면서 소위 386세대의 맏형이었던 샌드위치 세대가 갖고 있는 어려움보다 그 어려움이 더한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그래도 치열하게 자신만의 작업들을 하는 젊은 건축사들을 보면 오히려 에너지를 얻게 되곤 하는데, 과거 선배들 세대처럼 건축사라는 직업이 경제적으로 부유함이나 화려한 명성을 보장해줄 기회는 상대적으로 적지만, 마냥 후배 건축사 또는 젊은 건축사인줄만 알았던 우리 세대가 선배 건축사가 되면서 후배들과 같이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한다면, 오히려 난세에 영웅이 탄생하듯, 명량대첩의 이순신과 같은 불세출의 건축사, 건축작품이 탄생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인의식 : 젊은 건축사들 누구나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면 수상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중요한 것은 설계자와 건축주, 시공자가 함께한 과정까지도 평가에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함께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며, 작품의 질은 투자한 시간과 집중한 에너지에 비례 할 수 있으므로 최선을 다하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젊은 두뇌를 활용하여 독창적이고 개성적이며 미래지향적인 작품을 디자인한다면 누구나 수상의 영광을 누릴 수 있다고 봅니다.

신춘규 : 정말 힘들 때인 것 같습니다. 물론 IMF 때도 잘나가는 분들은 잘나갔지만요…
건축은 서비스 분야입니다. 어차피 해야 할 일이고 건축을 사랑한다면 조금 더 지속적인 자기계발을 통해 역량을 길러나가야 할 것이고, 즐겁게 일을 해야 합니다. 프로젝트를 돈으로 보지 않고 건축주 입장에서 봐준다면 그 보상은 자기한테 돌아온다고 믿습니다. 도면에 충실하고 현장에 한 번 더 나간다는 마음으로 일을 하다보면 보상이 돌아올 것으로 확신합니다. 기다리기보다는 나름 자기만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분야들을 잘 찾아내고, 건축주를 찾아나서는 적극성을 보여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대담을 마치고

김수경 편집위원 : 역대 한국건축문화대상을 수상하신 네 분의 건축사님들을 모시고 진솔한 건축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건축계의 가장 큰 문화행사라고 할 수 있는 한국건축문화대상이 앞으로도 역사의 흐름과 더불어 더 가치 있는 건축문화를 이끌어가는 주도적인 건축문화 창달에 기여할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는 숨 쉬는 시간만큼 많은 시간을 건축 속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너무 중요한 공간이지만 숨 쉬는 것과 같이 그 중요성을 잊어버리곤 합니다만, 이런 시상들을 통해서 사회와 문화 속에 건축이 어떻게 숨 쉬고 표현되는지 인지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인간이 중시되는 건축환경에서 건축인의 창작의욕을 북돋고, 말씀하신대로 여러 대중매체에서도 동시에 축하하는 장을 만들어 보다 의미 있는 건축행사로 발돋움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보며 오늘 대담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자리를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용미_KIRA | ㈜금성종합 건축사사무소
2009년 사회공공부문 대통령상 / 서울남산국악당
서울대학교 건축학과와 동대학원을 졸업하고 프랑스로 건너가 국립파리7대학(Paris-Jussieu)에서 박사과정을 수료(DEA, D.P.L.G 취득)했다. 2004년부터 (주)금성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이사를 맡고 있으며, 현재 서울시 공공건축가로 활동하고 있다. 2002 한국건축가협회상(한국소방검정공사), 2004 한국건축문화대상 대통령상(광주광역시 신청사), 2006 대한민국목조건축대전 준공부문 특선(충북목재문화체험장), 2008 대한민국목조건축대전 준공부문 대상(횡성숲체원), 2009 한국건축문화대상 대통령상(서울남산국악당), 2010 한국건축가협회아천상, 2011 한국건축문화대상 대통령상(해남윤선도전시관), 2012 서울시건축상 최우수상, 2012 한국건축문화대상 우수상(한성백제박물관)을 수상한 바 있다.

신춘규_KIRA | 씨지에스 건축사사무소
2008년 민간부문 대통령상 / 아임삭 오창공장
연세대학교 건축공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 및 오하이오주립대학원에서 공학석사 및 건축, 도시계획석사를 취득하였다. ㈜금호건설, RTPA, 성우건축 등 한국과 미국의 여러 회사에서 실무를 두루 익혔고, 서울시 건축위원회 위원, 국제협력단 전문위원, 연세대 건축과 겸임교수로 활동 중이며, ㈜시그에이의 대표를 지내다 현재 씨지에스 건축사사무소를 개소하여 대표로 재직 중이다. 주요작품으로 아임삭 오창공장(한국건축문화대상 대통령상), 잠실청호빌딩(서울시 건축상 본상), 연세대스포츠센터(현상안 당선) 등이 있다.

오세왕_KIRA | ㈜지디엘 건축사사무소
2012년 일반주거부문 대통령상 / 빌라드 와이

인의식_KIRA | 종합건축사사무소 연미건축
2007년 사회공공부문 대통령상 / 덕평자연휴게소
2011년 일반주거부문 대통령상 / 래티스하우스
한양대학교 건축학과를 졸업하고 공간연구소와 공간구성에서 실무경험을 쌓아 1987년부터 종합건축사사무소 연미건축을 운영하고 있다. 주요작품으로는 대전대학교 둔산한방병원, 제포빌딩, 금강휴게소, 덕평자연휴게소, 부민병원, 한남동 주택, 석편재, 래티스하우스가 있으며, 2004 한국건축문화대상 우수상, 2004 충청북도건축상 금상, 2005 · 2007 한국건축가협회상, 2007 한국건축문화대상 대통령상(덕평자연휴게소), 2010 국가건축정책위원장상, 2011 한국건축문화대상 대통령상(래티스하우스), 2012 대한건축학회 작품상 등을 수상했다.

회원작품.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Korea Communications Agency

설계자 | 김태집_KIRA | ㈜간삼건축 종합건축사사무소

㈜간삼건축을 이끌고 있는 건축사이자 경영인이다. 오랜 경험과 뛰어난 감성, 사람에 대한 배려에서 시작되는 철학으로 간삼건축이최고의 건축디자인 회사로 자리매김하는 데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다. 코오롱 과천 신사옥(1990), 셀트리온 바이오테크센터(2002), 63빌딩 리모델링(2003), 제주 휘닉스 아일랜드(2004), 인천적십자재활전문병원(2006), 제주도립미술관(2007), LIG손해보험 사천연수원(2007), 한화인재경영원(2008) 등의 프로젝트를 설계했다.

- 설계팀 : 윤홍노, 차봉근, 윤인구, 송혁범, 정수영, 오세범, 지윤정, 우창현, 홍지호, 한종범, 김일석, 이주은
- 전문기술협력
  - 구조분야 : ㈜티섹구조엔지니어링
  - 토목분야 : ㈜씨지이엔씨
  - 전기분야 : ㈜일신E&C
  - 기계설비분야 : ㈜우원엠앤이

건축주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감리자 | ㈜신화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

시공사 | ㈜성우종합건설

대지위치 |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760

주요용도 | 업무시설

대지면적(Site Area) | 23,933㎡

건축면적(Building Area) | 3,952.54㎡

연면적(Gross Floor Area) | 15,278.34㎡

건폐율(Building to land Ratio) | 16.52%

용적률(Floor Area Ratio) | 48.86%

규모(Building Scope) | 지하1층 ~ 지상6층

주요마감재 | 외부 : T28 칼라더블로이복층유리, AL Sheet, AL차양, 화강석

내부 : 바닥–ACCESS FLOOR, OA–FLOOR, 카펫타일, 비닐타일, 폴리싱타일

벽–폴리싱타일, 수성페인트 / 천장–암면흡음텍스, 비닐페인트, 무석면텍스

설계기간(Design period) | 2011. 01 ~ 2011. 10

공사기간(Construction period) | 2011. 11 ~ 2013. 12

사진(Photographer) | 박영채(Park, Young-chea)

Client | Korea Communications Agency

Architect | Kim, Tai-jip

Project team | Yoon, Hong-no / Cha, Bong-keun / Song, Hyuk-bum / Jung, Soo-young
Oh, Se-bum / Chi, Yun-jeong / Woo, Chang-hyun / Hong, Ji-ho
Han, Jong-beom / Kim, Il-seok / Lee, Ju-eun

General Contractor | Sungwoo Construc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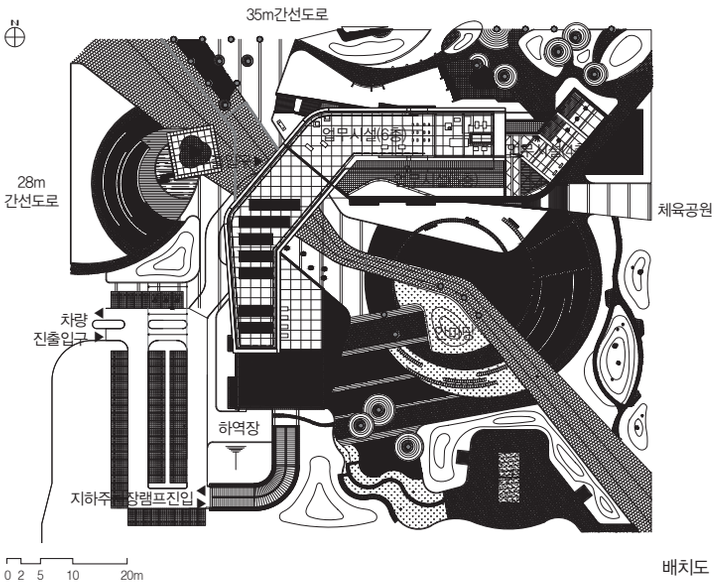
Location | Jeollanam-do Naju-si Bitgaram-ro 760

Structure Engineer | TSEC_Total Structural ENG. & CONST.

Eletrical Engineer | Ilshin E&C

HVAC Engineer | Woowon Co.,Ltd.

Finishing Materials | T28 low-e double glass, AL Sheet, Granite
Polishing tile, water-borne paint / rock wool sound absorbing textile
vinyl paint, non-asbestos textile



배치도

북서전경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본사 청사는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에 이전하는 공공기관으로, 입지의 특수성과 공공청사 이전이라는 상황에 주목하였다. 이전부지는 교차로에 면하며, 반대쪽으로 대형 체육공원이 입지하여 있다. 건물은 교차로에서부터 동선을 끌어들여 대지 안마당과 체육공원에 이르는 녹지축으로 공공성을 높이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의 새로운 청사는 날렵한 형태의 건물이 공공을 위해 열린 중앙광장 위로 떠올라 소통과 교류를 이루고, 미래로 향해 날아가는 본청의 비전을 형상화한 "Green Glider"의 컨셉으로 완성되었다. '미래 융합사회의 커뮤니케이션 리더'라는 비전에 걸맞는 미래지향적 디자인에 지역사회와 문화가 조화를 이루는 열린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직원들을 위한 다양한 시설을 갖춘 One Stop-Office로 계획하였다.

청사가 오피스로서의 기능 외에도 민원과 교육을 담당하는 공공기관으로서의 기능을 하는 것에 주목하여, 지역사회와 문화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시민에게 개방된 커뮤니티 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컨셉의 옥외공관과,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대강당, 방송통신전파관련 홍보센터와 전시공간 등을 구축하였다.

내부 업무시설에는 청사이전에 따른 직원 생활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헬스장, 휴게실, 보육실 등을 조성하여 복지와 휴식이 가능한 쾌적한 오피스로 계획하였다. 업무공간은 모듈화를 시킴으로써 연구와 업무 등 다양한 목적과 조직개편 등에 대응하여 가변적으로 사용할수 있도록 합리적 공간을 구성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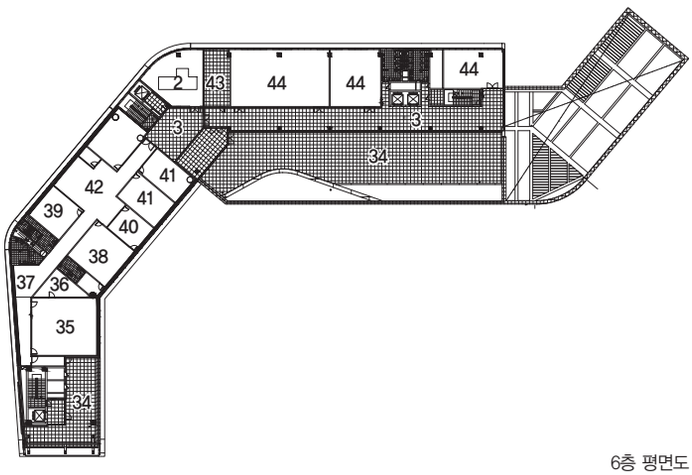
본 청사는 에너지효율 1등급과 녹색건축 우수등급인증을 획득하였고, 신재생(지열)에너지, 우수 및 중수의 이용, 단열 및 채광계획 등 적극적인 친환경 디자인으로 쾌적한 업무환경과 에너지 절감이라는 시너지 효과를 얻고자 했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은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의 중심이 돼 시민과 교류하면서 발전해가는 이상적 공공기관의 새얼굴로, 지난 2013년 완공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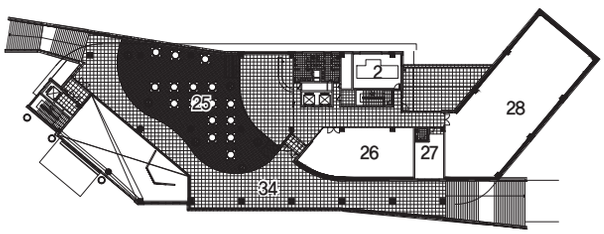
동남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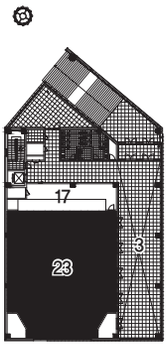
2층 옥외데크

1. 휀룸
2. 공조실
3. 홀
4. 지하주차장
5. 문서고
6. 쓰레기집하장
7. 전기실
8. 발전기실
9. 기계실
10. 중앙감시실
11. 저수조
12. 전처리실
13. 조리실
14. 식당
15. 체력단련실
16. 로비
17. 창고
18. 관리실
19. 전시/홍보시설
20. 기금평가민원실
21. 기금 R&D본부
22. 보육실
23. 대강당
24. 대강당
25. 카페테리아
26. 노동조합사무실
27. 숙직실
28. 계측장비교정실
29. 통역실
30. 조정실
31. 복도
32. 업무시설
33. 측정장비유지보수
34. 옥외데크
35. 상황실
36. 상황부속실
37. 임원영역홀
38. 원장실
39. 이사실
40. 응접실
41. 임원실
42. 비서실
43. 준비실
44. 세미나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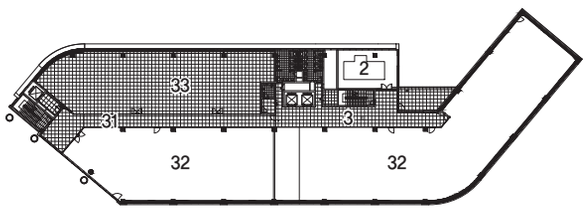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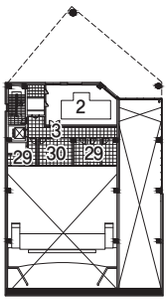
6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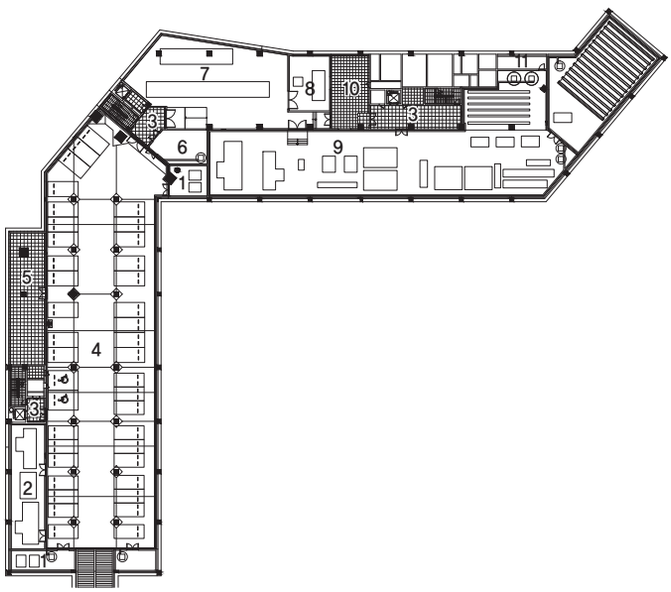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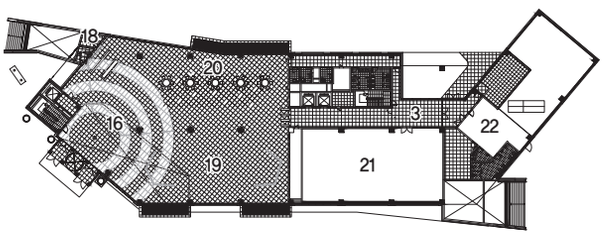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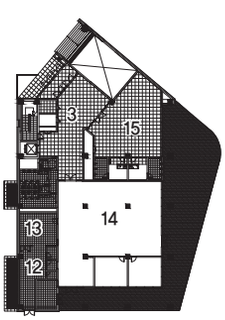


3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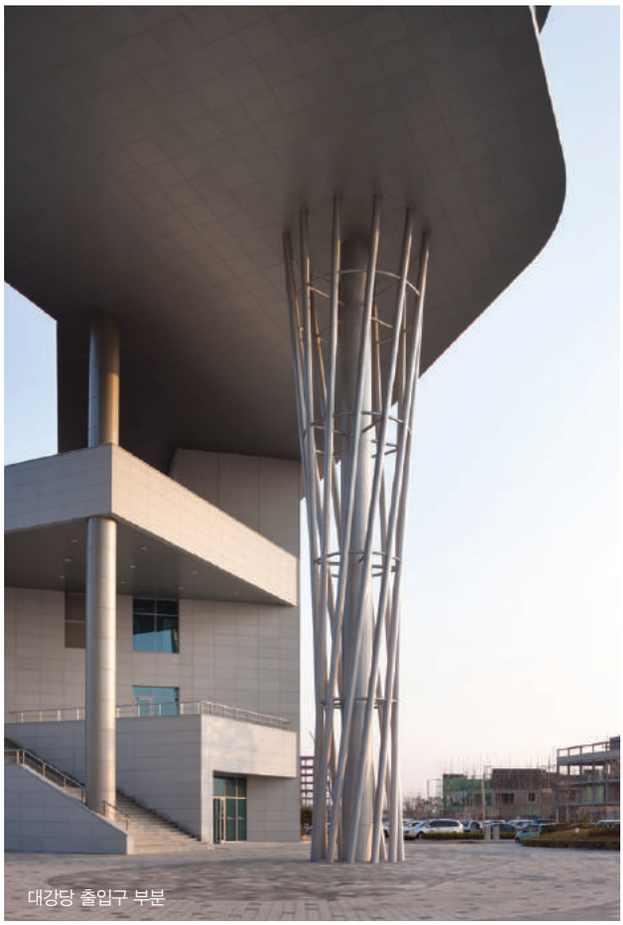
지하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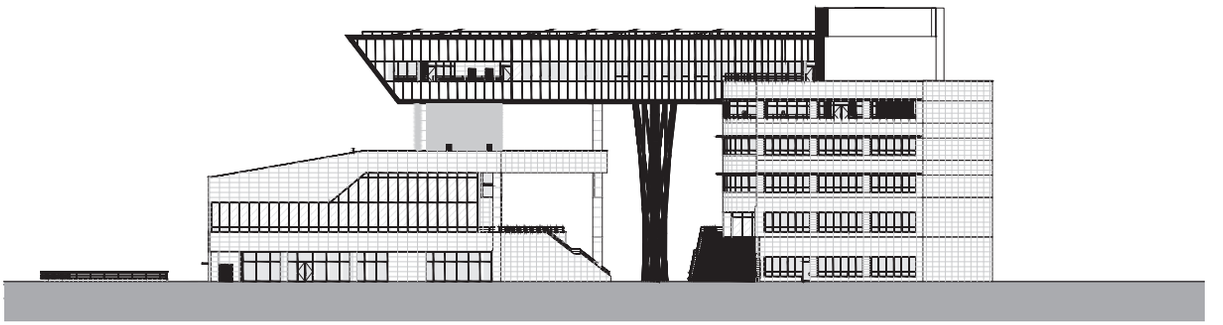
1층 평면도

서측전경 야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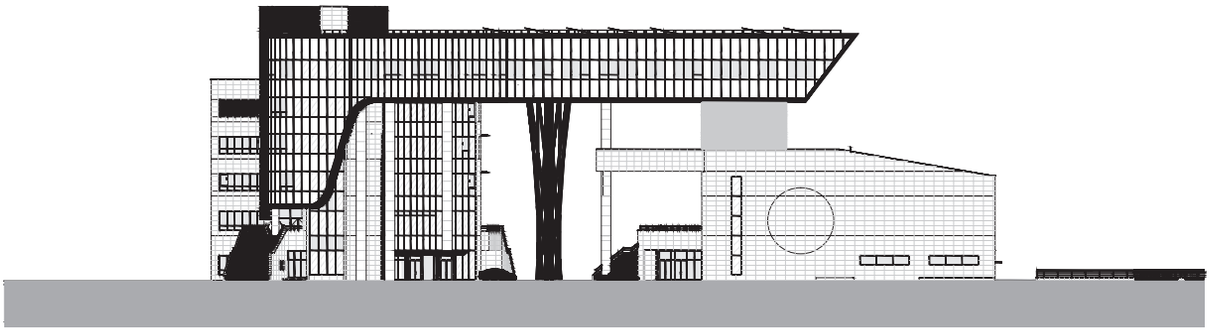

대강당 출입구 부분

6층 데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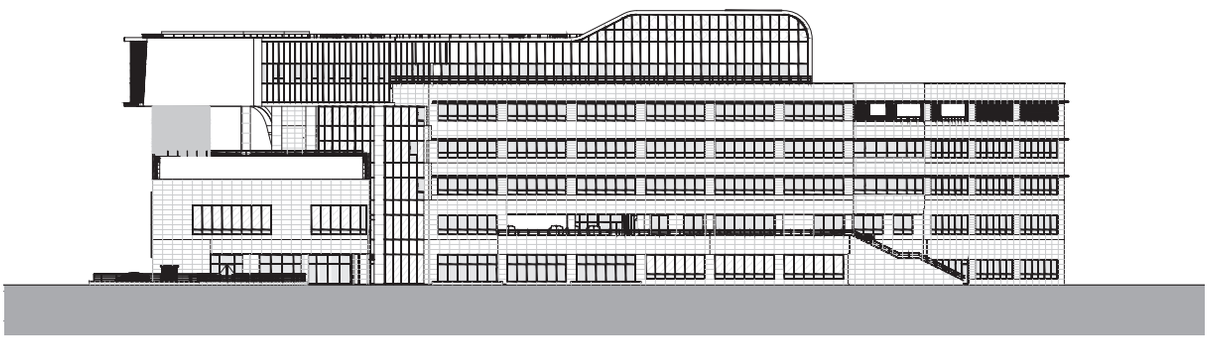
옥상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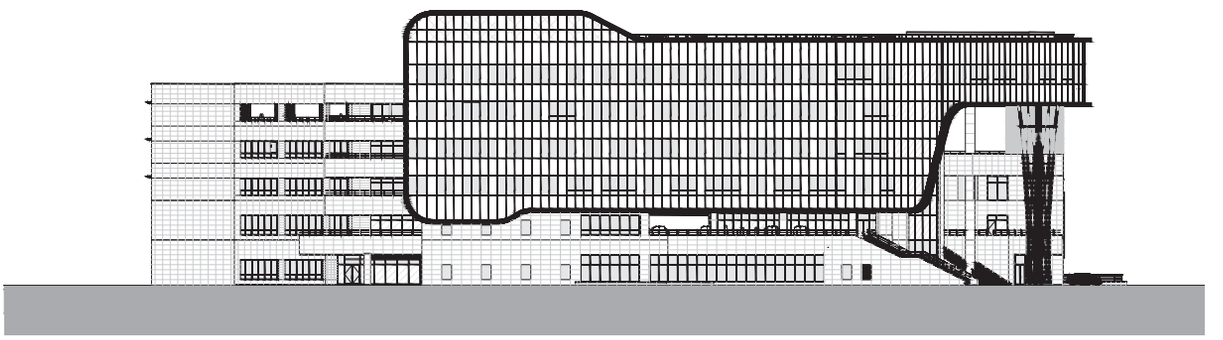
동측면도



서측면도



남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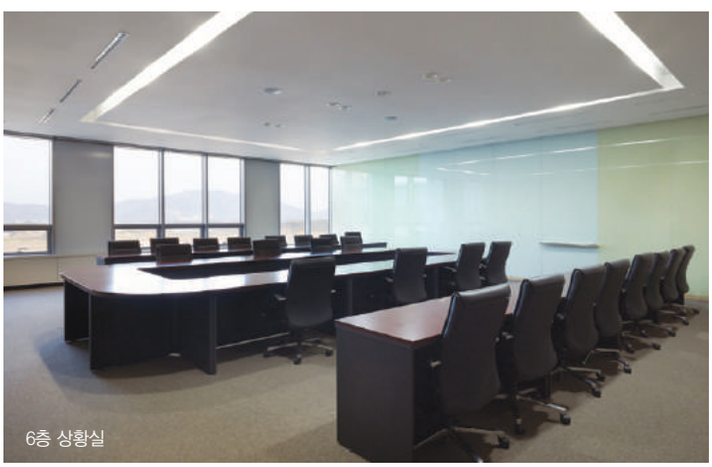


북측면도

0 2 5 10 20m

로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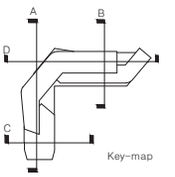
강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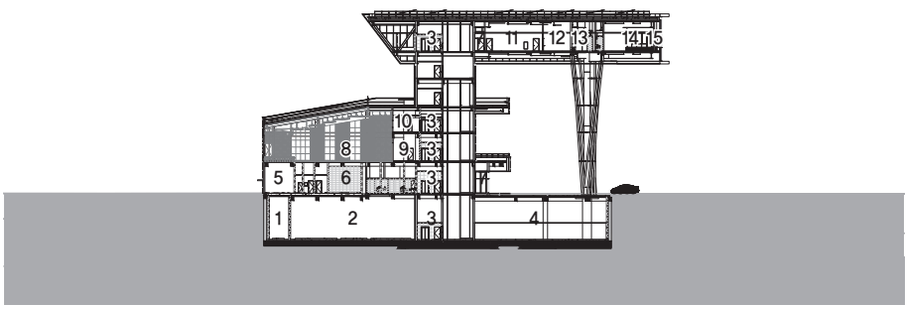

6층 상황실

6층 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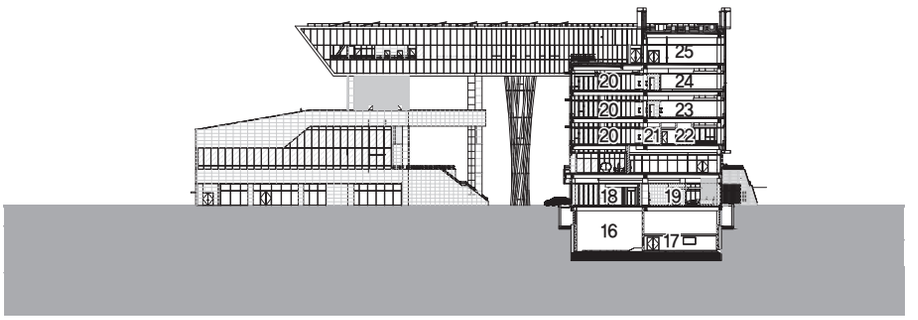
식당

1. 휀룸
2. 공조실
3. 홀
4. 문서고
5. 식기세척실
6. 조리실
7. 방풍실
8. 대강당
9. 창고
10. 통역실
11. 상황실
12. 부속실
13. 임원영역
14. 이사실
15. 비서실
16. 기계실
17. 중앙감시실
18. 전시/홍보시설
19. 기금평가단원실
20. 업무시설
21. 복도
22. 측정장비유지보수
23. 주파수가치연구센터
24. 데이터보관실
25. 세미나실
26. 전기실
27. 발전기실
28. 로비
29. 기금평가민원실
30. 보육실
31. 계측장비교정실
32. 전파진흥본부
33. 연구자료보관실
34. 주파수이용기술연구센터
35. 방송통신콘텐츠진흥본부
36. 전산데이터센터
37. 지하주차장
38. 식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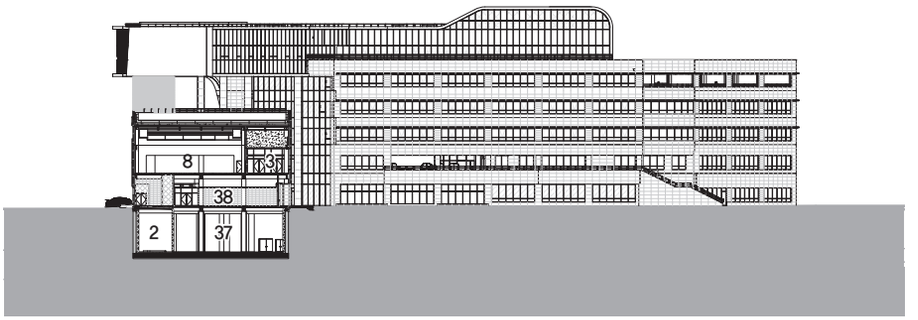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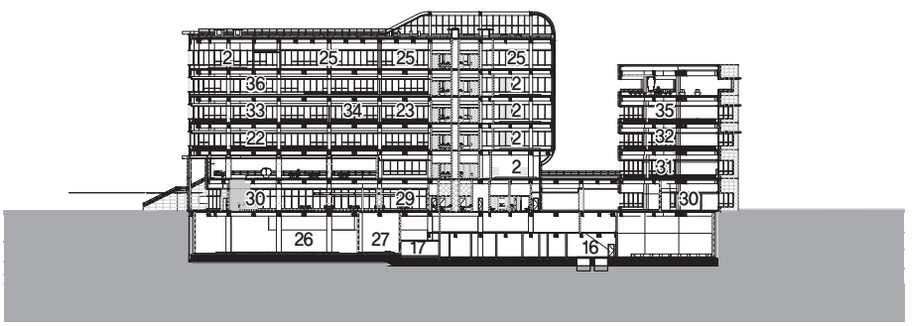
단면도-A



단면도-B



단면도-C



0 2 5 10 20m

단면도-D

회원작품.

파주 프리미엄아울렛

Paju Premium Oulet

설계자 | 김재학_KIRA | ㈜두가씨앤씨 종합건축사사무소

연세대학교 건축공학과를 졸업하였고, ㈜두가씨앤씨 종합건축사사무소를 설립하여 대표이사 겸 대표건축사를 맡아 유통, 물류, 자동차 관련시설에 전문성을 갖춘 사무실로 키워나가고 있다. 제1회 대한민국 리모델링대상의 '건물수명연장부문' 건설교통부장관상을 수상한 바 있으며, 주요작품으로는 마산 신세계백화점, 서울 웨스턴조선호텔 및 부산 웨스턴조선 비치호텔의 리모델링, 여주/파주/부산 신세계사이먼 프리미엄아울렛 및 다수의 할인점과 주상복합 등이 있다.

- 설계팀 : 안치열, 박승태, 석재준, 강연서, 권신혜, 김경옥, 문숙영, 조은아
- 전문기술협력
  - 구조분야 : 바른구조
  - 전기분야 : 한길엔지니어링
  - 기계설비분야 : 한국설비

건축주 | ㈜신세계사이먼

감리자 | ㈜진아건축도시

시공사 | ㈜신세계건설

대지위치 |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법흥리 1790-8번지

주요용도 | 판매시설

대지면적(Site Area) | 86,172.00㎡

건축면적(Building Area) | 17,227.36㎡

연면적(Gross Floor Area) | 69,461.40㎡

건폐율(Building to land Ratio) | 19.99%

용적률(Floor Area Ratio) | 29.93%

규모(Building Scope) | 지하1층 ~ 지상2층

구조 | 철골조 + RC구조

주요마감재 | 외단열시스템 + 타일벽돌 마감, THK24로이복층유리

설계기간(Design period) | 2009. 06 ~ 2011. 01(Phase1.0 기준)

공사기간(Construction period) | 2011. 02 ~ 2012. 08

사진(Photographer) | 채수옥(Chai, Soo-ok)

Client |Shinsegae Simon

Architect | Kim, Jae-hak

Project team | An, Chi-yeol / Park, Seung-tae / Kang, Yeon-seo / Gwon, Shin-hye Kim, Gyung-ok / Jo, Eun-a

General Contractor | Shinsegae E&C

Location | 1790-8, Beopheung-ri, Tanhyeon-myeon, Paju-si, Gyeonggi-do, Korea

Structure | Steel Frame+R.C Structure

Structure Engineer | Bareun Structure Engineers

Electrical Engineer | Hangil ENG

Mechanical Engineer | Han Kook Engineering Co, Ltd

Finishing Materials | External insulation system+Brick Tile THK24 Low-E Double Glazing

배치도

시계탑광장

생각하고 접근하기

파주는 지리적으로 다른 프리미엄아울렛에 비해 도심지에 가깝게 위치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파주 프리미엄아울렛은 다른 교외형 아울렛과는 다르게 도심형의 성격을 띈다. 초기컨셉 단계에서부터 '19세기 미국의 도심지'를 모티브로 잡아 설계를 진행하였다.

마주보기 & 상상하기

파주아울렛의 모티브가 된 '19세기 미국 도심지'에서는 처음으로 아케이드 형식을 가지고 있는 쇼핑몰이 탄생하였는데, 파주 프리미엄아울렛은 그 역사와 풍경을 마주한다. 하나로 길게 이어진 매스는 아케이드 형식의 회랑으로 연결되어 있다. 때문에 고객으로 하여금 날씨에 구애받지 않고 쾌적한 쇼핑을 가능하게 한다. 또한, 단순하게 연결되어 있는 듯 보이지만 실제로 아울렛 내부를 거닐면 생각보다 스트리트가 주는 즐거움에 흠뻑 빠지게 된다. 간헐적으로 꺾여 들어간 길은 다음에 계속될 공간에 대한 상상과 기대감을 준다. 또한, 필연적으로 마주하는 크고 작은 광장들은 좌우가 닫힌 몰(Mall) 내부에 생기를 불어넣는다.

마을 구경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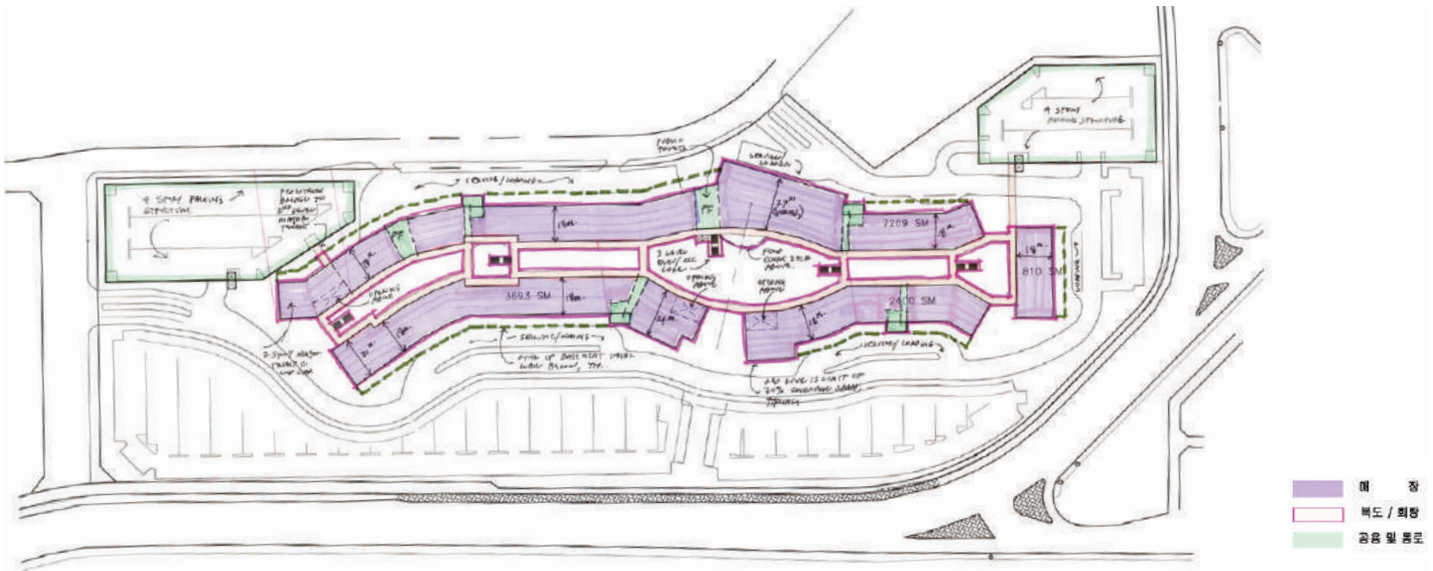
파주 프리미엄아울렛 내부는 길과 그 길을 걷다보면 마주하는 광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크고 작은 세 개의 광장과 그 주위를 둘러싼 매장들의 풍경은 마치 도시의 축소판처럼 느껴진다.

- 시계탑 광장 : 주출입구를 통해 스트리트를 걸어 들어가다 보면 작은 광장을 마주친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에 위치한 클래식한 시계탑은 우리를 19세기의 미국의 도심지로 인도한다.
- 중앙광장 : 시계탑 광장을 따라 양 옆으로 길게 늘어진 매장들을 구경하며 걷다보면 커다란 광장(중정)이 펼쳐진다. 커다란 분수, 옥외 데크와 카페테리아, 광장을 둘러싸며 운행하는 꼬마기차는 마치 외국 도심지의 일부를 옮겨온 듯한 느낌을 불러일으킨다.
- 놀이광장 : 중앙광장을 지나쳐 거닐면 마지막 소광장이 위치한다. 이 소광장의 중앙에는 바닥분수와 회전목마가 위치하는데, 그곳을 뛰어노는 아이들을 보고 있자면, 이 공간이 아울렛의 끝(마지막)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고 활기차고 생동감이 넘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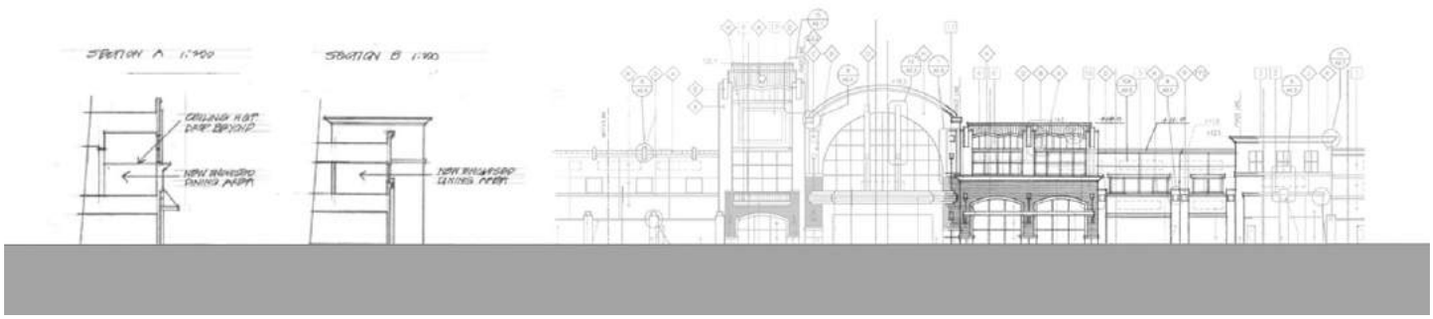
주출입구 정면

몰 내부

중앙광장



배치스터디 스케치



입면 및 단면 스케치

화랑 입면

주출입구 측면

아케이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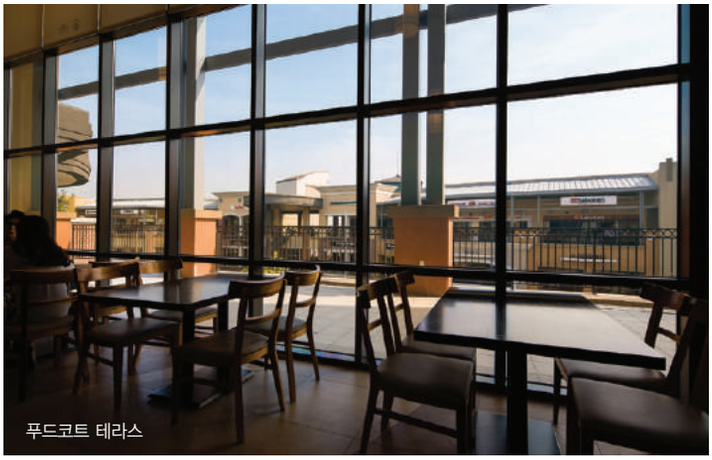
회랑 내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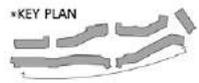
0 5 10 20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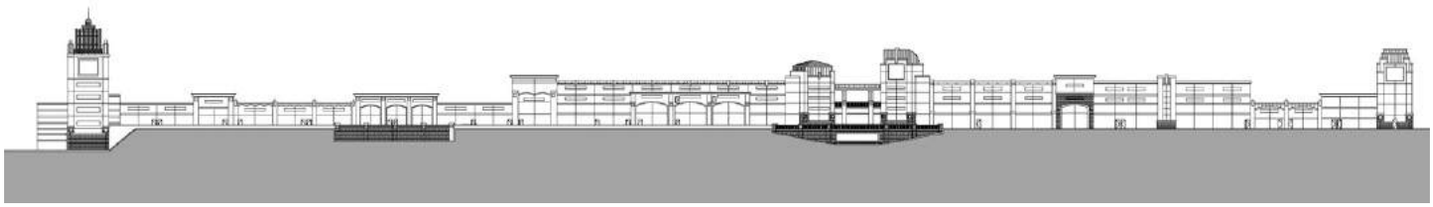
입면도

프리미엄 아울렛 전경

푸드코트


푸드코트 테라스





0 5 10 20m

입면도

회원작품.

U-HAUS 논현 R3-8

U-HAUS Nonhyeon R3-8

설계자 | 정승이_KIRA | 유한 건축사사무소

서울과학기술대학 건축과를 졸업하고, 현재 유한 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경기도 건축문화상, 한국토지공사 '아름다운 우리 집' 우수상, 인천건축상, 파주건축상을 수상하였고, 주요작품으로는 일산 · 교하 · 상동 · 판교주택 다수, 화정어린이도서관, 스타타워 등이 있다. 저서로는 그동안의 주택 경험을 토대로 한 『살기편한 주거공간 U-HAUS』, 『스토리가 있는 상가주택』 등이 있다.

- 설계팀 : 김규선, 장재두
- 전문기술협력
  - 전기 · 기계설비분야 : 세원엔지니어링

건축주 | 개인

감리자 | 유한 건축사사무소

대지위치 |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758-8(한화지구 R3-8)

주요용도 | 단독주택

대지면적(Site Area) | 343.1㎡

건축면적(Building Area) | 162.88㎡

연면적(BGross Floor Area) | 259.50㎡

건폐율(Building to land Ratio) | 47.47%

용적률(Floor Area Ratio) | 84.37%

규모(Building Scope) | 지상1층 ~ 지상3층

구조 | 철근콘크리트

주요마감재 | 외부 : 라임스톤, 금속판넬 / 내부 : 천연페인트, 복합대리석(델리카토), 구정마루

설계기간(Design period) | 2013. 01 ~ 2013. 04

공사기간(Construction period) | 2013. 05 ~ 2013. 12

사진(Photographer) | 변종석(Byeon, Jong-seok)

Client | Individuals

Architect | Jung, Seung-y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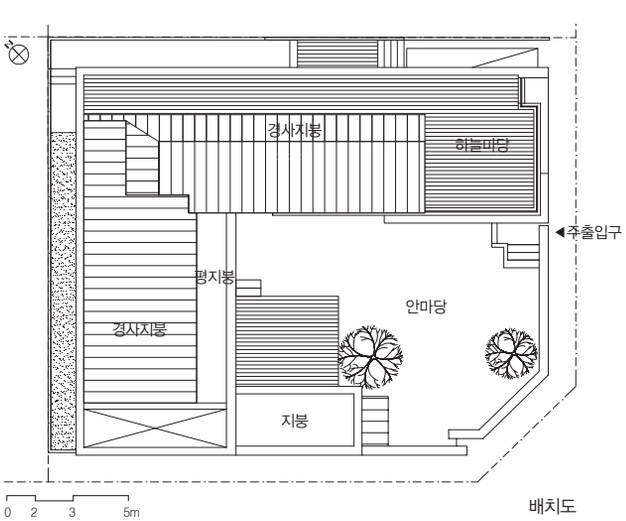
Project team | Kim, Gyu-seon / Jang, Jae-doo

Location | 758-8, Nonhyeon-dong, Namdong-gu, Incheon, Korea

Structure | RC

Finishing Materials | Interior : Natural Paint, Composite marble(Delicato), Kujung maru

Exterior : Limestone, Metal Panel



배치도

인천 논현동 단독주택 프로젝트가 마무리되었다. 한 프로젝트가 마무리되기까지는 최소한 1년이라는 시간이 걸린다. 사진 작업을 마무리하고 난 후에야 머릿속에서 그 모든 과정들이 정리된 것 같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건축가로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마당에 대한 것이다. 단독주택 택지지구에서 '가족이 함께 하는 마당'이라는 공간을 어떻게 계획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으로 설계를 시작하게 되었다.

현재 택지지구 내 단독주택에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의 생각은 어떠할까? 택지지구 내 단독주택의 이상적인 모델은 무엇일까? 이런 생각들에 대한 일련의 답을 도출해 내지 못하고 설계를 한다면 많은 시간이 낭비될 것이다. 좀 더 세부적으로는 프라이버시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이 단독주택 택지에서 풀어가야 할 중요한 숙제라 생각한다. 지나치게 오픈 된 공간이 야기하는 생활상의 불편함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적절한 닫힘과 열림이 조화를 이루어 공간의 풍부함을 느낄 수 있는 집은 택지지구의 단독주택에서 꼭 해야 할 이야기이다.

논현동 단독주택은 단지의 초입에 위치한 코너 대지에 지어졌다.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길목인 만큼 계획 초기 건물의 이미지보다는 마당에 대한 계획이 설계에 있어 중요한 부분이었다. 마당은 다양한 행동이 일어나는 공간이다. 이 주택의 마당은 아이

담장에 둘러싸인 주택, 그 안에 담긴 삶의 이야기가 궁금해진다.

들의 공간임과 동시에 어른의 공간이 되고 있다. 다시 말해, 모든 가족이 함께 공유하고 즐길 수 있는 마당인 것이다. 이러한 마당을 가능케 한 것은 높은 담장으로 마당을 사적인 공간으로 연출하고 내부 공간들이 마당을 향해 열려있도록 계획했기 때문이다. 높은 담장이 있는 대문을 통해 진입하면 가벽이 나타난다. 가벽은 주생활공간으로 진입 직전에 한 템포 쉬어가는 기능과 아트월의 역할을 한다. 두 단의 계단을 통해 마당으로 올라오게 되면 넓은 마당과 담장을 더욱더 가까이 느낄 수 있다. 진입에 따른 상승감을 만들어 낸 것이다. 이렇게 이 집은 마당에서 다양한 공간감을 느끼며 건물 내부로 진입한다. 진입 후에도 거실과 주방, 식당이 마당을 향해 에워싸고 있어 마당을 중심으로 내부의 모든 행위와 움직임들이 일어나게 된다. 논현동 단독주택에서 마당은 모든 공간에서 보여지는 시각적 관조의 대상이 되고, 그 쓰임에 있어서는 다채로운 기능들을 품에 안은 풍부한 공간이 되는 것이다. 2층에서도 안방, 아이들 방, 소거실이 마당을 바라보며, 3층의 공간 역시 마당을 바라보도록 구성되어있다. 소나무 두 그루가 만들어 내는 공간의 수직적인 연속성이 마당과 조화를 이루고 있다.

건축 초기부터 담장에 대한 이야기로 많은 이목을 끌었던 논현동 단독주택 프로젝트는 이제 동네에서 또 다른 스토리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한다. 이곳 논현동에서는 한 달에 한 번씩 돌아가며 건축주의 집에서 반상회를 연다고 한다. 요즘 동네에 이러한 모임이 있다는 것도 특별하게 생각되며 특히 논현동 단독주택과 이웃 간에 어떠한 이야기가 만들어 질지도 궁금하다.

건축주는 아파트에 거주할 때와 지금의 삶에 대해 확연한 차이를 느끼고 있다. 몇 달 동안 느꼈던 삶의 변화에 대해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주거문화의 현주소를 실감했으며, 건축가로서 해야 할 일에 대해 생각하게 된다. 건축은 건축주와의 만남에 의해 만들어지는 만큼 건축 공간은 실제로 사용하는 건축주에 의해 특별한 공간으로 재구성된다. 현재 논현동 단독주택은 담장과 마당으로 특별한 가치를 만들어 내고 있다. 담장을 중심으로 그 안팎의 가족적, 도시적 이야기가 풍성해지고 있는 것이다. 담장은 공간을 더욱더 풍부하게 만들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요즘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이 되고 있는 한옥의 공간을 적극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다. 매우 긍정적인 사례가 된 논현동 단독주택을 통하여 앞으로 택지지구에서 담장의 현대적인 구현 방법을 제시하여 풍요로운 도시공간과 삶을 담아 가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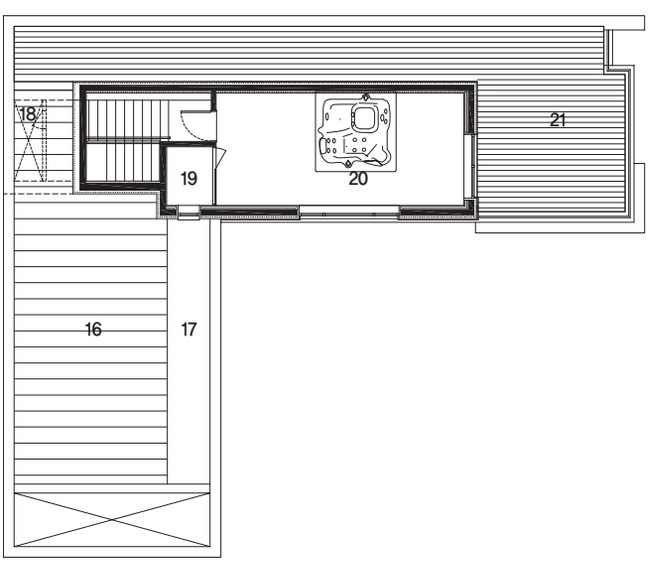
매스의 조형성과 소나무의 조화가 가장 잘 드러나는 측면 모습.

넓은 창으로 거실의 공간을 마당까지 확장하였으며, 남창은 넓은 공간에서 자유로운 생활이 가능하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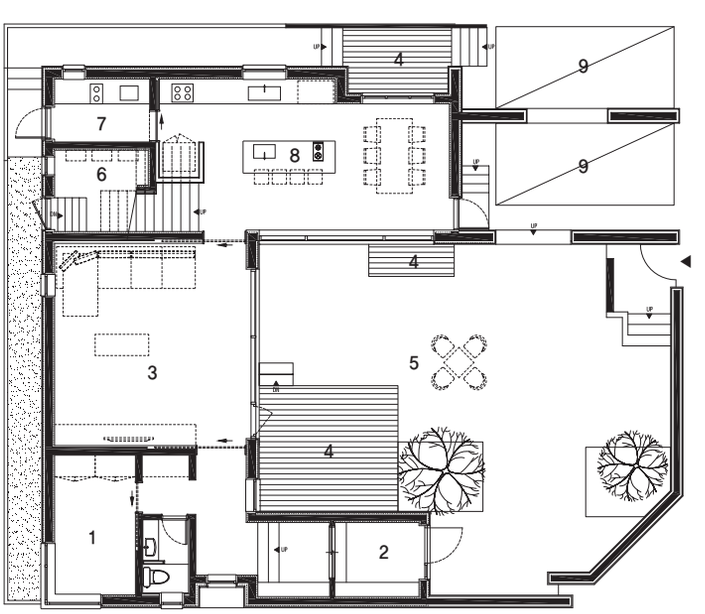
현관에서 바라본 마당. 집 내부로 진입하기 까지 동선을 길게하여 마당을 거닐며 여유를 즐긴다.

3층에서 바라본 마당. 집 안 어디서나 마당을 느끼고 가족이 서로 소통할 수 있도록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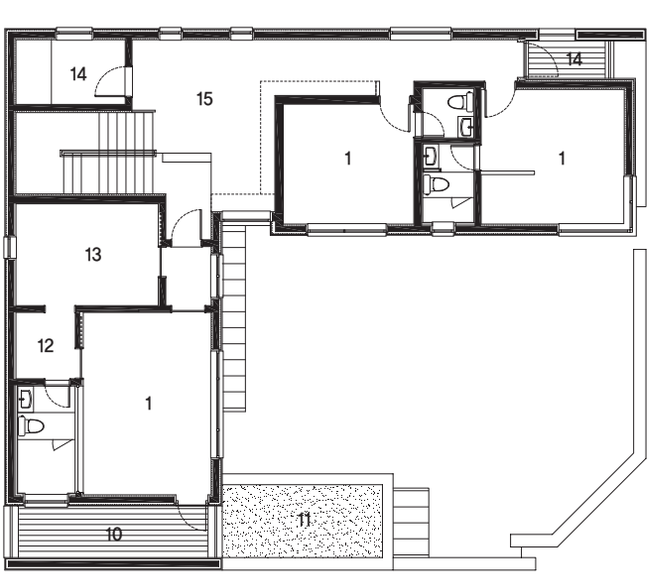
1. 침실
2. 현관
3. 거실
4. 데크
5. 안마당
6. 보일러실
7. 보조주방
8. 주방 및 식당
9. 주차장
10. 테라스
11. 지붕
12. 파우더룸
13. 드레스룸
14. 발코니
15. 홀
16. 경사지붕
17. 평지붕
18. 창고
19. 샤워실
20. 스파
21. 하늘마당



3층 평면도



1층 평면도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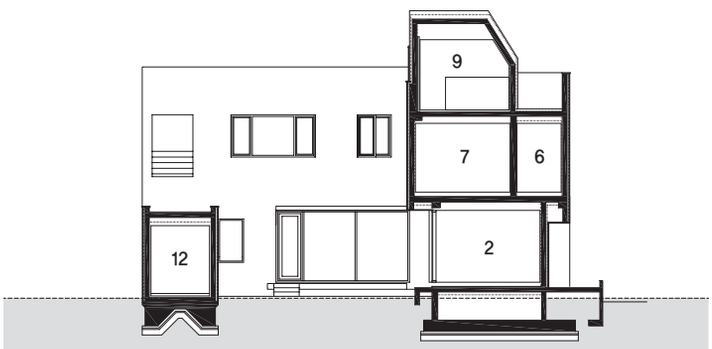
2층 소거실. 개인실들이 계획된 2층에 작은 공용공간을 만들어 또다른 추억을 만들 수 있다.

자녀방으로 연결되는 통로의 벽을 책장으로 활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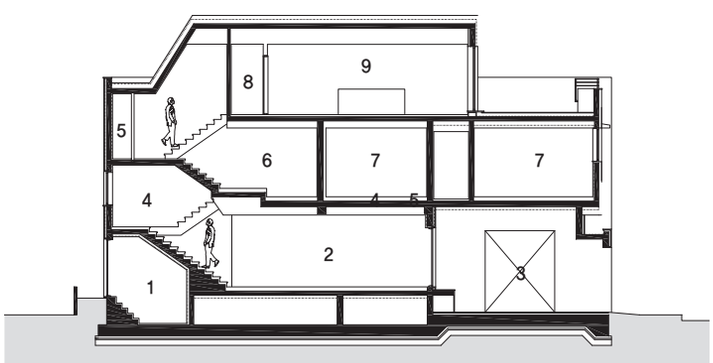
3층 스파공간은 가족만의 휴양지이다.

주방에서 요리와 식사를 하는 동안에도 마당을 바라볼 수 있도록 했다.

1. 보일러실 2. 주방 및 식당 3. 주차장 4. 계단실 5. 창고
6. 홀 7. 침실 8. 샤워실 9. 스파 10. 거실
11. 테라스 12. 현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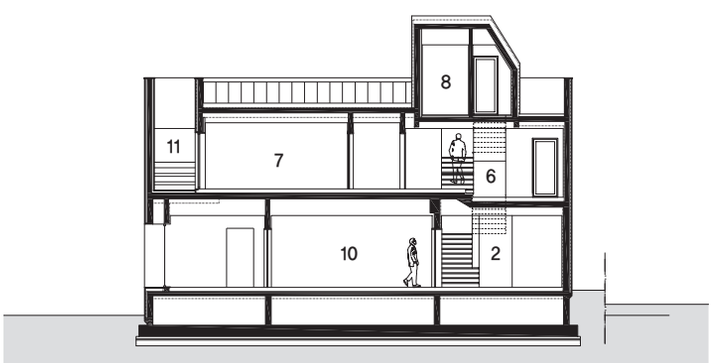


단면도-3



0 2 3 5m

단면도-1



단면도-2

회원작품.

오월어머니집

May Mothers House

설계자 | 박홍근_KIRA | ㈜포유 건축사사무소

울산대학교 건축학과와 동대학원을 졸업하고, 서울의 일건건축에서부터 실무를 익혔다. 1995년 빛고을 광주에 사무실을 열고 오늘에 이른다. 대표작으로는 동신대 기숙사, 해남문화예술회관, 완도수산물유통센터, 문화여성병원 등이 있으며, 2004 전라남도 아름다운 건축물상 금상, 2006년 한국건축문화대상 본상, 2007년 한국건축문화대상 우수상, 1999년 광주시 건축상 금상, 2009년 광주시 건축상 은상, 2014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표창 등을 수상했다. 현재 전남대학교에 출강 중이며, 시민단체에서 도시 · 건축 관련 전문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양림동 마을만들기'에도 참여하고 있다.

- 설계팀 : 이광덕, 류연아, 이혜인, 김석의, 추권준
- 전문기술협력
  - 구조분야 : 국제구조
  - 기계설비분야 : 새터이엔지
  - 전기통신분야 : 청안엔지니어링

건축주 | 사단법인 오월어머니집

감리자 | ㈜포유 건축사사무소

시공사 | 충원건설

대지위치 | 광주광역시 남구 양림동 202-22 외1필지

주요용도 | 근린생활시설

대지면적(Site Area) | 470.43㎡

건축면적(Building Area) | 272.12㎡

연면적(Gross Floor Area) | 424.65㎡

건폐율(Building to land Ratio) | 57.84%

용적률(Floor Area Ratio) | 90.26%

규모(Building Scope) | 지상1층 ~ 지상2층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주요마감재 | 노출콘크리트, MS전벽돌, T24 로이복층유리

설계기간(Design period) | 2013. 05 ~ 2013. 10

공사기간(Construction period) | 2013. 11 ~ 2014. 04

사진(Photographer) | 박영채(Park, Young-chae)

Client | May Mothers House

Architect | Park, Hong-guen

Project team | Lee, Gwang-deok / Ryu, Yeon-a / Lee, Hye-in / Kim, Seok eui
Chu, Kwon jun

General Contractor | Chungwon Construction

Location | 202-22, Yangrim-dong, Nam-gu, Gwangju, Kore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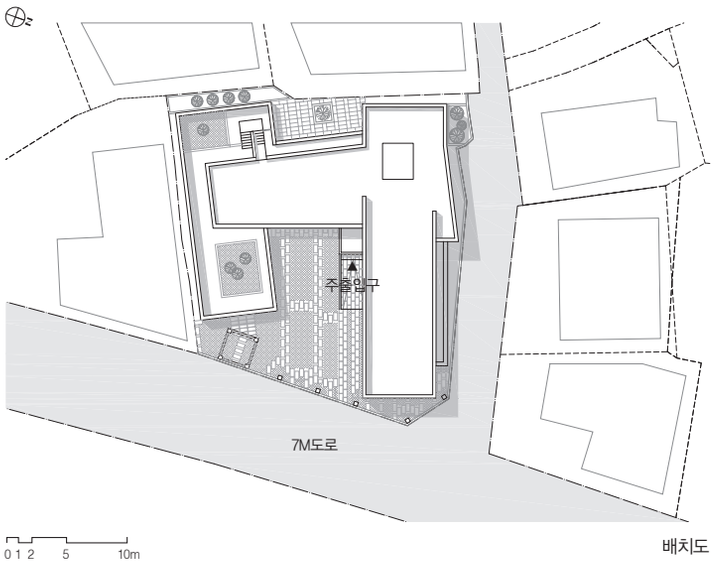
Structure | RC

Structure Engineer | KUKJE Structural Engineers Co.,Ltd

HVAC & Eletrical Engineer | SAE TEO Engineering

Electrical Engineer | CHUNG AHN Engineering

Finishing Materials | Exposed concrete, MS-brick , T24 Low-E pair glass



배치도

전경

모든 장소에는 그들만의 무늬가 있다. 즉 고유의 터무늬가 있다. 이곳의 터무늬는 양림동의 오랜 역사와 함께한 작은 부정형의 필지들이 좁은 골목과 마주하며 모자이크처럼 흥미롭다. 양림동은 110여년 전 선교사들이 정착하면서 근대건축물이 들어서게 되었고, 그 이전부터 있던 전통한옥과 함께 많은 문화유산들이 공존하며 매력적인 공간구조를 이루고 있는 역사문화마을이다.

세월의 흔적과 역사, 기억 등의 켜들이 쌓여 있는 이곳은 새로 들어설 건축물도 달라야 한다고 생각했다. 근대건축물의 특징과 전통건축의 어휘들이 이 작품에 녹아들어가 시간의 연속선상에 함께하는 바람을 가졌다. 또한 민주화운동에 앞장서신 분들이 사용할 오월어머니집인 만큼, 그 의미를 되새기며 공간을 나누고 형태를 구성했다.

전통건축의 안마당과 뒷마당이 비어있음으로 인하여 다양한 기능을 수용하는 것처럼, 이 건물의 진입마당은 모두를 포용할 수 있는 개방된 공간이 되도록 계획했으며, 지역사회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열린 공간으로 구성했다. 또한 처마 밑 공간은 비를 피하기도 하고, 햇빛을 가려주기도 하면서 공간의 연결과 확장의 접점이 되기도 한다. 진입마당에 접하여 현관으로 연결되는 길은 처마 밑 공간처럼 캔틸레버로 디자인하였으며, 이 공간이 다양한 기능과 시선의 변화에 배경이 되길 기대해 본다.

마당에 접한 외벽은 이중외피로 구성했다. 외부 벽돌은 작은 틈이 생기도록 띄어쌓기를 하여 스크린과 같은 기능을 하도록 했으며, 내측에는 대형 유리창을 두어 개방성도 동시에 갖도록 했다. 외부와 내부공간의 상호소통, 내부공간의 확장성과 가변성을 갖도록 구상했다. 형태는 여러 모습을 가진 다섯 개의 덩어리가 쌓여 조형적 형상을 갖도록 했으며, 내부는 필요한 기능을 수용토록 공간을 배열하였다. 음양오행, 오방색, 오월, 등의 의미와 정신을 바탕으로 나온 개념을 형상화했다.

외부 마감은 마을 내 근대건축문화유산들과 맥락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유사한 색과 질감의 전통벽돌을 택했고, 세월의 흐름과 더불어 자연 속에서 변해가는 모습을 느낄 수 있는 노출콘크리트도 사용했다. 외벽의 수많은 벽돌들은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한 시민정신의 결합체를 상징하고, 상부의 큰 덩어리는 우리가 바라는 민주주의 그 자체를 의미한다. 반사되는 유리벽을 통해서는 현재의 나의 모습을 되돌아보길 바라는 염원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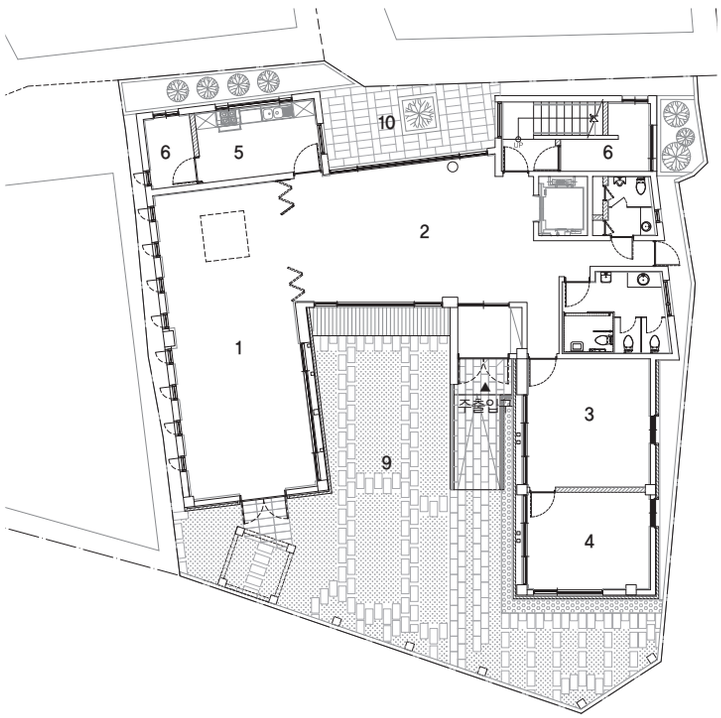
이곳 오월어머니집에는 광주 3.1운동을 주도했던 양림동의 역사와 더불어 오월정신의 맥을 계승하고 발전하는 데 필요한 어머니의 품과 같은 포근한 공간이 되길 바라는 소망도 담았다.

이중외피로 내부 빛이 투영되는 처마 밑 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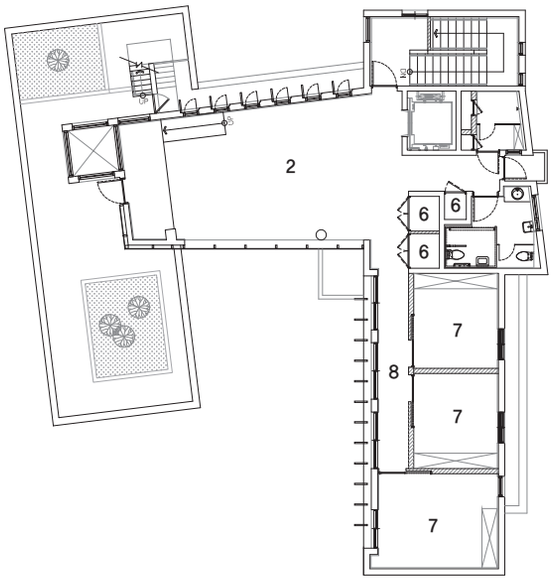
미완성의 오월 상징물과 건물 안내판

도로에서 바라본 전경. 진입마당과 뒷마당이 빛으로 연결된다.

1. 강당 2. 다목적실 3. 사무실 4. 관장실 5. 주방 및 식당 6. 창고 7. 미팅룸 8. 복도 9. 진입마당 10. 뒷마당



1층 평면도



2층 평면도

전통벽돌은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한 시민들의 정신을, 노출콘크리트 매스는 민주주의 그 자체를 의미한다.

다목적실에서 진입마당과 도로

개방적이고 가변적인 다목적실과 강당

0 1 2 5 10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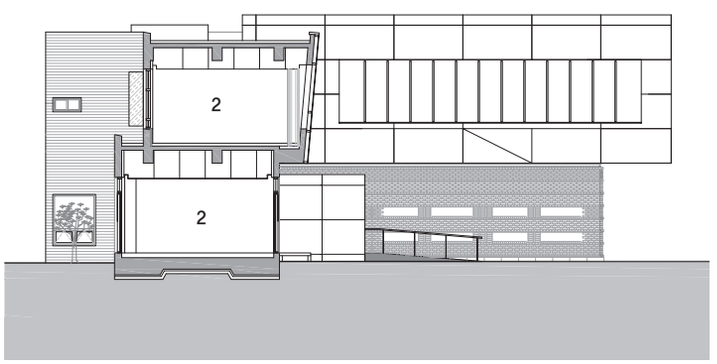
정면도

좌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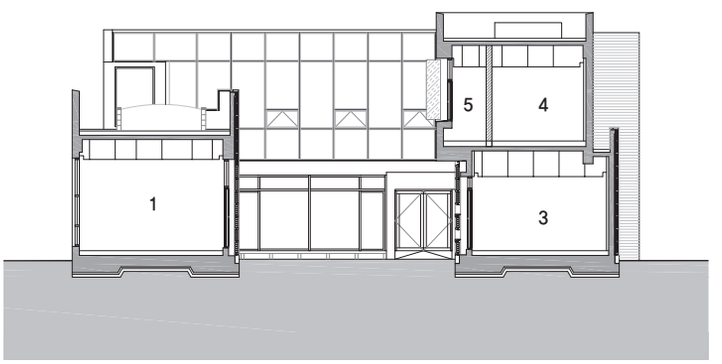
녹화될 기둥과 처마 밑 공간

골목을 새롭게 하는 입면 요소들

1. 강당 2. 다목적실 3. 사무실 4. 미팅룸 5. 복도



종단면도



횡단면도

인터뷰.

이충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인터뷰
An Interview with Lee Choongjae Chairman of Multifunctional Administrative City Construction Agency

“첨단의 건축기술과 디자인, 정보가 총망라된 도시 만들어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이충재**

이렇게 바쁘신 가운데서도 인터뷰에 응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인 행복도시는 국토의 균형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그 중요성이 매우 크며, 여러 가지 새로운 건축적인 시도가 많이 진행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건축계에 도움이 될 만한 많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행 : 김형수 / 대한건축사협회 편집국장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의 의미와 중요성에 대하여 말씀해주시는 것으로 대담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궁극적인 목적은 국토의 균형발전과 더 나아가 국가경쟁력 제고라는 실현 가능한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한강의 기적을 통하여 기아와 빈곤에서 벗어나 산업화를 이루는데 성공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완숙기에 도달한 현재, 한강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성장 개념에서 선진국으로의 새로운 성장축, 즉 제2의 한강의 기적이 시작되는 장소는 여기 행정중심복합도시인 행복도시입니다.

실질적으로 행복도시의 물리적 공간은 이 도시 자체에 국한되지만 중심도시의 건설을 통해서 주변 도시와 연계하여 거대 도시권을 만들어 나갈 예정입니다. 중부권 인근에 위치하는 대전, 청주, 천안, 공주시를 하나의 도시권으로 묶어 수도권에 버금가는 첨단 거대 도시권을 만들 수 있습니다. 중부권의 거대 도시권은 수도권과 경상도 지역과 전라도 지역의 중심이 되는, 새로운 대한민국 성장 동력의 중심이 될 것입니다. 행복도시를 중심으로 한 대한민국 국토의 균형발전을 통하여 국가나 경쟁력 제고의 터닝 포인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행복도시가 위치한 중부권은 그동안 주로 수도권과 호남권, 영남권 간 통과지역의 역할을 수행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세 개의 거대 권역이 국토 발전의 거점이 되어왔습니다. 그동안 수도권에서 규제를 통해 물리적으로 어쩔 수 없이 넘어오는 인력이나 사람이 많았다면, 이제는 중부지역의 경쟁력이 강화되면서 자발적으로 사람이나, 인력 자본이 넘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복도시를 중심으로 도시 경쟁력을 키운다면 거대 도시권인 메가폴리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메가폴리스의 중심도시인 행복도시의 개발이 매너리즘에 빠지면 안 되고, 건설사업에 참여하는 건축사사무소나 건설회사들이 이러한 가치관을 가지고 참여할 때 행복도시가 세계적인 도시가 되고 외국인들이나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 도시에 정착하고 또 관광을 올 것입니다.

거대도시의 중심 도시로 개발하기 위하여 어떠한 전략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렇듯 거대한 취지 아래 이 도시를 보면, 공공건축물은 공공부문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계획과 실행을 일관성 있게 추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에는 공공건축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민간부문 즉, 아파트, 단독주택, 상가 등 다양한 건축물이 존재합니다. 민간건축물은 디자인이나 시공 품질에 대해 체계적으로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도시 공간이나 미관 상 조화가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람직한 도시는 우선 가치 있는 건축물로 채워져야 하고, 이용이 편해야 하며, 공공의 가치에도 충실해야 합니다. 그러나 민간의 경우 주로 이윤이나 경제성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 주택사업자가 택지를 분양받아 분양성이 최고로 나오는 형태로 건축물을 건설하고 분양하여 사업을 완료하게 됩니다. 사업주가 살 집이 아니기 때문에 경제성에 초점을 맞춘 밋밋한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상업지역도 마찬가지로 분양이 끝나면 시행사업주와는 상관이 없으므로 최대한도의 이윤을 추구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해 본 결과, 양식을 가지고 있고 개인의 이윤과 공공의 가치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어 개발할 수 있는 시행사나 시공사, 설계자에게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 어떨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지금 공동주택단지는 추첨에 의해서 선정이 되기 때문에 극단적으로 개인의 이익만 추구하는 사업자를 파악이 어렵습니다. 이에 관한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획일화된 아파트 설계와 시공에 대하여 많은 문제제기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삶의 질을 보다 향상시키기 위해 공공의 가치를 구현하는 방안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획일적인 아파트가 될 수밖에 없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의 택지를 하나의 사업주체에게 분양을 하기 때문에 분양받은 업체의 규모나 수준에 따라 건물 수준의 차이가 많이 납니다. 또한 필지별로 디자인이 이루어지고 자체적인 조경이나 공간계획을 하기 때문에 도시적인 맥락과는 상관없는 결과물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도시와 커뮤니티의 차원에서 공동체적인 삶을 복원하려면 서로 개방하고 소통하고 화합하는 문화가 형성되어야 합니다. 이웃 간에 단절되어 주차문제나 층간소음 등 갈등만이 증폭되는 상황에서는 공동체 문화가 형성되기 어렵고 보다 품격 있는 사회로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이웃 간에 소통이 되고 내 친척처럼 친근하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하여 대한민국 최초로 공동커뮤니티를 과감하게 도입하였습니다.

그동안에는 단지별로 조경이나 미술작품 등을 따로 계획하다 보니 단지별로 연계되는 공간이 없어 지역의 전체적인 통일성을 확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행복도시의 주거지역 개발방식은 녹지 등의 공동커뮤니티시설을 필지별로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500m 이내에 하나씩 총 4개의 공간을 설치하여 단지에 상관없이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면 임대아파트든 분양아파트든 구분 없이 같이 모여서 서로 소통하고 공간을 즐길 수 있게 되고, 결국 사소통하고 화합하는 그런 마을 개념의 도시문화가 정착될 것입니다.

입면의 다양화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필지별로 각기 다른 회사에서 개별설계를 하다 보니 입면 차별화에 대한 의지가 그리 높지 않습니다. 물론 대기업들은 고급 브랜드의 이미지에 맞추어 수준 높은 입면을 만들어내지만 중소업체의 경우 최대한의 수익성만을 추구하여 단순하고 획일적인 입면을 만들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시의 입장에서도 기본적인 법률만 맞추면 사업승인을 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업과 공공부문이 같이 융화해서 도시를 만들고 사회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나온 결론이 통합설계 공모시스템입니다. 실제로 이 방식을 적용하여 입면도 다양해지고, 가로도 활성화되었으며 공동커뮤니티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친환경적인 조경과 태양광을 비롯한 신재생에너지도 적극 도입하였습니다.

이러한 필지별 개발이 아닌 블록별 개발방식을 시내 11개 택지에 적용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수익률이 떨어지고 지역 부동산이 침체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도 많았지만, 이러한 방식으로 개발된 첫 아파트를 9월에 분양해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습니다. 관심을 가진 수요자가 많이 몰려들었고 언론에서의 반응도 매우 긍정적이었습니다. 이렇듯 창조적인 특화 전략을 통해 도시의 가치는 물론 주민들의 자긍심을 올라가면 자연스럽게 외부 사람들도 행복도시로 유입될 것입니다.

또 나중에 이런 단위의 도시가 됐을 때 그것을 외국에 수출하게 되면 많은 외화를 벌어들이고 대한민국의 도시개발 경쟁력이 세계에 알려질 것입니다. 단순한 필지 단위의 민간아파트로 그칠 것이 아니라 민간부문을 유도해서 프로그램에 참여시키고 또 결과물을 통해 업체의 가치와 함께 도시의 가치가 올라가는 것이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블록별 개발방식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계속 진행될 것입니다. 기본적인 도시 개념과 건물의 형태가 포함된 마스터플랜을 제공하고 업체들은 몇 개씩 묶여서 컨소시엄으로 들어옵니다. 물론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주기 때문에 건축을 하더라도 같은 유형의 아파트는 건축할 수 없습니다.

행복도시에는 단독주택지역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독 주택의 개발에 대한 청장님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그간 단독주택 필지는 바둑판처럼 땅을 나눈 다음에 하나씩 팔아왔습니다. 한 필지의 주인이 수준 높은 주택을 지었다 하여도 옆에 신축하는 주택의 디자인 수준이 낮거나 너무 개성이 강한 주택들이 들어설 경우 전체적인 조화가 깨지고 동네의 분위기는 조잡해지는 경향이 있어 왔습니다. 하지만 LH공사 등에서는 필지를 파는 데만 신경을 쓰고 그 단지가 어떻게 조화를 이룰 것인가에 대하여서는 관심을 두지 않았

던 것이 사실입니다.

행복도시에서는 단지설계를 획일적으로 하지 않고 일반에게 공모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단지별로 설계안을 공모하여 단지의 아이덴티티를 구성하고 그 범주 내에서 건물의 설계하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지중해풍의 디자인이라든지 북유럽풍, 친환경 단지, 한옥 등 단지별로 테마와 개념을 미리 부여하는 방식입니다. 자동차 없는 단지를 만드는 것도 하나의 아이디어가 될 수 있습니다. 단지 내로 들어온 사람은 자동차를 지하에 주차하고 지상은 자동차 없는 공원 같은 환경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단지 내에서는 누구나 다 걸어다는 것이지요. 조경을 멋지게 해서 봄에는 산수유가 피고, 여름에는 녹음이 울창해지고, 가을에는 은행나무, 겨울에는 메타세콰이어 등이 있어서 사시사철 누구나 와서 스케치를 할 수 있을 만큼 정서적으로 안정된 마을을 하나씩 하나씩 만든다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행복도시를 세계적인 도시를 만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행복도시청에서는 어렵지만 역할을 다하고자 합니다.
현재는 두 개의 단지를 공모하고 있습니다.

상업시설지역은 이윤을 추구하는 경향이 더 강하고 전체적인 도시 환경의 개념과 충돌을 많이 하게 됩니다. 행복도시의 상업시설지역은 어떠한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사실 가장 심각한 부분이 상업시설용지입니다. 상업용지는 최고가로 불하를 하기 때문에 결국 자본력이 있는 주체가 용지를 확보하게 됩니다. 행복도시가 초기에 활성화되지 않은 이유 중 하나도 용지를 확보한 회사가 지가 상승을 기대하고 계속 개발을 미뤘기 때문입니다. 상업용지를 매입한 회사는 아파트 입주를 기다리고, 반대로 입주민이 이주를 할 시점에는 상업용지 건물이 개발되지 않아 편의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상이 발생하였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자기자본이 부족한 회사가 투자자 또는 금융권에서 PF를 일으켜 용지를 고가에 구입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투자자 돈만 가지고 하는 것은 굉장히 리스크가 많습니다. 투자자 모집이 안되면 부도가 날 수 있고, 부도가 나면 그 부담은 분양자에게 다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행복도시에서는 개발주체가 용지의 실소유자인지, 자기자본을 가지고 분양을 하는지, 건축비는 확보되어 있는지 등을 면밀하게 따집니다. 그 다음은 가격의 적정성을 확인합니다. 토지불하의 중요도에서 가격은 한 30% 정도의 배점을 주고 있습니다. 대신 신기술의 이용, 디자인의 우수성 등을 평가 항목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처음 도시가 형성되는 시점에서는 복덕방이나 김밥집 같은 업종이 건물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고급 레스토랑이라든가 아이들을 위한 의료시설 등을 유치하면 도시의 활성화가 더욱 앞당겨집니다. 상업필지도 특화를 해서 개별적인 디자인을 지양하고 단지 개념의 설계를 시도하고 있는데, 건물 3층의 매스를 뒤로 물러서 넓은 공중공원을 두어 동선과 외부조경 공간을 형성하고 주민을 3층으로 유도하여 1~2층뿐만 아니라 3~4층도 상업 시설로 활성화 될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하였습니다. 더불어 수영장도 만들고 커뮤니티공간도 만들어서 도심의 새로운 활동 공간을 창출합니다.

가로중심의 도시공간

대중교통중심 도로변은 전체를 통합하는 상징적 가로공간

국립세종도서관

호수공원 인공섬

대통령기록관

세종시교육청

공공건축물은 디자인 품질에 대한 관리가 비교적 잘 된다고 하셨는데, 행복도시의 공공건축물은 어떠한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행복도시에서는 도서관, 커뮤니티센터, 시청사 등 55개 건축물을 정부가 짓습니다. 그런데 공공건축물의 형태가 대부분 다 비슷해서 시간이 흐른 후 도시의 미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걱정이 됩니다. 제가 벤치마킹 하고 있는 도시는 바르셀로나인데, 전 세계의 관광객들이 도시를 관광하면서 사용한 광관수입으로 공공건축물을 짓고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예산 지원을 그렇게 할 수도 없고 민원이 많아서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는 장기간에 걸쳐 그런 거대 건축물을 짓지는 못하지만, 21세기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 기술력, 디자인, 잠재력을 행복도시에 구현해보자는 생각입니다. 55개 건물 중 한두 개 건물에 넣어서 반짝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건축 역량을 다 넣어볼 생각입니다. 얼마 전 준공한 도서관에 한번 가보세요. 작년에 개장했는데 벌써 이탈리아, 독일, 미국 등에서 세계적인 상을 받았습니다. 이 건물은 대한민국 건축사가 설계한 것입니다.

행복도시에는 동일한 건축물을 지을 수 없습니다. 그 건축물이 우수할지라도 이미 유사한 형식과 자재를 썼다면 다른 컨셉으로 설계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건축디자인과 자재, 공간의 개념들을 각각 적용하면 55개 건축물이 모두 지어졌을 때 21세기 건축물을 공부하는 사람, 구경하고 싶은 사람, 가르치는 사람은 이 도시를 방문할 것입니다. 후대에는 지금 우리가 로마, 파리, 워싱턴 등 주요 도시를 관광하러 가는 것처럼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행복도시로 관광 오는 때가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청장님께서는 건축물뿐만 아니라 가로등, 버스정류장, 벤치 등 환경조형물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다고 들었습니다. 조금 더 설명 부탁드립니다.

사실 환경조형물 이외에 교량 등 토목구조물도 거기에 해당됩니다. 행복도시에는 83개의 교량이 있습니다. 저는 그냥 멋있는 교량이 아니라 대한민국 교량 기술력을 여기다 집어넣으라고 주문하고 있습니다. 교량이 모두 완성되고 나면 토목적인 가치가 엄청난 도시가 될 것입니다. 가로등, 우체통, 버스정류장, 맨홀 등 환경조형물도 도시 미관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시민들이 즐기는 대상입니다. 이러한 분야에도 세심한 고려를 하여야 합니다. 가로수나 녹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행복도시는 녹지율이 52% 정도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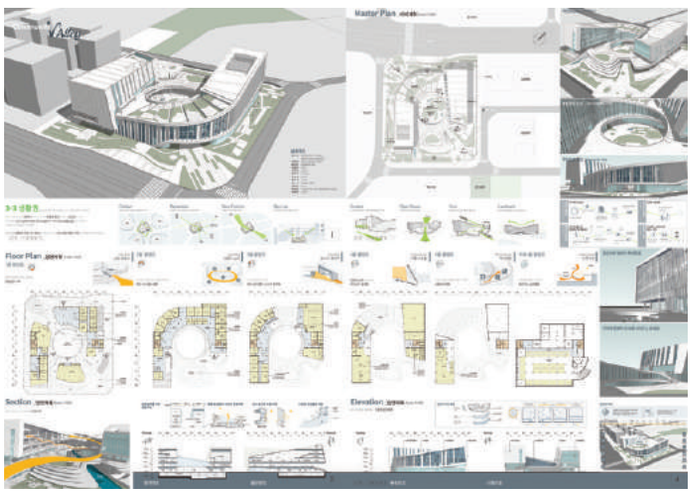
한두리교와 첫마을아파트 야경

세종시를 중심으로 한 거대 도시권은 예로부터 과학연구 중심 도시로 유명했는데, 기술, 에너지, 환경에 대한 청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대덕특구를 잘 아실 것입니다. 이 지역은 이미 40년 전에 이런 산업의 인프라가 구축된 과학벨트로, 국제과학비즈니스센터, 오성생명과학산업단지 등 90년대부터 대한민국의 과학기술의 메카로 역량을 축적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또한 아산의 자동차나 LCD, 평택의 제강, 철강, 석유, 화학 등 대한민국의 21세기 산업이 과거 장치산업부터 현대 IT · PT산업까지 모두 구축되어 있습니다. 이 도시들을 잘 연계하여 거대 도시권을 만들면 엄청난 지역경쟁력을 가질 것이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 갈 수 있는 지역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건축물도 첨단의 디자인이 되어야 합니다.
나아가 행복도시는 에너지 부분을 특화하여 태양광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에너지 친화적인 대한민국 환경수도가 될 것입니다.

행복도시에서 진행되는 현상설계 방식을 획기적으로 변경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새로운 방식은 무엇입니까?

행복도시가 명품도시가 되려면 훌륭한 건축디자인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공모한 여러 작품 중 이 도시에 적합한 디자인을 선정하는 방식이 매우 중요합니다.
기존의 평가시스템은 심사위원이나 교수가 심사장에 들어와서 점수만 매기고 나갑니다. 심사위원들에게 미리 찾아가서 자신의 작품을 설명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지연과 학연을 동원하여 심사위원을 찾아가면 심사위원도 그 작품에 대하여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로비력이 있는 큰 설계업체는 지속적으로 잠재적인 심사위원들을 상대로 로비를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투명하게 평가를 하기가 힘들


복합커뮤니티센터 설계공모안

고, 정말로 좋은 작품이 선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행복도시에서는 현상설계가 투명하게 진행되고 수준 높은 작품이 선정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심사위원을 만나는 것을 금지하고 공개적으로 설명을 할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도시 설계공모나 제안공모에는 실제로 작업을 한 사람들이 와서 설명을 합니다. 설명을 하고 질의응답을 할 시간도 충분히 줍니다. 그 다음에 그 사람들끼리 토론을 해서 평가를 하도록 합니다. 이러한 방식을 적용하면서 선정된 작품의 수준이 높아졌습니다.

이렇게 평가시스템, 설계방식, 토지공급방식 등을 모두 바꿔가면서 도시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서는 건축사의 역할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건축주와 건축사의 관계가 상하관계였다면 대등한 관계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건축사는 더욱 수준 높은 작품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상설계에 소요되는 비용이 투시도, 모델, 프레젠테이션 등에 너무 과다하게 소요되어 정말 실력 있는 소규모 건축사사무소들이 참여하지 못하게 되는 문제가 있어왔습니다. 저는 과도한 공모비용을 과감히 없애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갖고 모든 건축사가 참석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10대 건축사사무소가 아니더라도 대부분의 건축사들이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청장님께서는 도시와 건축을 만들어내는 시스템의 건전성을 강조하셨는데, 건전한 시스템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건축계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 경험으로 볼 때 건전하고 양식이 있는 사업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노력을 하지 않고도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되면 누구도 노력을 기울이려 하지 않습니다. 저는 건전한 사업체의 역량도 키워주려고 합니다. 그동안 부동산시장이 좋을 때는 개발업자들이 수익을 충분히 가져가도 지가 상승부분이 있어 소비자들도 이득을 보기 때문에 불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시장이 정체되고 완만한 상승구간일 때는 건설주체들이 수익을 나눠야 물건들이 계속 나오고, 그래야 지속적으로 부동산시장이 유지됩니다.
지속적인 개발을 통해서 지속적인 성장을 하려면 이익을 승자가 독식을 하는 것이 아니라 건전하고 적정하게 이윤을 추구해야 합니다. 하도급 업체에도 적정한 이윤을 주어서 장인정신을 가지고 좋은 건축물을 만들게 하고, 자재업체에도 적정의 돈을 주어서 좋은 자재를 쓰도록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분양가도 적정하게, 그러면 임대받은 사람들도 알맞게 임대를 주고 물가도 적정하게 된다면 서로 상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회모델을 여기서 만들어 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참여하는 사람들도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가야하며, 개인의 이익만을 지나치게 추구하면 안 됩니다. 우리 후손들을 위한 명품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적정한 이익을 바탕으로 한 고품격의 건물이 지어져야 합니다.
미래에 이 도시가 완성됐을 때 저는 행복도시가 와서 살고 싶은 매력적인 도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해외 사람들도 와서 살아보고 싶은 도시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첨단의 건축기술이나 디자인, 정보 등을 망라하여 이곳에 구현하여야 합니다. 우선 볼거리가 있어야 하고 배우고 가져갈 거리가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대한건축사협회에 전하고 싶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생각이 건전한 사람들과 함께 힘을 합하여 큰 역사를 만들어보고자 합니다. 대한건축사협회는 국내 유일의 법정 건축사 단체이자 설계분야에서 가장 큰 단체이므로 공신력과 신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하다면 대한건축사협회하고 MOU를 체결하여 우리 행복도시가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추는 데 힘을 합쳐 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청장님 말씀이 건축 설계분야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오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6회 서울국제건축영화제_"If Building Could Talk?"

6th Seoul International Architecture Film Festiral Preview

건물이 말을 한다면, 어떤 말을 제일 먼저 할까?
어떤 말을 가장 하고 싶을까?

산타클로스를 믿는 순수한 아이들 입에서나 나올 법한 말 같지만, 'If Building Could Talk?'는 건축사들이 던진 질문이다. 아니,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질문이라기보다 건물(건축)과 소통하고 싶어 하는 그들의 바램일 것이다.

오는 10월 29일부터 11월 3일까지 이화여자대학교 ECC 내 아트하우스 모모에서는 제6회 서울국제건축영화제가 열린다. 해를 거듭할수록 대중들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올해는 12개국 21편 영화를 선보일 예정이다. 독일, 벨기에 등 유럽권 영화 12편과 미국 영화 8편, 한국 등 아시아권 영화도 4편이 준비돼 있다. 특히 지난해 〈말하는 건축, 시티:홀〉을 필두로 두드러진 한국 건축영화의 약진의 힘입어 올해도 3편의 한국영화가 상영된다. 영화는 관객과의 대화(GV/Guest Visit) 또는 건축사와의 대화(HAF/Host Architect Forum) 이후 시작되는데, 이는 다소 어렵거나 난해할 수도 있는 건축영화의 이해를 돕기 위함이다. 영화 상영 직후 시작했던 것보다 관객들의 호응과 집중도가 좋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같은 방식으로 진행한다.

제5회 서울국제건축영화제에 이어 올해도 집행위원장을 맡은 윤재선 건축사는 "건축이 어떤 면에서는 객체가 아니라 주체가 될 수도 있다는 전제 하에 건축을 재조명하고자 한다. 건축이 잃어버리고 있는 문화적 · 예술적 측면에 접근하여 총체적 삶에 대한 물리적 공간과의 소통을 관객과 함께 시도하는 것이다. 나아가 왜곡된 건축의 사회적 역할을 다시 정립하고 상호 존중하며 존재하는 다양한 가치관들을 수용해 지속가능한 건축과 예술세계에 대한 담론을 나누는 자리가 될 것이다"며 이번 영화제의 의미를 전했다.

올해는 미디어스폰서로 맥스무비(MAXMOVIE)와 계약해 홍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영화제가 끝난 이후에도 사무국으로 오는 재상영 등에 대한 문의가 갈수록 늘어남에 따라 사전 홍보를 강화해 대중의 관심을 더욱 고취시킨다는 계획이다. 주제(건물 Building)와 부제(건물이 말을 한다면? If Building Could Talk?)를 감각적으로 담아낸 포스터는 신경섭 비엔날레 사진작가의 사진을 바탕으로 공간잡지(최승태 디자이너)가 디자인했다. 상영일정표 등 영화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추후 홈페이지(www.siaff.or.kr)와 페이스북(www.facebook.com/siaff2014)을 통해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될 예정이다.

상영작 미리보기

개막작 Opening Film

문화의 전당 Cathedrals of Culture

Germany, Denmark, Norway, Austria, France, USA | 2014 | 156min | Documentary
Director_ 빔 벤더스 Wim WENDERS, 미카엘 글라보거 Michael GLAWOGGER, 마이클 매드슨 Michael MADSEN, 로버트 레드포드 Robert REDFORD, 마가레트 올린 Margreth OLIN, 카림 아이누즈 Karim AINOUZ

"건물들이 말을 할 수 있다면,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할까?"
건물의 영혼에 관한 프로젝트 〈문화의 전당〉은 위 질문에 대한 여섯 가지 다채로운 대답들을 보여준다. 영화 속 건물들은 인공 구조물의 관점에서 바라본 인간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독백처럼 풀어놓는다. 빔 벤더스, 로버트 레드포드, 마이클 매드슨을 포함한 여섯 명의 감독들은 각각 상징적이고 특징적인 건축물을 택해 자신만의 스타일과 방식으로 접근했다. 모더니티의 상징인 베를린 필하모닉 콘서트홀, 사상의 왕국 러시아 국립도서관, 세상에서 가장 인도적인 교화의 공간, 노르웨이 할덴 교도소, 그리고 세상을 뒤흔든 과학 이론들의 탄생지 소크 연구소, 예술과 삶이 공존하는 미래적 공간 오슬로 오페라하우스, 현대문화의 집약체인 퐁피두센터까지. 〈문화의 전당〉은 이 랜드마크들이 우리 시대 문화를 반영하고 우리의 집단 기억을 보존하는 방식을 조명하는 프로젝트다.

시네 파사주 Cine Passage

제4의 벽 Fourth Wall

Belgium | 2013 | 50min | Documentary
Director_ 마리-프랑스와즈 플리사르 Marie-Françoise Plissart

〈제4의 벽〉은 벨기에 리아주 극장의 건축 현장을 카메라에 담은 작품이다. 프랑스의 저명한 사진작가 마리-프랑스와즈 플리사르가 2년에 걸쳐 공사현장의 노동자들과 디자이너, 그리고 건축사들의 모습을 촬영하며 새로운 건물의 탄생을 지켜보았다. 벨기에의 한 도시에 세워지는 새로운 문화 프로젝트의 진행과정을 통해, 극장이라는 건축물과 예술의 본질을 논하는 지적인 탐구여행.

루시앙 에르베의 자화상 Lucien Hervé, Photographer Despite Himself
Belgium | 2013 | 54min | Documentary
Director_ 게리 메시앙 Gerrit Messiaen

르 코르뷔지에가 마르세유의 사무실에서 루시앙 에르베를 처음 만난 날, 그는 에르베가 찍은 650장의 사진을 보고 난 후 "당신은 건축사의 영혼을 가졌소"라고 말했다. 1910년 헝가리에서 태어난 루시앙 에르베는 그날의 만남 후 르 코르뷔지에의 전속 사진작가로 함께 활동했고, 르 코르뷔지에가 세상을 떠난 후에는 마르셀 브로이어, 오스카 나마이어, 발터 그로피우스, 리하르트 노이트라, 알바 알토 등 세계적인 건축사들과 작업을 이어나갔다. 20세기 건축계에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한 한 거장의 작품과 인생을 담은 다큐멘터리.

마이크로토피아 Microtopia
Sweden | 2013 | 52min | Documentary
Director_ 예스퍼 워시메이스터 Jesper WACHTMEISTER

황야에 덩그러니 놓인 컨테이너 박스 집은 매일 별이 쏟아지는 찬란한 밤을 보여준다. 차로 실어 나를 수 있는 달팽이집과 접어서 가지고 다닐 수 있는 비닐하우스는 얼핏 보기엔 뭔가 이상하지만, 사실은 우리 삶의 범위를 확장시켜주는 건축물이다. 이런 소형주택을 고안한 건축사들은 불필요한 요소가 제거된 가볍고 급진적인 주거형태를 제안한다. 소형주택들은 대안적인 미래형 주거공간이 될 수 있을까, 아니면 그저 상상력이 충만한 이들의 실험으로 그치게 될까?

시네 파사주 – 클래식 Cine Passage- Classic

해체주의 건축의 거장들 Deconstructive Architects
USA | 1989 | 58min | Documentary
Director_ 마이클 블랙우드 Michael Blackwood

1988년 6월 23일, 뉴욕 MoMA에서 열린 한 전시회. 이 전시는 당대를 주도하던 포스트모더니즘에 도전하며 새로운 건축시대의 도래를 알리는 신호탄이 되었다. 〈해체주의 건축의 거장들〉은 비엔나부터 LA까지 대도시를 오가며 새로운 감성의 복잡하고 혼란스런 구조를 이해하려는 시도다. 1988년 필립 존스가 기획했던 MoMA의 '해체주의 건축' 전시회 현장과 그곳에서 만난 건축사들의 인터뷰를 기록한, 오래되었지만 여전히 흥미로운 텍스트. 철학자 자크 데리다부터 프랑크 게리, 자하 하디드, 렘 콜하스, 피터 아이젠만 등 현대건축 거장들의 젊은 시절 모습을 만날 수 있다.

자하 하디드의 위대한 도전 Who Dares Wins: Zaha Hadid
UK | 2013 | 75min | Documentary
Director_ 린제이 핸런, 로저 파슨스 Lindsey Hanlon, Roger Parsons

건물을 통해 사람들의 세계관을 바꾼 건축사이자 세계적 슈퍼스타, 자하 하디드. 해체주의 건축의 리더이면서 프리츠커 상을 수상한 유일한 여성건축사인 그녀는 중력의 법칙을 거스르기 위해 노력해왔고, 한때 불가능한 프로젝트에만 도전을 거듭해 '종이 건축사 paper architect'라는 명성을 얻기도 했다. 영화는 이 매력적이고 고집불통인 여성이 어떻게 실현 불가능한 프로젝트들을 설계해왔는지를 파헤치고, 오스트리아에서 아제르바이잔까지 여행하며 그녀가 남긴 성과를 조망한다.

미켈레 데 루키와 멤피스 그룹 Why a Film About Michele De Lucchi
Italy | 2013 | 64min | Documentary
Director_ 알레씨오 보체르 Alessio Bozzer

왜 미켈레 데 루키에 대한 영화일까? 그가 남긴 급진적 건축물과 올리베티사와의 작업들, 그리고 디자이너 에토레 소트사스와의 관계를 듣다 보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의문이다.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오브제인 톨로메오 램프, 여러 장인들과의 작업에 얽힌 이야기를 듣는 한편 아방가르드 디자인의 선두주자였던 그가 왜 갑자기 톱을 들고 작은 나무집들을 짓기 시작했는지에 대한 의문을 해소시킬 영화다.

시네 비스타 Cine Vista

아파트에 갇힌 꿈 03-FLATS
Singapore | 2014 | 90min | Documentary
Director_ 루이 왕 핑 LEI Yuan Bin

대규모 아파트 단지에 담긴 싱가포르의 꿈. 1960년대, 싱가포르는 주택부족을 해소하고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대규모 공공주택정책을 추진했다. 그러나 복지국가를 꿈꾸었던 프로젝트가 결국 초래한 것은 시멘트에 가려진 개인의 단절뿐이다. 영화 〈아파트에 갇힌 꿈〉은 국가주의적 구호가 난무하는 낡은 푸티지 영상 사이에 세 명의 독신 여성의 삶을 병치하며 아시아 공공주택정책의 허구를 냉철하게 드러내고 있다.

16 에이커스 16 Acres
USA | 2012 | 95min | Documentary
Director_ 리처드 행킨 Richard Hankin

9.11 테러 이후, 그라운드 제로의 재건을 둘러싼 논의는 미국 역사상 가장 건축적이고 정치적이며 감정적으로도 복잡한 도시 리뉴얼 프로젝트로 기록되었다. 11년의 시간, 19개의 정부부처, 12개의 하위 프로젝트와 200억달러 이상의 예산이 연관되어 있는데다, 정치적인 이슈가 얽혀 있어 초기부터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16 에이커스〉는 이 프로젝트를 두고 벌어진 다양한 이해의 충돌을 따라간다. 기차역과 공연장, 성스러운 추모공간과 박물관이 들어설 미국 최고 높이의 4개 건물을 건설하기 위해 3,000명의 노동자들이 현장에서 땀을 흘리고 있다. 영화는 프로젝트 뒤 핵심 인물들의 목소리를 통해 2001년 9월 12일부터 9.11 테러의 10주년 기념일까지 10년에 걸친 이야기를 풀어낸다.

삶이 있는 도시–서울 속 도시재생 이야기 City with Life-A Story of the Urban Regeneration in Seoul
Korea | 2014 | 58min | Documentary
Director_ 문경록 Moon Kyeong-Rok

철거와 재개발로 새롭게 변한 마을. 세 청년은 이곳에서 어린 시절의 모습을 찾고 있다. 하지만 재개발로 모든 것이 바뀐 마을에서 지난 기억은 찾을 수 없다. 실망한 청년들은 어린 시절 동네에 대한 기억을 찾아 나서기로 한다. 그리고 한 젊은 건축인을 만나 문제의 해답을 찾게 된다. 그 해답은 바로 '도시재생'. 청년들은 건축인들과 함께 서울의 도시재생 사례를 찾아보고, 그들의 동네도 도시재생으로 개발되었다면 어떠했을지 생각해본다. 청년들은 과연 어린 시절에 대한 기억을 찾을 수 있을까?

에코폴리스 차이나 Ecopolis China
Finland | 2013 | 56min | Documentary
Director_ 안나-카린 그론루스 Anna-Karin GRONROOS

개발광풍의 몸살을 앓고 있는 중국의 도시환경문제에 대한 고민과, 접근방식의 일단을 엿볼 수 있는 다큐멘터리. 핀란드 출신의 한 교수와 중국의 신흥사업가가 포화상태에 이른 중국 도시를 개선하기 위해 의기투합한다. 하지만 두 사람이 그리는 미래상은 너무도 다르다. 사업가는 지구상에서 가장 높은 친환경 건물들을 세워 환경친화적 마천루를 실현하려 하고, 교수는 베이징 외곽에 친환경도시를 건설하려 한다. 중국 도시의 미래는 대체 어디에 있을까?

망대 WatchTower
Korea | 2014 | 66min | Documentary
Director_ 문승욱 MOON Seung-Woo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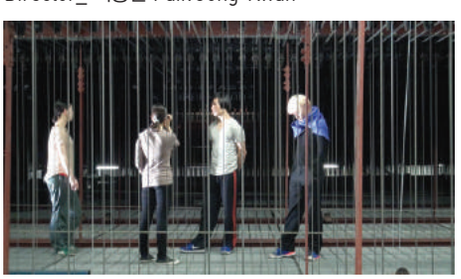
다큐멘터리와 극영화의 형식이 혼재된 독특한 작품. 가까운 미래, 타임머신이 개발되면서 사람들은 과거로 여행을 떠난다. 하지만 타임머신의 이용이 소수로 제한되자 사람들은 불법으로 개발한 타임머신을 타고 시간여행을 한다. 그리고 이들을 잡기 위한 감시자들이 춘천을 찾는다. 망대. 춘천 약사동 언덕 위에 등대처럼 서 있는 낡고 볼품없는 탑. 언제 세워졌는지도 모르는 이 망대는 개발광풍 속에서도 별 쓸모가 없다는 이유로 살아남은 운 좋은 건물이었으나, 결국 2013년 철거가 공식화되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제야 망대를 바라보고 깨닫는다. 망대는 그 오랜 시간 사람들과 함께 한순간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간직하고 있다는 것을. 그건 기억 또는 추억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시네 비욘드 Cine Beyond

내셔널 갤러리 National Gallery
France, USA | 2014 | 174min | Documentary
Director_ 프레데릭 와이즈먼 Frederick WISEMAN

2,400점이 넘는 회화작품을 보유한 영국의 국립미술관은 매년 수많은 상설전과 특별전이 열리는 역사적 공간이다. 그림을 보존하고, 복원하고, 교육하며, 향유하는 모든 사람들이 시간과 예술이 공존하는 이곳을 지나친다. 물질과 정신, 흔적과 기억을 매개하는 공간을 바라보는 거장 프레데릭 와이즈먼의 시선이 빛나는 작품.

극장전개 Unfold the Theater
Korea | 2014 | 62min | Documentary
Director_ 백종관 Paik Jong-Kwan



관객은 무대 위에서 펼쳐지는 공연만을 보고 돌아가지만, 극장은 사실 무대뿐 아니라 다른 많은 공간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하나의 거대한 유기체다. 무대 최상부 공간인 그리드, 객석 상부에 위치한 기계실 등 공개된 적 없는 극장의 내밀한 공간들을 이제 '두 댄스 씨어터' 단원들이 춤을 통해 관객들 앞에 펼쳐내 보이려고 한다. 각 공간의 구조와 그 의미에 대한 건축사들의 자문을 바탕으로 무용수들은 춤을 설계하고, 공연을 위해 서서히 공간과의 소통을 시도해 나간다.

그레이스 오브 모나코 Grace Of Monaco

France, USA, Belgium, Italy | 2014 | 103min | Fiction
Director_ 올리비에 다한 Olivier Dahan

아름답고 우아한 이미지로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던 여배우 그레이스 켈리는 모나코의 레니에 3세와 세기의 결혼식을 올리면서 할리우드를 떠난다. 하지만 답답한 왕실생활에 서서히 지쳐가던 중 히치콕 감독의 영화계 복귀 제안에 마음이 흔들리고, 모나코를 합병시키고 싶었던 프랑스는 그녀를 이용해 왕실을 위기에 빠트린다. 모나코 왕궁의 절경과 함께, 한 여성의 정체성이 변화되는 과정을 궁이라는 특별한 건축물을 통해 이미지적으로 보여주는 작품이다.

그레이트 뷰티 The Great Beauty

Italy, France | 2014 | 141min | Fiction
Director_ 파올로 소렌티노 Paolo Sorrentino

40여 년 전 낸 소설 한 권을 끝으로 더 이상 책을 쓰지 못하는 작가 젭은 로마 1%의 삶을 누리는 셀러브리티다. 하지만 어떤 화려한 파티와 예술도 그의 마음을 울리지 못한다. 65번 째 생일파티가 지난 어느 날 첫사랑의 부고 소식을 들은 그는 가장 아름다웠던 기억을 반추하기 시작한다. 베네토 거리, 수로교 공원, 산타그네제 인 아고네 성당, 파올라 분수, 스파다 미술관 등 영화 속 등장하는 수많은 로마의 건축물들이 영화의 볼거리와 감동을 더한다.

그녀 Her

USA | 2013 | 126min | Fiction
Director_ 스파이크 존즈 Spike Jonze

다른 사람의 편지를 대신 써 주는 대필 작가 테오도르는 아내와 별거 중이다. 타인의 마음을 전해주는 일을 하고 있지만, 정작 자신의 삶은 너무도 외롭고 공허하다. 어느 날, 스스로 생각하고 느끼는 인공지능 운영체제인 '사만다'를 만난 테오도르는 자신의 말에 귀 기울이고 이해해주는 그녀에게 점점 사랑을 느낀다. 가상의 근미래를 배경으로 하는 특별한 로맨스 영화 〈그녀〉는 현실의 LA를 배경으로 하되, 공간의 현실적인 느낌을 지우면서 새로운 공간을 창조해낸다.

1월의 두 얼굴 The Two Faces of January

UK, USA, France | 2014 | 96min | Fiction
Director_ 호세인 아미니 Hossein Amini

여름의 끝, 아테네에 휴가를 온 체스터와 콜레트 부부. 마지막 밤을 즐기려던 체스터는 실수로 낯선 남자를 죽이고 사건을 은폐시키려 하지만, 여행가이드 라이달에게 들키고 만다. 아테네를 빠져 나가기 위해 도움이 절실한 그들에게 라이달은 손을 내밀고, 세 사람 사이에 의심과 긴장감이 감도는 여행이 시작된다. 관광명소인 아테네가 스릴러의 배경이 되면서, 파르테논 신전 등의 유서 깊은 건축물들이 마냥 아름답지만 않은 긴장감의 요소로 부각된다.

시네 비욘드–3D 프린팅과 건축 Cine Beyond-3D Printing and Architecture

메이커 Maker

USA | 2014 | 65min | Documentary
Director_ 차이 무밍 Mu-Ming Tsai

최근 주목 받고 있는 '메이커 무브먼트'가 사회와 문화, 경제전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다큐멘터리. '제3의 산업혁명'이라고 불리는 '메이커 무브먼트'는 오픈 소스, 로컬 제작, 크라우드 펀딩, 그리고 디지털 제작(Digital fabrication)과 같은 혁신적인 컨셉을 통해 전통적 생산방식의 근본을 뒤흔들고 있다. 영화 〈메이커〉는 인터넷 시대의 제작과 디자인 생태계를 깊이 탐구하면서, '메이커 무브먼트'를 주도하고 있는 사람들과 그들의 생각, 도구를 보여주며 현대사회의 변화를 주도하는 새로운 움직임을 포착한다.

건물을 출력해 드립니다 The Man Who Prints Houses

UK | 2013 | 60min | Documentary
Director_ 마크 웹, 잭 웨이크–워커 Marc Webb, Jack Wake-Walker

건축계에 혁명을 일으키려는 패기의 남자, 엔리코 디니. 그는 모래를 이용해 거대한 건물을 바로 만들어낼 수 있는 3D 프린터를 개발하는 중이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가족들은 만신창이가 되었고 사업은 지지부진하기만 하다. 그의 도전은 과연 무모한 시도일까? 심오하면서도 유쾌한 영화 〈건물을 출력해 드립니다〉는 세계를 바꿀지도 모르는 한 천재의 도전을 따라가며 많은 영감을 선사한다.

3D 프린팅: 전설을 만들다 Print the Legend

USA | 2014 | 98min | Documentary
Director_ 루이스 로페즈, 제이 클레이 트윌 Luis Lopez, J. Clay Tweel

3D 프린팅이 세계를 변화시키고 있다. 이 새로운 기술은 총기류부터 인간 장기까지 집에서 직접 필요한 제품을 제작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며, 산업기반을 해체시키는 중이다. '차세대 산업혁명'이라고 불리는 신기술의 개발자들을 최초로 다룬 이 다큐멘터리는 가정 내 컴퓨터는 물론 점점 우리의 삶 속으로 들어오고 있는 3D 프린팅을 잘 보여주고 있다. 만약 이 경쟁에서 살아남는다면, 거대한 부는 물론이고 새로운 역사의 주인공으로 등장하게 될 것이다.

글. 김재환_ Kim, Jae-hwan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상 인가(認可)와 신고(申告)

Approval and Notification in the Basis of the 「City and Residential Environment Maintenance law」

서울대 법대, 동 대학원 법학과를 졸업하였고, 미국 워싱턴주립대 Law School로 연수를 다녀왔다. 제32회 사법시험, 제34회 행정고시(재경직)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을 제22기로 수료한 후 1993년부터 인천지방법원을 시작으로 서울가정법원, 영동지원, 홍성지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등지에서 판사로 재직하였다.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거쳐 대전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서울북부지방법원 등지에서 부장판사로 재직하였으며, 겸임으로 옥천군, 보령시, 대덕구 등지의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과 언론중재위원회 경기중재부장을 역임하였고, 2014년 법관직을 사직하고 법무법인 바른의 파트너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민사 · 형사 · 가사 · 행정 · 조세에 관한 다수의 논문을 발표하였고, 형사소송 전문가로서 〈2013년 형사소송법(법문사)〉와 〈국민참여재판-이론과 실제-(베리북스)〉를 출간한 바 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제16조 제1항, 제2항은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등의 조합설립인가의 내용을 변경함에 있어서 도정법시행령 제27조 각호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신고절차를, 그 외 사항의 변경은 변경인가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신고사항'과 '인가사항'을 구분하고 있다. 아울러 도정법 제20조 제3항은 정관변경에 관하여도 도정법시행령 제32조 각호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신고절차를, 그 외의 사항의 변경은 변경인가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신고사항'과 '인가사항'을 구분하고 있다.

조합설립인가내용의 변경과 관련한 도정법시행령 제27조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조합의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조합장의 주소 및 성명, 토지 또는 건축물의 매매 등으로 인하여 조합원의 권리가 이전된 경우 조합원의 교체 또는 신규가입, 조합임원 또는 대의원의 변경(조합장은 법 제24조에 따라 총회의 의결을 거쳐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건설되는 건축물의 설계개요 변경, 정비사업비의 변경, 현금청산으로 인하여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이 변경되는 경우, 도정법 제4조에 따른 정비구역 또는 정비계획의 변경에 따라 변경되어야 하는 사항(다만, 정비구역 면적이 10% 이상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그밖에 시 · 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말한다. 정관의 변경과 관련한 도정법시행령 제32조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조합의 명칭 및 주소, 조합의 임원의 수 및 업무의 범위, 조합임원의 권리 · 의무 · 보수 · 선임방법 · 변경 및 해임에 관한 사항, 총회의 소집절차 · 시기 및 의결방법, 임원의 임기, 업무의 분담 및 대행 등에 관한 사항, 대의원회의 구성, 개회와 기능, 의결권의 행사방법 및 그밖에 회의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관한 사항, 공고 · 공람 및 통지의 방법, 임대주택의 건설 및 처분에 관한 사항,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할 사항의 범위, 조합직원의 채용 및 임원 중 상근임원의 지정에 관한 사항과 보수에 관한 사항, 그밖에 시 · 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말한다.

그리고 서울특별시의 경우 도정법시행령 제27조의 경미한 사항에 관한 '그밖에 시 · 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12조는 "사업시행인가의 변경에 따라 변경되어야 하는 사항,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인가에 따라 변경되어야 하는 사항, 매도청구대상자가 추가로 조합에 가입함에 따라 변경되어야 하는 사항" 등을 주된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고, 도정법시행령 제32조의 경미한 사항에 관한 '그밖에 시 · 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14조는 "제13조 제1호의 사항('이사회의 설치 및 소집, 사무, 의결방법 등 이사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으로서 예산의 집행 또는 조합원의 부담이 되는 사항 이외의 사항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시장 등의 인가는 그 대상이 되는 기본행위를 보충하여 법률상 효력을 완성시키는 행위로서 이러한 인가를 받지 못한 경우 조합설립인가내용의 변경이나 정관의 변경은 그 효력이 없고(대법원 2007. 7. 24.자 2006마635결정 등 참조),

시장 등이 조합설립인가내용의 변경이나 정관의 변경을 인가하더라도 그 효력은 인가 시에 발생하는 것이지 총회의 의결이 있었던 때로 소급하여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3도11532 판결 등 참조). 아울러 법리상 총회의 의결을 거쳤다고 하더라도 그 총회 결의에 부존재 또는 무효의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것에 해당한다(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도10826 판결 등 참조).

한편, 신고사항에 관한 단서의 규정형식과 관련하여 도정법 제16조 제1항, 제2항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또는 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조합원의 동의 없이 시장 · 군수에게 신고하고 변경할 수 있다"는 형식으로, 도정법 제20조 제3항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 법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변경하고 시장 ·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는 형식으로 규정방식을 달리 하여 적어도 전자의 경우에는 신고사항이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수리를 요하는 신고사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여 두었다. 여기서 말하는 신고가 '수리를 요하는 신고'라면 관련 법 · 규정 등의 모든 요건에 맞는 신고가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신고만으로 신고대상 행위가 곧바로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이에 대한 행정청의 수리처분이 있어야만 신고한 대로 그 효력이 발생한다(대법원 2011. 1. 20. 선고 2010두14954 전원합의체판결, 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두6766 판결 등 참조). 물론 행정청은 요건불비나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 등을 이유로 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신고가 그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두22631 판결 등 참조). 다만, 여기서 '수리'란 신고를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법령에 의하여 처리할 의사로 이를 수령하는 수동적 행위이므로 수리행위에 신고필증 교부 등 행위가 꼭 필요한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두6766 판결 등 참조).

이와 관련하여 하급심판결 중 도정법 제16조 제1항, 제2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신고'는 조합원에게 실질적인 부담을 지우는 사항들이 많을 뿐만 아니라 법문의 규정형식, 도정법 시행규칙의 규정 등에 비추어 행정청의 심사가 필요한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도정법 제20조 제3항의 신고는 관할관청에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 주된 것으로서 총회의 결의만으로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본 경우가 있다(서울고법 2011. 11. 10. 선고 2011누23865 판결 참조).

이와 같이 도정법과 도정법시행령이 변경인가사항과 신고사항을 구분하는 이유는 중요한 사항의 변경은 인가절차를,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신고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등 변경대상의 중요도에 따라 처분의 형식을 달리하고자 하는 데 있을 뿐이므로,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어서 신고절차를 거치면 족한 경우에도 법령이나 정관에서 조합 총회의 결의대상으로 규정한 때에는 신고에 앞서 그러한 조합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그리고 조합 총회결의의 효력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 결의 내용이 강행법규에 위반되는지 여부 등 실체적 요건과 법령 또는 정관의 해석상 해당 안건의 결의에 필요한 의결정족수를 갖추었는지 등 절차적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1두33051 판결 등 참조).

연재. 건축과 미술(5/6)

글. **전영백**_ Chun, Young-paik
•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예술학과 (미술사학과) 정교수

건축을 위한 미술의 제안 : 현대 작가(Contemporary Artist) 6人의 '건축적' 미술작업

5. 도리스 살세도(Doris Salcedo)

연세대학교 사회학과에서 학사, 홍익대학교 대학원 미술사학과에서 석사, 그리고 영국 리즈 대학교(Univ. of Leeds) 미술사학과 대학원에서 석사 및 박사를 취득했다. 2002년 이래 영국(런던) 학술지 'Journal of Visual Culture' 편집위원으로 활동했으며, 해외출판(Blackwell, Routledge 등)에 주력해 왔다. 『세잔의 사과』(문광부선정 우수학술도서)와 『22명의 예술가, 시대와 소통하다 : 1970년대 이후 한국 현대미술의 자화상』 등 10권의 저서와 17편의 논문을 출판했으며, 현재 홍익대학교 현대미술관 HoMA 관장, 동아시아 예술문화연구소 소장, 미술사학연구회 회장을 맡고 있다.

예술은 삶과 분리될 수 없다. 현실의 이상을 추구한 모더니즘에 비해, 그 부정적 측면과 억압된 부분에 주목하는 포스트모더니즘 미학은 삶의 리얼리티를 더욱 적극적으로 반영해 왔다. 오늘날의 미술에 정치적 작업이 많은 것도 이에 근거한다. 정치적 내용은 특정한 역사와 사회를 배경으로 하고, 일화적일 수밖에 없다. 구체적 내러티브, 지역적 스토리를 지닌 정치적 문제는 종종 다른 문화와의 연관성을 결여한다. 그래서 메시지의 영향력이 약하다. 아프리카의 내전이 멀게만 느껴지고, 아랍의 테러가 피부로 느껴지지 않는 것은 그 사건의 지역성 및 국지성 때문이다. 그러나 그러한 모든 분쟁과 살상은 실상 '폭력'이란 개념으로 포괄된다. 폭력의 가해자와 그 피해자는 이런 저런 정치적 문제들의 보편적 입장이라 할 수 있다.

어떠한 특정 이야기에서 보편적, 일반적 내용을 끌어올리는 것을 미술 용어로 '추상(abstraction)'이라 말할 수 있다. 추상화는 구체적 내용에서 시작했을 지라도 그 특정성을 넘어 전형과 근본 구조를 표현하는 그림이다. 때문에 이를 보는 사람에 따라 다르게 수용, 이해될 수 있다. 다시 삶의 현장으로 돌아온다면, 한 국가의 분쟁을 인간의 폭력이란 차원에서 다루는 것을 추상에 빗댈 수 있다. 국지적 전쟁을 범국가적(transnational) 수준으로 올려 인식하는 것이기에 '폭력의 추상화'라 보는 것이다. 미술에서 추상의 개념이 형태와 색채를 다루는 형식주의를 벗어난 지 오래다. 추상미술은 일반적으로 구체적 대상을 다루지 않는 '비대상 미술(non-objective art)'과 동일시 돼 왔다. 이것이 모더니즘 미학이라면, 포스트모던의 반세기를 맞고 있는 오늘, 추상의 개념은 완전히 달라있다. 이제 추상은 작품의 내용과 컨텐츠에 대한 것이 대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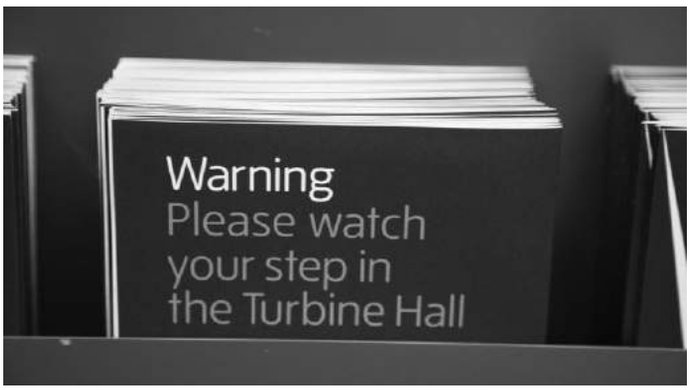
폭력을 이렇듯 추상적으로 표현하는 작가가 있다면, 도리스 살세도(Doris Salcedo: 1958~)(도 1)를 들 수 있다. 그는 콜롬비아 출생으로 그 정치사에 쟁점을 다룬 설치 작품으로 국제적인 명성을 쌓은 작가이다. 살세도의 설치와 조각은 근본적로 사람들의 체험을 내용으로 하는데, 주로 전쟁의 경험, 탈위치, 그리고 감금 등이다. 전쟁이 삶을 결정짓는 상황인 콜롬비아에서는 전쟁과 그에 따른 정치적 사건은 일상의 부분이다. 작가는 말한다. "전쟁은 리얼리티를 완전히 삼켜버린다. 어떤 경우, 전쟁에서 사람들은 죽고 다치지만, 대부분 전쟁은 당신의 삶을 왜곡시켜버린다." 그는 예술이 정치적 관여하며 밀접한 관계를 갖는 것을 자연스레 경험해 온 셈이다.

도1) 도리스 살세도(Doris Salcedo, 1958 ~)

살세도의 작업은 일종의 '정신적 고고학(mental archaeology)'이라 불리기도 한다. 일상 생활에서 축적된 의미로 가득 찬 재료들을 활용하기 때문이다. 일상의 오브제를 활용한 조각들은 시적이다. 의자, 옷장, 침대 등의 오브제 작업들은 때론 비극적 감정을, 때로는 심오한 감정적 불편함을 야기한다. 지난 수년 동안 살세도는 건축 설치를 중심으로 갤러리 공간과 야외에서 정치와 역사의 의미로 채워진 의식을 환기시키는 드라마틱한 작업을 제시해 왔다. 그의 작업이 의미 있는 것은 실제적 역사의 현장에서 체험한 극한 폭력이 리얼리즘의 무게를 갖고 보편적으로 다뤄지기 때문이다.

미술관 바닥에 만든 '드로잉': "Please Watch Your Step!"

2007년, 10월 런던 테이트모던(Tate Modern)으로 들어가던 관람자는 순간, 충격을 금치 못했다. 미술관 바닥에 엄청난 균열이 생겨 콘크리트 바닥의 속이 다 들여다 보였기 때문이다. 지진이 난 듯, 건물바닥에 커다란 금이 가 있던 것이다. 이것이 작업이라 여긴 사람은 거의 하나도 없었다. 이는 안전에 대한 위협이고 실제로 그 위험성을 알리기 위한 경고 안내문이 비치돼 있을 정도였다(도 2).



도2) ≪도리스 살세도: 십볼렛 *Doris Salcedo: Shibboleth*≫ 전시 안내문

살세도는 런던의 테이트 모던 갤러리의 터바인(turbine) 홀에서 전시하도록 의뢰받았다. 세계적 주목을 받는 이 터바인 전시 시리즈에서 여덟 번 째 아티스트였다. 작가는 이 거대한 홀의 콘크리트 바닥에 167미터 길이에 이르는 긴 균열을 포함한 몇 가닥의 균열을 냈고, 〈십볼렛 *Shibboleth*〉(도 3)이라 이름 붙였다. '십볼렛'이란 특정 사회 집단이나 계급을 구별 지을 때나, 사회적 혹은 인종적으로 특정 집단을 배척하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다.[1] 살세도의 〈십볼렛〉은 2007년 10월부터 2008년 4월까지 테이트에서 전시되었다.

1) 이렇게 한 집단이 다른 집단과 구별하기 위해 행하는 관습을 지칭하는 '십볼렛'이란 말의 기원은 성경의 사사기 12장이다. 그 내용에 따르면, '십볼렛'은 요르단 강 양편에서 각각 다르게 발음하였는데, 지도자 입다(Jephthah)는 이 발음을 이용해 상대방이 아군인지 적군인지 구별했다고 한다. 만약 그 발음이 잘못 되면 처형을 했는데, 사사기에는 당시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만 2천명이라 명기돼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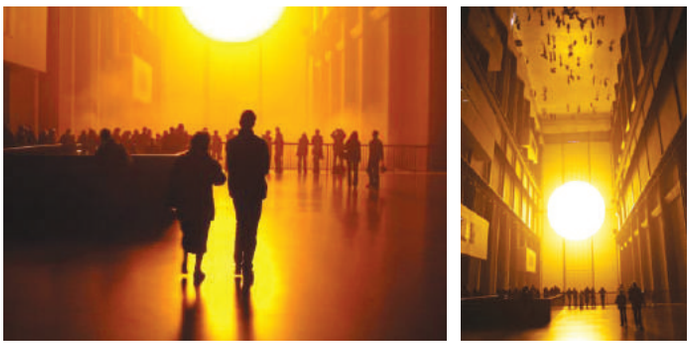
도3) 도리스 살세도, 〈십볼렛 *Shibboleth*〉, 2007, 콘크리트와 와이어 펜스(concrete and wire fence), 약 167m, 테이트 모던, 런던(Tate Modern, London)

도3) 〈십볼렛 *Shibboleth*〉의 세부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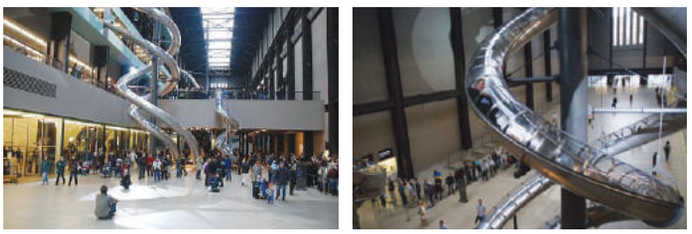
살세도는 이 작품에 대해 "경계를 표상한 작품이고, 이민자들의 경험을 나타낸 작품이며, 차별에 대한 경험을 나타낸 작품이기도 하며, 인종간의 증오에 관한 경험을 나타낸 작품이기도 하다. 그것은 유럽의 심장 안에 들어온 제 3세계 사람의 경험이다." 라고 말했다.

살세도의 〈십볼렛〉은 수많은 관객을 이끄는 모더니즘 미술관에 전시되는 장소특정적 작품들을 어떻게 봐야 하는가에 대한 흥미로운 질문을 떠올리게 했다. 이 작품은 오브제를 축조하고 쌓기 보다는 건물의 바닥 자체를 주목하면서, 설치미술에 대한 우리의 관습적 예상을 완전히 벗어났다. 살세도는 미술관 바닥에 파격적 균열을 만들어 관람자의 시선을 파손된 바닥으로 집중시키며 불안정한 토대를 은유적으로 나타냈다.

테이트 터바인 홀 위원회는 이제까지 따스한 태양빛을 재연시켰던 올라퍼 엘리아손(Olafur Eliasson)의 감동적인 〈날씨 프로젝트 *Wheather Project*〉(2003)(도 4), 아니쉬 카푸어(Anish Kapoor)의 강렬한 설치작 〈마르시아스 *Marsyas*〉(2002), 그리고 관람객의 참여를 유도한 카르슈텐 휠러(Carsten Höller)의 대규모 미끄럼틀 구조물(2006~2007)(도 5) 등을 전시해 왔다. 이 대규모 설치 시리즈는 현대미술에 장엄한 시각적 볼거리만으로 관람객들을 끌어들였다는 비난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미술관에서 이러한 대규모 설치미술을 통해 수많은 관객들에게 현대미술을 쉽게 접하게 하고 그 이해를 높여 온 역할을 인정해야 한다.



도4) 올라퍼 엘리아손(Olafur Eliasson), 〈날씨 프로젝트 *The weather project*〉, 2003, 26.7 m x 22.3 m x 155.4 m, 테이트모던, 런던 전시전경(Tate Modern, London)



도5) 카르슈텐 휠러(Carsten Höller), 〈실험 장소 *Test Site*〉, 2006~2007, 테이트모던, 런던 전시전경(Tate modern, London)

살세도의 〈십볼렛〉은 이제까지의 일반적인 설치미술보다 더 당혹스럽고 도전적인 성격을 보여줬다고 이야기된다. 그가 만들어낸 바닥의 균열은 실제 건축물인 터바인 홀의 안전성 및 완전함에 대한 위협과 공격을 암시하기도 한다. 이는 오늘날 가장 성공적이라 여겨지는 미술관에 대한 위협, 더 나아가 확고한 토대 위의 구축된 사회 체제에 대한 공격을 상징했다고 확대 해석할 수 있다. 〈십볼렛〉은 그 제작 과정을 살펴볼 때, 발생한 균열이 건물의 주요한 공사를 동반했음을 알 수 있다. 홀 전체에 점차 넓고 깊게 퍼지는 균열의 각 부분은 바닥을 도려내고 시멘트 덩어리로 다시 맞췄으며, 거친 절벽과 유사한 균열의 내벽은 그물망으로 덮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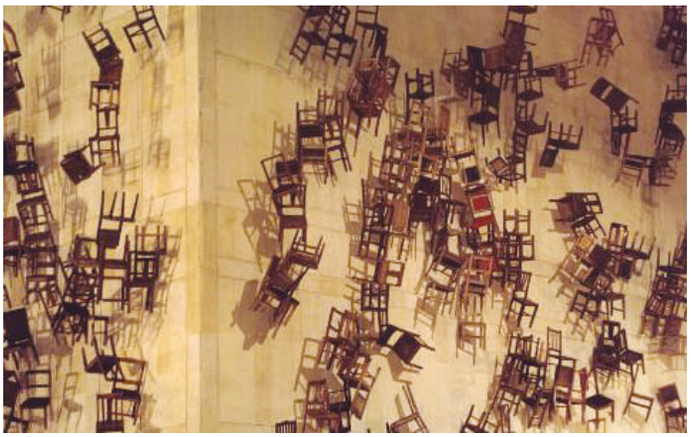
〈십볼렛〉은 테이트 터바인 홀 자체의 구조 및 정체성과 직결되지만, 이 미술관이 위치한 런던이란 도시, 그리고 영국을 넘어서는 확장된 의미를 제시한다. 특히, 작품 제목을 통해 모더니티와 진보라는 서구의 관념을 뒷받침하는 인종차별과 식민지 착취를 내포하고 있다. 물론 관람객이 작가의 의도를 그대로 수용할 필요는 없지만, 작가의 주제 의도를 고려함으로써 작품의 심오한 의미와 창의적이고 상징적인 연관성을 인식할 수 있다. 〈십볼렛〉의 '균열된 토대'는 서구 식민문화, 그리고 소비자본주의의 비인격적 파급효과로 인한 오늘 우리 시대의 흔들리는 경제적, 정치적 토대를 떠올리게 한다. 또한 근본적으로 '십볼렛'이라는 용어에 충실할 때, 특정 국가에 국한되지 않고 사회적, 인종적 배척과 같은 보편적 문제들을 건드리기도 한다. 더불어, 〈십볼렛〉이 전시된 2007~2008년 사이, 세계 금융의 급속한 악화로 세계의 경제 위기가 도래했다는 사실은 작품의 또 다른 실제적 연관을 갖는다.

일상의 망각 속 '기억의 행위(act of memory)'

일상의 가구는 살세도의 시각언어에 중요하다. 그가 작가로 데뷔한 이후, 살세도는 누구나 매일 사용하여 세월의 흔적이 축적된 일상 오브제를 사용하여 조각과 설치를 해왔다. 그의 초기 작업은 옷장, 테이블, 의자 등 단순한 종목으로 이뤄져 있다. 의류, 섬유, 동물 가죽 등도 활용했다. 이러한 오브제를 새롭게 구성하고 익숙하지 않은 형태를 부여하면서, 작가는 트라우마를 남긴 체험을 은유하고, 기능이 배제된 상태를 시각화하였다. 예컨대, 문의 프레임 안에 의자를 채워 넣고 굳히거나, 두 개의 테이블을 하나로 붙여서 '쓸모없는' 오브제를 만들기도 한다. 이러한 작업은 우리에게 파괴되거나 상실된 삶을 상기시킨다. 이름 없는 사람들이 쓰던 옷이나 가구 등의 '특정한' 일상용품은 누구에게나 연결될 수 있는 '일반적' 오브제가 된다.

이렇듯 일상의 오브제를 활용한 그의 드라마틱한 작업 중 하나가 〈11월 6일과 7일 *Noviembre 6 y 7*〉(2002)(도 6)이다. 이는 콜롬비아 보고타(Bogotá)의 정의의 궁(Palace of Justice)에서 가진 건축 설치이자, 장소특정적 퍼포먼스이다. 이 작업은 1985년 11월 6일과 7일, 보고타의 대법원(Supreme Court)이 폭력적으로 포위됐던 사건 17주기를 맞은 것을 기념하여 수행한 작업이었다. 그는 이 작업으로 '망각의 공간'을 환기시켰다. 작품은 거의 300개의 나무 의자를 궁의 옥상에서 전면으로 하나씩 내려 급기야는 건물 면 전체를 덮는 설치 퍼포먼스였다. 이는 정의의 궁이 포위된 시간과 동일하게 지속되었다. 일종의 "기억의 행위(act of memory)"를 실현시킨 작업이라 할 수 있다. 궁이 점거되어 첫 희생자가 사망한 시간인 오전 11시 35분에 첫 번째 의자가 내려졌고, 각기 다른 시차와 속도로 280개의 의자가 53시간동안 따라 연속적으로 내려졌다.

도6) 도리스 살세도, 〈11월 6일과 7일 *Noviembre 6 y 7*〉, 2002, 280개의 의자, 정의의 궁전, 보고타, 콜롬비아(Palace of Justice, Bogotá, Colombi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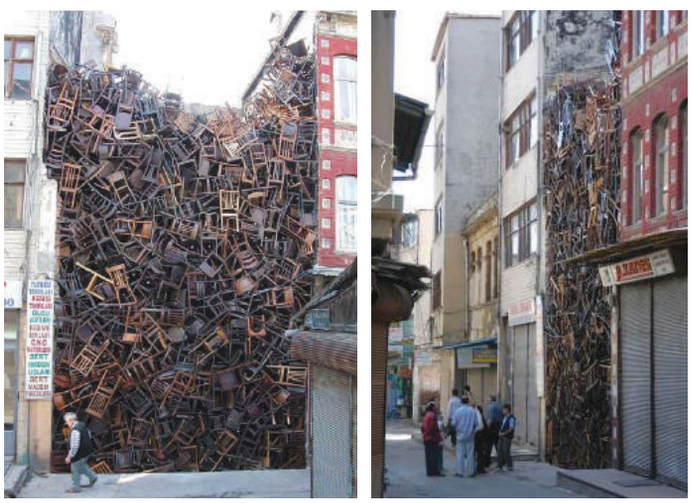


도6) 〈11월 6일과 7일 *Noviembre 6 y 7*〉의 세부 사진

이렇듯 살세도는 특정한 역사적 사건에서 영감을 받아 작업을 해왔다. 작가가 구체적 역사 사건에 임하는 태도는 무척 성실하다. 그는 폭력적 사건의 희생자들을 인터뷰하고 그 상황과 배경을 거의 완전하게 조사한다고 한다. 폭력의 감정적이고 개념적 의미를 포착하는 시도에서 그는 특정한 폭력 사건에서 희생된 사람들과, 그들의 가족, 공동체의 확장된 인터뷰를 마련한다. 그러나 그의 작업이 그러한 특정 사건이나 개별적 희생자들을 다루는 것은 아니다. 그보다 이 사건들과 연관된 신체적이고 감정적인 파괴와 그 트라우마를 불러일으킨다.

그가 다루는 다수의 작업들이 세계의 여러 지역들과 역사의 다른 시간에 개입되나, 그 사건이 폭력을 둘러싼 갈등과 투쟁이란 사실은 마찬가지이다. 개별적, 특정한 사건에서 발단, 폭력의 보편적, 우주적 현상을 탐색한다고 말할 수 있다. 강력하고 힘이 실린 어조로, 그러나 섬세하고 시적인 감성을 부여하면서 말이다.

살세도의 8회 이스탄불 국제 비엔날레 설치 작품(2003)(도 7) 또한 보고타의 정의의 궁에서 행한 설치 퍼포먼스와 같이 의자를 활용한 작업이다. 그러나 그 충격 효과에 있어서 어쩌면 더 크고 지속적이었다고 하겠다. 이는 이스탄불 시내 중심의 두 건물 사이의 빈 공간에 1,550개 나무 의자를 채워 넣은 설치작업이다. 많은 사람들로 붐비는 상업적 거리를 지나치던 사람들은 이 엄청난 작업을 보고 충격을 받지 않을 수 없다. 평범한 의자들은 다양한 각도에서 쌓여져 있는데, 건물의 행렬에 맞춰 완전한 평면을 이루며 덩어리로 뭉쳐 있다. 이 설치가 채운 공간은 의자 오브제로 가득 채워져 있다. 의자들이 얽혀 만든 표면의 평면성이 디테일을 강조하며 이목을 집중시킨다. 살세도가 본래 회화를 전공했던 화가였음을 상기시키는 특징이다. 내용적으로 이 작업은 터키 역사에 기반한 전쟁의 상황을, 그 일상적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도7) 도리스 살세도, 제 8회 이스탄불 국제 비엔날레(the Eighth International Istanbul Biennial) 설치 작품, 2003, 두 빌딩 사이 공간에 1550개의 의자가 쌓여져 있다.

살세도가 이 설치작업으로 의도한 것은 범죄, 폭력, 학대 등의 희생자들에 대한 기억을 환기시키고자 한 것이다. 특정한 사건을 나타내는 내용을 직접적으로 드러내기보다 세계의 전쟁과 불화를 보편적으로 시각화한다. 즉 '단일한(singular)' 작업에서 '공동체(communal)' 작업으로 전이한 것이다. 살세도의 비엔날레 설치작품은 이렇듯 특정한 사건에 대한 어떠한 지시 없이 익명의 희생자들을 기념한다. 엄청난 스케일을 채운 지극히 일상적인 의자 오브제는 어떤 구체적 사건이라기보다 알려지지 않은 개인의 이야기를 불러일으킨다. 의자 더미는 집단 무덤을 가득 채운 아무렇게나 버려진 익명의 시체같이 섬뜩하다. 이런 감정을 프로이트의 언캐니(uncanny)의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이는 친숙하지만 낯선 감정을 느끼는 심리를 뜻한다.[2)]

이 작업에 대해 살세도는 말한다. "이는 하나의 역사적 사건에 연관된다. 그러나 그 사건은 잊혀졌다. 그리고 완전히 망각되었다. 도시 사람들은 직접적 연관을 떠올리지 않았다. 그러나 그것은 *기억이 억압된* 사회에서 많은 액면을 살아 움직이게 한다.(필자의 강조)" 이 말은 개인에게 치매(癡呆)가 가장 두려운 것처럼, 역사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바로 이 '망각'이란 사실을 일깨워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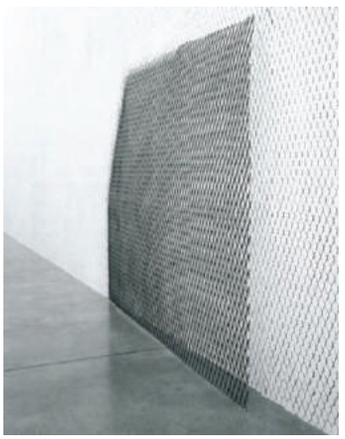
침묵과 감금의 건축설치

〈아무것도 *Neither*〉(2004)(도 8)는 런던 동부의 헉스톤 스퀘어(Hoxton Square)에 있는 화이트 큐브(White Cube) 갤러리에서 선보인 건축설치이다. 건물의 안쪽 벽을 완전히 새롭게 재작업하였다. 철조망이 석고보드에 압착되어 갤러리 벽에 설치된 작업이다. 갤러리 안쪽으로 생긴 새 벽들은 철조망으로 둘러 있다. 작업의 물리적 효과는 무언가 환영하는 것과 억압하며 압박하는 것 사이의 애매한 상태이다. 다시 말해, 건축적 방어와 공간적 구획이라는 두 개념 사이 공간에 작용하는 무언가이다.

이는 기존의 건축에 반하는 설치로서, 기본적으로 갤러리 벽을 대치하고 그 공간을 뒤집는 구조이다. 〈십볼렛〉에서 심화된 '반(反)건축적' 제스처와 연관된다. 벽은 울타리가 필요 없고, 철조망은 안팎이 내다 보여야 하는데, 살세도의 설치구조물은 이와는 반대의 구조다. 한 마디로, '애매함(ambiguity)'을 제시한다. 최장 15

2) Sigmund Freud, "The Uncanny", in Studies in Parapsychology, ed. Philip Rieff(New York, 1963), pp. 21~30; 할 포스터, 전영백과 현대미술연구팀 옮김, 『욕망, 죽음 그리고 아름다움』(아트북스, 2005), p. 39에서 재인용.

도8) 도리스 살세도, 〈아무것도 *Neither*〉, 2004, 494x740x1500cm, 화이트 큐브, 런던(White Cube, London)



도8) 〈아무것도 *Neither*〉의 세부 사진

미터의 벽을 덮는 12개의 철조망판 중 2개는 석고벽에서 약간 떨어져 있어, 탈출의 가능성을 암시한다. 그런데 아이러니는 철조망을 뚫어봤자 흰 벽이 버티고 있다는 점이다. 철조망이란 재료는 저렴하고도 보안을 위해 가장 많이 쓰는 재료이다. 철조망을 흰 갤러리 벽에 설치하므로, 작가는 결과적으로 공간의 안과 밖을 뒤집는 셈이다. 공간의 경계에 선 관람자는 이 구조가 안보의 보장인가 아니면 강요된 감금인가를 구분할 수 없게 된다. 완벽한 딜레마가 아닐 수 없다.

관람자가 갖는 감금의 느낌은 막힌 철조망의 불투명성으로 고조된다. 그리고 우리는 작품을 '본다'는 것보다 그 안에서 걸으며 무덤과 같이 고요한 침묵의 벽 앞에서 관람자가 시간의 정지, 부동의 지속을 경험한다. 살세도의 〈아무것도〉가 보여주는 침묵과 형태의 결여는 유태인 수용소를 포함한 여러 감금의 전형이라 할 수 있다. 벽은 시각적으로 중지된 것이고 일종의 '시간의 중지'를 보여준다. 엄밀히 말해, 작업은 '시간의 공간적 중지'라 할 수 있다. 어떤 오브제도 없이, 작업의 모티프는 갤러리 공간 그 자체이다. 작가는 공허, 결여, 그리고 투명성의 이미지를 제시하기 위해 공간을 제거하고 재구성했다.

살세도의 〈심연 *Abyss*〉(2005)(도 9) 또한 침묵과 감금을 나타낸다는 점에서 〈아무것도〉와 통하는 작업이다. 이것은 이탈리아 튜린(Turin)의 트리엔날레 참여작으로, 카스텔로 디 리볼리(Castello di Rivoli)에 설치되었다. 벽돌로 일일이 쌓아 만든 벽은 120미터 정도의 높이에 달한다. 작품은 이 역사적인 성의 가장 큰 방에 설치한 것으로, 기존 18세기 돔 천장 새로운 벽돌들과 합하여, 궁륭 벽돌 천장을 바닥까지 확장한 것이다. 그 결과 아래쪽에서 볼 때, 흰 벽의 밑단과 프랑스식 창문이 제한적으로 보이도록 돼 있다.

도9) 도리스 살세도, 〈심연 *Abyss*〉, 2005, 벽돌, 시멘트, 철과 에폭시 수지(Brick, cement, steel, and epoxy resin), 441 x 1386 x 1624cm, 현대미술 트리엔날레, 카스텔로 디 리볼리, 튜린(T1 Triennial of Contemporary Art, Castello di Rivoli, Turin)

도9) 〈심연 *Abyss*〉의 입구 모습

도9) 〈심연 *Abyss*〉의 세부 사진

살세도는 이 설치작업을 위해 공간의 천장 벽돌을 확장해서 거의 바닥에 닿도록 했는데, 공간의 창문과 입구의 대부분을 덮었던 것이다. 결과적으로 모더니스트 'white cube' 갤러리 공간을 어둡고, 엄숙하고, 어두운 공간으로 변화시켰는데, 당시 이름에 따를 때 카스텔로를 중세 요새의 의미로 되돌려 놓았다.

2006년의 〈심연〉(도 10)은 위 설치작의 사진작업이다. 이는 살세도가 자신의 작업에 기반하여 처음으로 제작한 사진이다. 사진은 거의 밀실공포를 자아내는 공간의 낮은 벽돌 구조 아래로 아

슬아슬한 각도에서 보이는 햇볕의 긴 줄을 포착한다. 사진은 관람자에게 어두움이 오기 전의 감금으로부터의 마지막 탈출의 기회를 제공하는 듯 절박함을 담고 있다.

도10) 도리스 살세도(Doris Salcedo), 〈심연 *Abyss*〉, 2006, 잉크젯 프린트(pigment ink jet print), 64 x 86 cm

살세도의 설치는 밝고 환영하는 듯한 공간을 불편한 감금의 장소로 바꿨다. 관람자는 낮은 입구를 통해, 천장의 돔으로부터 내려오는 벽돌과 시멘트로 둘러있는 방으로 들어오게 된다. 즉각적으로 억압과 위협을 느끼며 몸을 본능적으로 숙이고 움츠리게 된다. '커튼 벽'이 지면을 닿지 않았기에, 공간은 마치 당장이라도 폐쇄될 듯 위험스런 느낌을 고조시킨다.

작가는 공간이 피동적이지 않다는 것을 주장하며, 이 작업이야말로 "의식의 구성에 공간이 적극적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 의도하였다"고 말했다. 여기에는 구체적인 콜롬비아의 역사가 개입되는데, 리볼리 성 안의 이 18세기 방은 엠마뉴엘 3세(Carlo Emanuele III)가 그의 부친 아메데오(Vittorio Amedeo)를 가뒀던 곳이다.

이 공간은 감금의 '적극적' 요인이었다 할 수 있다. 그 공간은 아버지를 누르기 위해 아들이 발휘했던 권력의 뒤틀린 관계로 활용된 정치적 도구이기도 했다. 이 공간은 본래 엄청나게 큰 벽돌 궁륭(vault)의 구조였는데, 살세도가 이 궁륭의 벽을 아래로 확장하면서 그 높이를 낮춘 것이다. 그는 둘레를 세워서 사면들을 낮추어, 더 감옥다운 감옥을 구축했다. 벽을 완전히 낮춤으로서, 밖으로 열려있는 창문은 빛과 자유의 세계, 닿을 수 없는 세계로의 개방을 상징한다. 그러한 부분 시각이 자유에 대한 열망을 달군다. 그리고 벽이 밑으로 내려 온 구조이므로 그 중력 작용으로 더 닫히는 느낌을 준다. 살세도는 이 작업을 통해 비어 있으면서 동시에 둘러싸며 닫힌 공간을 만들어 낸 것이다. 감금의 주제는 그의 작업을 풍부하고 복잡하게 만든다.

이렇듯 아들이 아버지를 감금한 공간은 그 특정한 역사적 이야기로 고유성을 갖는다. 그러나 이 작업은 오늘날의 우리에게 폭력의 잔인함을 체험하게 하며, 공간의 감금으로 인한 고통을 실감나게 한다. 말하자면, 이 작업은 폭력의 특정한 역사적 사건에 국한해 여길 필요가 없는 것이다. 작가는 구체적 사건에서 보편적 메시지를 끌어내고 있다. 일종의 추상적 의도라 볼 수 있다. 이는 그의 이전 작업들인 〈아무것도〉나 이스탄불 비엔날레 설치 작업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이 건축설치들은 글로벌하게 일어나는 억압, 부정의, 그리고 비인간성의 현실을 체감하게 한다. 이스탄불 작업이 카오스와 폭력의 은유적 이미지를 만들어 낸다면, 카스텔로 디 리볼리에서는 공간적 위험으로 인한 심리적 위협감을 실감나게 구현시켰다. 런던의 〈아무것도〉에서 암시적이었던 위험은 튜린의 〈심연〉에서 직접적으로 드러난 것이다. 억압과 제재는 느낌은 강렬하게 각인되었다.

콜롬비아 내전의 경험에 기반하여 제작된 살세도의 작업은 정치적이다. 작업의 모든 오브제는 직, 간접적으로 작가가 실제로 경험하는 매일의 일상생활에 만연한 폭력과 죽음에 관련된다. 콜롬비아는 50여년 동안 테러리스트에 의해 계속되는 납치와 살상, 마약 거래에 시달려 오고 있다. 결과적으로 정치적 분열과 부정이 사회적으로 만연한 상황에서, 살세도의 작업은 그러한 자신의 사회 폭력을 직접적 인용하거나 미적 은유를 활용한다. 요컨대, 대부분의 작업에서 폭력의 트라우마를 건축 설치를 통해 주체의 기억과 체험을 환기시키며 강렬하게 드러낸다.

망각과 기억에 대한 질문: '기억조각(Memory Sculpture)'

살세도의 건축적 설치 이전의 작업은 주로 조각이었다. 역시 망각과 기억에 대한 질문을 다뤘다고 할 수 있다. 1997년부터 작업한 〈언랜드: 고아의 튜닉 *Unland: The Orphan's Tunic*〉(1997)(도11)과 같은 작품이나 1990년대 초부터 작업한 〈미망인의 집 *La Casa Viuda*〉 시리즈(1992~1995)에서, 그는 의자와 테이블과 같은 일상생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가구들을 활용한다. 그리고 그 가구들을 콜롬비아 내전으로 인한 희생자들의 기억들로 변형시킨다.

도11) 도리스 살세도, 〈언랜드: 고아의 튜닉 *Unland: The Orphan's Tunic*〉, 1997, 나무, 옷, 머리카락과 풀(wood, cloth, hair and glue), 31 1/2 x 96 1/2 x 38 1/2 inches

문화이론가 안드레아스 후이센(Andreas Huyssen)은 살세도의 작품 〈언랜드: 고아의 튜닉〉에 대해 "기억 조각(Memory Sculpture)"이라 표현했다.[3] 후이센은 그 작품에 관해 자세하게 기술하였는데, 겉보기에는 흔해빠진 테이블로 보이지만, 좀더 주의 깊게 자세히 바라보면, "그것이 가지고 있는 뜻밖의, 잊혀지지 않는 시각적인, 물질적인 존재가 관람자의 상상력을 사로잡는다."고 했다. 겉보기에 우리가 매일 볼 수 있는 그 가구는 쪼개진 두 테이블을 이어붙이고, 흰색 천 조각으로 덮어놓은 것처럼 보인다. 제목에서 짐작할 수 있듯 원래는 고아의 튜닉이었을 천 조각 말이다. 그러나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수백 개의 가느다란 사람의 머리카락으로 실을 만들어 테이블과 그 튜닉을 이어 붙여놓은 것을 알 수 있다. 후이센은 테이블의 구조를 사람의 신체와 동일시하여 설명했다. "만약 그 튜닉이 피부와 같다고 한다면 그 테이블은 신체로서의 은유적 존재를 얻는다. 이제는 고아 개인의 신체가 아닌 고아가 된 공동체의 신체를 말이다." 살세도의 〈언랜드: 고아의 튜닉〉은 국제적인 미술 관람객들에게 그녀의 조국인 콜롬비아의 과거를 재현하는 '기억 조각'이다.

살세도는 작품을 만들 때 그 제작과정에서의 그만의 고유한 접근에 대해 말한 바 있다: "미술작품이 재료들을 한꺼번에 가져오는 방식은 놀라울 만큼 강력하다. 조각은 그것을 구체화한 것이다. 나는 이미 중요성이 부과된 재료들, 그리고 일상 생활의 습관에서 오는 의미를 가진 재료들을 가지고 작업한다. […] 그 다음 나는 그것이 어떤 특별한 것이 되는, 탈바꿈(metamorphosis)이 이루어지는 그 지점을 작업한다." 여기서 이 탈바꿈에 대해 살세도는 과거의 경험에 대한 예술적 '복원(repair)'을 뜻한다고 술회한 바 있다. 그리고 이것이 다시 관람자의 체험으로 전이됨을 강조한다.[4]

살세도 작업의 미적 배경

살세도는 1980년 호르헤 타데오 로자노(Universidad de Bogotá Jorge Tadeo Lozano) 대학에서 순수미술(회화)을 전공하였다. 1980년대 초, 그는 콜롬비아를 떠나 뉴욕으로 왔다. 그리고 뉴욕대학교(NYU)에서 석사를 마친 후, 다시 보고타(Bogotá)로 돌아가 콜롬비아 국립대학(Universidad Nacional de Colombia)에서 학생들을 가르쳤다. 콜롬비아에서의 삶의 경험들은 그녀의 작업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살세도는 서구의 사상을 숙지하며, 부분적으로 레비나스(Emmanuel Levinas) 등 철학자 및 첼란(Paul Celan)과 같은 문학가의 사상에 의존하며 인문학적 기반을 지닌다. 그리고 미술작가 중에서 영향 받은 작가로 요셉 보이스(Joseph Beuys)를 들 수 있다. 살세도는 보이스를 자신의 미적 출발로 삼아, 그의 작업 연구에 시간을 많이 할애하였다. 보이스 작업은 그로 하여금 '사회적 조각(social sculpture)'[5]이란 개념에 대해 눈을 뜨게 했다. 이는 간단히 말해, 미술을 통해 사회에 형태를 부여하려는 것이다. 그는 조각

3) Andreas Huyssen, "7. Doris Salcedo's Memory Sculpture: Unland: The Orphan's Tunic", in Present Pasts: Urban Palimpsests and the Politics of Memory(California: Stanford University Press), p. 110.

4) 작가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각 관람자마다 조용한 사색은 작품에서 보여진 삶을 다시 나타나게끔 한다. 마치 희생자의 경험이 작품 밖으로 빠져 나오는듯한 변화가 일어난다. […] 조각은 그 작품을 응시하고 있는 각 사람의 고요함 속에서 울려 퍼지는 현실의 경험을 나타낸다."

5) '사회적 조각'에 대한 보이스 자신의 설명을 참고하자면 다음과 같다: "나의 오브젝트들은 조각 혹은 전반적인 예술에 대한 개념을 변형시키는 자극제로 보여질 것이다. 오브젝트들은 조각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조각하기에 관한 개념이 모든 사람들에 의해 사용된 보이지 않는 재료들로 어떻게 확장될 수 있는지에 대한 생각들을 불러일으켜야 한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생각을 말이나 사회적인 조각으로 만들 수 있는지 즉,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를 주조하고 구체화시킬 수 있는지에 따라 조각은 진화적인 프로세스로서 존재할 수 있고, 모든 사람들이 아티스트가 될 수 있다." – Joseph Beuys, "Introduction" in Joseph Beuys in America: energy plan for the Western man, ed. Carin Kouni(New York : Four Walls Eight Windows, 1993), p. 19.

이 단순히 재료를 다루는 것이 아닌 사회적 의미를 전달할 수 있다는 전제를 가졌다. 보이스는 살세도가 정치적 자각을 작업으로 나타내는 데 중요한 영향을 주었는데, 살세도는 이를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나는 나의 정치적 깨달음을 조각과 통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찾았다. 재료가 어떻게 특정한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가를 깨달았다고 할 수 있다." 그에게 보이스의 영향은 근본적으로 조각의 공간 자체에 관한 것이었다. 이 공간에 대한 흥미는 소통의 지점으로서의 의미였다.

작가는 뉴욕에서 유학하며 체류하는 동안, 외국인 및 이방인의 경험을 예민하게 느끼며 이를 작업의 주제로 연결시켰다고 할 수 있다. 그에게 이방인의 삶은 '탈구(displacement)'를 의미했다. 그는 자신을 포함한 예술가들 자신이 바로 "탈구된 사람들"로 보았으며 이를 작업의 중요 주제로 삼고 있다.

나가며

서두에서 언급했지만, 살세도의 작업은 오늘날 '추상'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한다. 20세기 중반까지만 해도 대상을 사실적으로 재현하지 않는 것을 추상이라 했고, 이는 주로 회화에서 논의되었다. 그런데 요즈음엔 사실적 재현을 하면서도 추상화란 이름을 붙일 수가 있다. 그림 뿐 아니라 미술 전체로 보자면, 1960년대 후반 미니멀리즘이 본격화되면서 추상의 의미는 본격 도전받았다. 이후의 추상 작가들은 눈으로 보는 문제 뿐 아니라, 오감(五感)을 모두 활용하며 공감각적으로 느끼는 추상을 표현하고자 했다.

살세도의 건축적 공간설치에서 필자는 오늘날의 추상에 대한 새로운 영감을 받을 수 있다고 본다. '탈맥락화(decontextualisation)'란 말은 어렵게 들리지만, 시의성 있는 개념이기에 이해할 필요가 있다. 직접적으로 연관되고 기반이 되는 맥락에서 분리시킨다는 것인데, 필자는 이것이 최근 추상화의 핵심이라 생각한다. 살세도의 작업에서 설명하자면, 특정 사건의 역사적, 사회적 맥락에서 분리된 모티브에 작가는 상징과 보편적 의미를 부여하고 치유와 기억을 위한 미적 역할로 작용케 한다. 예컨대, 그의 〈십볼렛〉이 구현한 충격적 균열은 예측불가한 상황의 위험과 주체의 실제적 불안정성을 은유하므로, 보는 입장에 따라 상황에 맞게 해석할 수 있다. 〈아무것도〉와 〈심연〉이 나타내는 주제도 공허, 억압, 밀실공포 등으로 그 추상적 수위가 꽤 높다.

그리고 살세도가 콜롬비아 출신의 작가란 점도 그의 추상적 작업을 다시 보게 한다. 왜냐하면 이제까지 추상은 마치 서유럽 및 영미권을 중심으로 한 주류문화의 전유물처럼 여겨져 왔기 때문이다. 미술에서 '발전'이란 말을 배척한 지 오래이다. 그러나 적어도 모더니즘에서 발전을 이룬 것이 서구 주류문화였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런 의미에서 서구 모더니즘의 풍부한 미술 작업들 가운데 추상의 절정을 보았고, 이후에도 서구의 미술사는 고도의 추상미술을 담보한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최근에는 살세도와 같이 소위 '제3세계' 작가들의 추상작업들을 종종 대면한다. 새로운 현상이다. 이제껏 이러한 배경의 작가들은 주로 그 지역의 특수성과 스토리텔링을 내용으로 하는 작품을 제시했고, 그래야 세계적으로 그 독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우리가 살세도의 작업을 보면 그 변화를 실감하듯, 편중된 미술의 권력관계가 적어도 이렇듯 건축적 미술작업에서 어느정도 '민주적'으로 전환되고 있다고 봐도 좋겠다.

사실, 미술의 근본 메커니즘에서 볼 때, 작업에서 다루는 구체적 대상이나 사건에서 거리를 두고 미적인 조형과 색채를 구상할 수 있는 쉽지 않은 일이다. 일상의 삶에서도 자신에게 닥친 일에 천착하여 그 사건 내용을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을 범인(凡人)이라 한다면, 여기서 거리를 두고 숨고르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을 고수(高手)라 말한다.

미술작업에서도 주체의 성숙도를 가늠할 수 있는 척도는 이렇듯 '거리두기'에 있다. 훌륭한 예술가는 누구나 거리두기를 자기 방식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추상은 그 중 하나의 방식이라 보면 적합하다. 미술에서 추상이 가치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살세도가 콜롬비아의 고통스런 내전의 상황을 겪으면서도 그 내용을 직설적으로 전달하지 않고, 인류의 보편적 폭력과 트라우마, 그리고 궁극적으로 타자의 삶에 대한 존중을 작품으로 표현해낸다는 점이 그를 훌륭한 작가로, 미술의 '고수'로 보는 근거이다.

글. 김득수_ Kim, Deuk-soo
대한건축사협회 감사

아테네 파르테논 신전(神殿)의 (B.C. 447~432) 이론과 실제, 그리고 조자용 무속문화

건축인 조자용, 민학을 개척한 선구자

Theories and Facts of Athen's Parthenon, and Jo, Ja-yong Shamanism

고대 그리스의 호메로스(Homeros)는 서양문학의 최초이자 최고의 걸작으로 손꼽히는 〈일리아드〉와 〈오딧세이〉에 인간이 숭배해야 할 대상으로 12신을 등장시켰다. 그로부터 수 천 년이 흘렀지만 이 작품이 주는 감동이 큰 이유는 어마어마한 스케일은 물론이고 자연의 위대함, 신에 대한 숭배, 사람에 대한 사랑, 때로는 질투와 반목 등 섬세한 감정 묘사에 이르기까지 짜임새 있는 구조와 내용의 풍부함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에게 친숙한 그리스 신화(神話)와 신전(神殿)의 발생은 이때부터라고 할 수 있다. 이제 〈일리아드〉에서 트로이전쟁 중 나타나는 서양건축사에 관한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고, 더불어 그에 비견할 만한 사례로서 우리의 건축인 조자용이 그의 생애를 통해 집중했던 무속 신앙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12신계는 고대 이집트에서 유래되었고, 그리스의 이르러서는 각 신들의 성정(性情)이 매우 섬세하게 묘사된 이후 로마로 전승되었다고 볼 수 있다. 올림푸스 산 위의 제우스신을 필두로 그의 형제자매인 12신은 아래(그림1)와 같다. 고대 그리스 시대의 신은 완벽한 영적 존재만이 아닌, 오히려 인간의 성정을 가진 모습으로 표현되고 있다. 그래서 인간에게 두려운 존재만이 아닌 친숙한 존재로 다가올 수 있었고, 일상은 물론이고 인간 내면의 깊숙이 자리한 고민을 해결해 주는 존재로까지 여길 수 있었을 것이다.

Zeus : 지상의(至上), 신중의 신(神中神), 천공의 신
Dometon : 대지(大地), 농업의 신
Hera : 제우스의 비신(妃神), 혼례의 신
Artemis : 수렵(狩獵), 추격의(追擊) 신
Apollo : 이성(理性), 예술(藝術), 지혜, 율법의 신
Hermes : 신의 사자,(使者) 교역(交易)의 신
Athene : 지식(知識), 교육(敎育), 전승(戰勝), 평화(平和)의 신
Aphrolites : 애정(愛情), 미(美)의 신
Poseidon : 해양(海洋)의 신
Hephaistos : 화염(火焰), 기술(技術)의 신
Dionysos : 주정(酒精), 축제(祝祭), 의식의 신
Ares : 전쟁(戰爭)의 신

12신계

무녀(巫女, Puti)를 통해 아크로폴리스 구릉(丘陵, Acropolis의 'acro는 높은'이라는 뜻이고, 'polis는 도시'를 뜻함)에 도시국가의 헌납보고전(獻納寶庫殿)이 설치된다. 세계문화유산 1호인 이 신전은 페리클레스에 의해 아테네의 수호신 아테나 여신을 모시기 위한 것이며, 또 하나는 델로스로부터 가져온 동맹자금을 보관하기 위한 국고로 사용되었다고 한다. 이 신전은 인간이 구축한 최고의 걸작 중 하나가 되었고, 오랜 건축역사를 두고 건축조형의 표본이 되었다. 아테네의 7개 언덕 중 하나인 아크로폴리스 위에 서 있는 이 신전의 명칭은 여신 아테나의 무녀들이 살았던 집인 파르테논(처녀의 집이라는 뜻)에서 유래했다.

이 걸출한 작품은 저명한 그리스 건축사 이크티누스(Ictinus)가 설계했고, 칼리크라테스(Calicrates)가 시공을 총괄했으며 외부의 조각은 총감독 페디아스(Phedias)에 의해 제작되었다.

그리스 신전은 주로 대리석으로 지어졌으며, 큰 공간을 짓기 위해서는 돌의 특성상 기둥이 많을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열주식 양식인 도리아식(Doria order), 이오니아식(Ionia order), 코린트식(Corinth order) 등 3대 양식으로 발전하였다. 황금분할(黃金分割)의 기본 단위척(單位尺)에 의한 각부 치수를 결정하여 아름답게 비례균형을 잡는 설계 방법도 이 시기에 채택되었다고 본다.

필로파포스 언덕 (Philopappus Hill)에서 보이는 파르테논 신전의 전경

파르테논 신전 서측면

아테네 신타그마 광장으로부터 700m 거리에 위치한 올림피아 제우스 신전(Temple of Olympian Zeus), 델포이의 아폴로 신전(Temple of Apollo), 아테네의 아크로폴리스 구릉에 위치한 파르테논 신전, 아크로폴리스의 북쪽 편에 위치한 에렉테이온 신전(Temple of Erechtheion), 파르테논으로 가기 위해 지나가야 하는 곳인 '프로필레아 문(성스러운 건물로 향하는 입구)'의 오른편에는 승리의 여신을 기리기 위해 지어진 아테나 니케 신전(Temple of Athena Nike), 아고라(아크로폴리스 정상에서 주위를 빙 둘러보면 북서쪽 방향에 위치함)의 헤파이스토스 신전(Temple of Hephaestus) 등 옛 건축물들의 화려함과 정성스러운 것에 비하면 '신타그마(Syntagma)'라고 불리는 현 국회의사당은 오히려 건축을 다루는 데 소박함이 묻어난다. 보기에 따라서는 건축기술이 퇴보한 느낌이 들기도 한다.

마라톤 전투에서 페르시아를 물리친 그리스는 승리의 기념으로 파르테논 신전을 세운다. 이후 폐허에서 재건된 아고라(Agora) 광장 주위에 시장, 집회장소, 행사와 볼거리 등이 생겨나면서 급속히 도시화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로 인해 신 중심의 신전문화가 점차 퇴색하고 사람 중심의 시민문화가 강해지게 된다. 결국 아고라 시장은 도시의 중심이며, 시민활동의 중심이 되었고 그러한 경향은 오늘날까지 지속되고 있다.

파르테논 신전 동측 프리즈_아이리스(Iris), 헤라(Hera), 제우스(Zeu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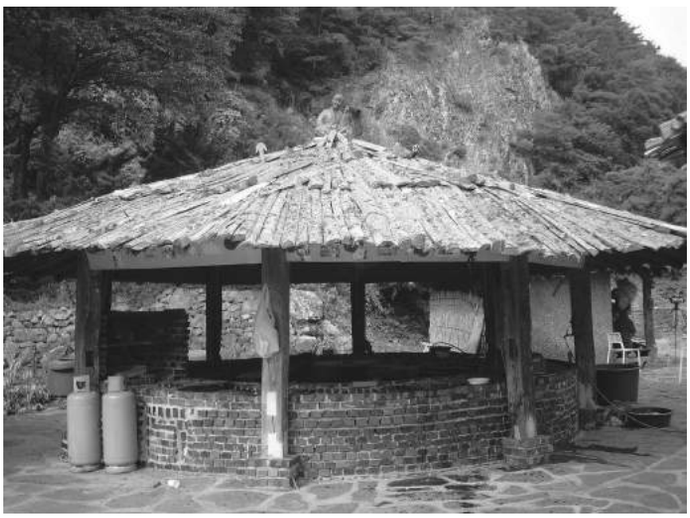
이제 우리에게 관점을 돌려보자. 우리의 전통 문화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대갈 조자용 박사는 오랫동안 잠자고 있던 민화의 가치를 새롭게 조명하고 일깨우기 위해 그의 생애를 바쳤다고 할 수 있다. 그는 건축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민속학자로서의 삶을 살았다. 민속박물관으로 익히 알려진 에밀레박물관은 건축주가 조자용 자신이었기에 박물관을 직접 설계하고 1960년대부터 각종 민속공예품과 귀면와(鬼面瓦), 장승, 유물 등 도깨비에 관련 사료수집에 매달렸다. 더불어 그곳에서 다양한 전통문화행사를 개최하거나 사료에 대한 학술자료 등을 국내는 물론 세계에 알리면서 오늘날 민속박물관으로 기틀을 다지게 되었다. 개인적으로는 경제적 유익이 크지 않은 일이었고 오히려 손실이 클 수도 있었지만, 전통문화 및 무속신화 등 우리의 민학에 보여준 소명과 애정이 깊었기에 이런 일이 가능했다고 볼 수 있다.

1967년 화곡동 봉제산 끝자락에 건립된 에밀레박물관, 현재 철거됨(한화 100호전 소책자)

에밀레박물관을 운영하며 무속신앙에 심취했던 조자용은 '민속의 삶'을 살았다고 할 수 있다. 건축물과 구조물, 소품으로 어우러진 삶, 얼, 멋을 흥겹고 신명나게 체험하는 수련 도장의 모든 것이 그의 육신이었고 정신이었다. 그는 황해도 황주 출신으로 해방 전에 평양에서 사범학교를 졸업했고, 월남 후 미군부대에서 생활하며 영어를 배운 후 전쟁 전에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다. 1926년에 태어난 그는 명석한 두뇌와 타고난 근면성으로 해방 이후 첫 유학생을 싣고 미국으로 향하는 배를 타는 행운을 얻었다. 이후 그는 테네시 웨슬리안 대학(Wesleyan College)과 벤더빌트 대학교(Vanderbilt University) 토목공학과를 졸업하고, 하버드대학 대학원(Harvard University)에서 구조공학을 전공한다. 구조공학에 정통한 세계적인 건축인의 기틀을 마련한 셈이었다.

1953년 그는 미국에서의 보장된 생활을 버리고 6 · 25후 폐허가 된 조국으로 돌아와 미국 대사관저, 계명대학교와 경북대학교 본관, 자신의 거처이자 박물관인 에밀레박물관 등을 설계했다. 한옥양식으로 지은 미 대사관저는 레이건 대통령이 방한했을 때 머문 후 "세상에서 내가 머문 숙소 중 가장 인상 깊은 집"이었다는 찬사를 남겼을 정도로 빼어난 걸작으로 꼽힌다.

그는 이후 전 생애를 통해 민화 수집, 변질 없이 전승되는 무속을 찾아 민간문화 속에서 우리민족문화의 모태를 발굴하게 된다. 도깨비와 산신, 신수인 호랑이, 용, 거북, 봉황 그리고 장수 바위와 말터를 만나며, 천대받던 우리 민화들을 세계적인 예술로 알리는 데 성공하고 마침내 88올림픽의 마스코트로 호돌이를 성사시킨다.(호돌이는 공모를 통해 디자이너 '김현'의 안이 당선되었다.) 또한 그는 우리의 민화로 미국에서 순회전시를 하며 우리 민속문화의 예술성을 선양했고, 당시 무속인들과 함께 미국을 순회공연하며 우리의 전통 무속문화를 떳떳하게 세계에 알리기도 했다. 이는 결국 우리의 뿌리를 찾아 본래 모습으로 돌아가자는 문화운동이었고, 새마을운동의 근대화에 휘말려 소멸되어 가던 사람 중심의 마을 축제를 되살리자는 일이었다.


팔각집

속리산 입구에 자리 잡은 에밀레박물관은 팔각집을 중심으로 행랑채 형태의 건물이 안을 포근하게 감싸는 50여 채의 한옥형식으로 지어졌다. 박물관은 최초 1967년 서울 화곡동에 건립됐으나, 1983년 속리산 정이품송 건너편 골짜기 1만1,000여㎡ 부지에 전통한옥으로 된 전시관을 지어 이전했다. 대표적인 근대건축사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Frank Lloyd Wright)나 르 꼬르뷔지에(Le Corbusier)도 말년에는 작고 아담한 건축물을 지었듯이 조자용 역시 삼신사 민족문화수련장이라는 아담한 마지막 작품을 남겼다.

속리산 입구의 에밀레박물관 전경

두 손 벌린 백제 도깨비 형상

삼신사 : 부석사 조사당(祖師堂) 같은 기본 구조로 지은 집

소도(蘇塗) : 삼한시대 하늘에 제사 지내던 거룩한 터. 신우(神于), 신탑(神塔), 솟대, 장승, 선돌 등

만신산(萬神傘) : 우산처럼 생긴 건조물. 북이나 징을 두들기면서 흥겹게 돌아가면 만신(萬神)이 된다.

구환정(九桓亭) : 견환, 방환, 우환, 황환, 백환, 적환, 현환, 풍환, 양환, 아홉 족의 초정(草亭)

꼬깔집들 : 우리의 옛 주거. 인디언 집 모습 원추형의 티피(Tipi), 몽고 벽촌의 오로체, 시베리아의 추마 등 원시주거 모습

인웅검(因雄儉) 삼신(三神) 비석 : 환인(桓因), 환웅(桓雄), 환검(桓儉)을 새긴 비석체

장승들 : 수련장안의 장승. 조자용이 직접 디자인한 장승조각가 유재봉 작품

백제도깨비 : 수련장안 건물 벽에 두 손 벌린 나무조각 도깨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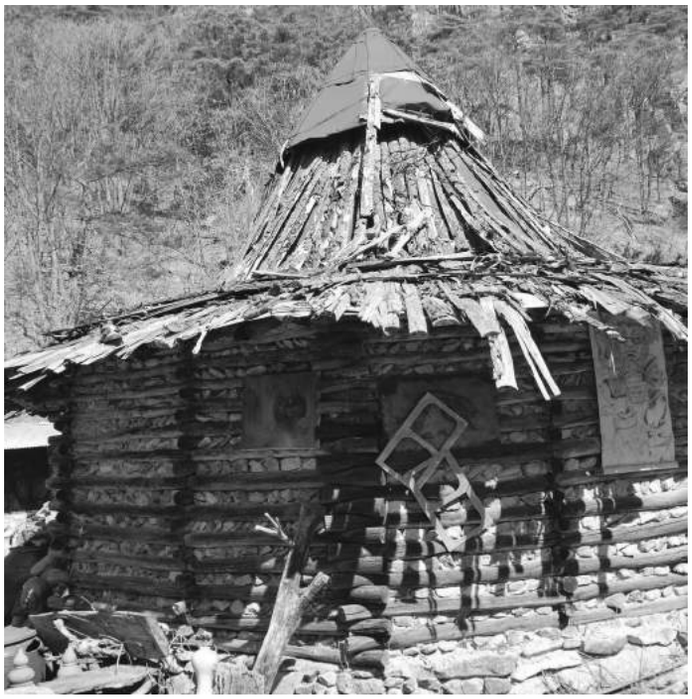
건국신화 나무조각 : 판때기에 네 명의 도깨비상 조각은 규원사화와 건국 신화를 묘사

도깨비 그림들 : 수련장에 고구려의 호방한 도깨비, 중국 남북조시대 도깨비, 일본 도깨비

화엄연기(華嚴緣起) : 심생즉종종법생 / 심멸즉촉루불이(心生則種種法生 / 心滅則燭淚不二), 마음이 나면 여러 가지 법(분별)이 나고 / 마음이 없어지면 해골과 둘이 아니다

필자는 1박 2일 동안 조자용 선생을 모시고 5,000년의 역사와 뿌리가 있는 무속신앙에 대해 토론한 적이 있다. 그 때 생각을 하니 철학, 풍수지리사상, 무속신앙, 불교문화로 인한 핍박, 도깨비, 삼신할머니와 삼신각 등 다양하고 소박한 우리네의 삶에 대해 진지하게 토론을 했던 기억도 함께 떠오른다. 당시 약주를 즐기시며 말씀을 나눌 때 그 열정과 소명은 듣는 이를 충분히 감동시키고도 남았다. 특히 미국에서 우리의 민화를 전시할 때 있었던 일화를 말씀하시던 그 모습은 지금도 잊히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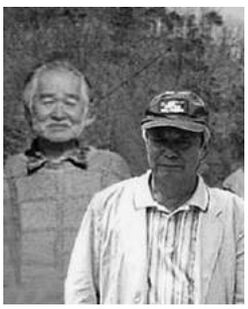
원형 꼬깔집


현재 고깔집(2014.9.11)

행랑채 벽면에 세워진 장승조각가 유재봉 작품

에밀레 박물관은 조자용 선생의 사후에 장승조각가 유재봉이 그의 정신을 이어 관리 · 운영하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박물관을 떠나 택시운전 등으로 생활하다보니 사실상 빈집이 되어 방치되어 왔다고 한다. 설상가상으로 에밀레 박물관 일부가 2014년 6월 23일 화재로 소실되기도 했다.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인 것은 불이 난 공간이 취사장이었기에 조자용 선생이 수집했던 전시물 및 사료 등을 보관한 곳은 피해가 거의 없었다는 점이다.

이 일을 계기로 다시금 에밀레 박물관의 역사적 가치에 대한 관심이 일어나 우리의 민속문화유산으로서 보존 · 관리 그리고 활용에 대한 대안이 마련되어야 함을 일깨워주었다. 사실 문화의 계승과 발전은 당연지사 국가의 일이지만, 개인의 차원을 넘어 사명으로 이제껏 유지해온 개인의 노력이 가상하고 고마울 따름이다. 이러한 유사 사례는 다양한 분야에 있을 것이다. 지자체와 국가가 거시적 관점으로 발굴과 유지에 관심을 가지길 바란다.


조자용 선생(좌)과 필자(우)

삼신사

행랑채 화재 전(좌)과 후(우)

필자가 그리스를 여행하며 보며 느낀 것은 그들의 민속문화가 세계적인 문화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문화도 그러지 못하리란 법이 없다는 것이었다. 우리의 오래된 민속문화에 대해 좀 더 관심 있게 탐구하고 잊힌 것들을 발굴해야 한다. 스스로 자긍심을 가지고 선조로부터 시작된 문화를 후대에까지 알려야 할 중요한 이유며, 이제라도 그러한 일이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기고.

글. **장현수**_ Jang, Hyun-soo / KIRA
대한건축사협회 사업위원회 위원장
㈜종합건축사사무소 모아아키 대표

'2014 녹색건축한마당'을 개최하며…

Holding Green Building Festival 2014

명 칭 : 2014 녹색건축한마당
주 제 : Green Value, Green Life! (녹색건축과 함께하는 녹색생활)
기 간 : 2014년 10월 29일(수) ~ 11월 1일(토) 10:00 ~ 18:00
주 최 : 국토교통부,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주 관 :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대한건축사협회
후 원 : 에너지관리공단, 한국감정원, 건축도시공간연구소
한국토지주택공사

녹색건축물 보급 확대에 대한 정부의 정책의지를 천명하고, 공공 · 민간 · 학계 등 다양한 분야와 녹색건축에 대한 의견을 나눔으로써 국민적 공감대를 넓히는 '소통의 한마당'인 〈2014 녹색건축한마당〉을 오는 10월 29일(수)부터 11월 1일(토)까지 4일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하게 되었다. 국토교통부와 국가건축정책위원회가 주최하며 한국시설안전공단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및 대한건축사협회(이하 협회)가 공동주관하는 행사로, 이 기간 중 협회 주최로 성장해온 제9회 한국건축산업대전을 비롯해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주최인 녹색건축대전과 3개 건축관련학회가 공동주최하는 친환경건축학생공모전, 기타 관련행사 및 여러 전시회 등을 모두 대한건축사협회에서 총괄하여 개최하게 된 것이다. 즉, 전시와 교육 형태로 이루어져 오던 기존의 행사방식에서 탈피하여 본격적인 국가공식행사와 각종 컨퍼런스가 결합된 명실상부한 건축계 최고의 축제를 협회가 중심이 되어 개최하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2011년 국가건축정책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탄생한 녹색건축한마당은 2012년 국토교통부 내에 새롭게 녹색건축과가 만들어지면서 체계적인 행사의 틀을 갖추기 시작하였고, 지난해 제8회 한국건축산업대전과 동시행사로 개최된 것을 계기로 올해부터 본격적인 협회 총괄 개최의 시기를 맞게 되었다. 실로 빠르고 박진감 있게 진행되어 온 시간들이다. 그 시간들을 모두 돌이켜 풀어놓기에는 지면의 한계가 아쉬울 뿐이다. 그래서 이 지면을 통해서는 지나온 과정에 대한 설명보다는 앞으로의 준비와 각오를 적어보고자 한다.

녹색건축한마당이 처음 탄생할 때만 해도 우리 건축계는 혼돈 그 자체였다고 할 수 있다. 공급 위주의 건축에서 지속 가능한 개발, 즉 저성장, 환경중심의 건축으로 바뀔 것이라는 것은 모두가 짐작하던 시기였다. 문제는 정확한 방향과 목표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건축전문가 모두가 중심을 잡을 수 없었던 시기였다. 그때 한줄기 빛처럼 방향을 제시해 주었던 것이 〈녹색건축한마당〉이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에서 조그마한 단서라도 잡고자 많은 건축전문가들이 녹색건축한마당에 모였고, 미래에 대한 방향성을 논할 수 있었다. 그리고 곧 바로 국토교통부 내에 녹색건축과가 신설되었고 엄청난 양의 정책개발과 연구 그리고 방향 제시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너무 단기간 내에 이루어지다 보니 이제는 오히려 피로감을 느낄 상황까지 되었다. 특히 건축계 최대, 최고의 실행단체인 건축사와 협회 입장에서 보면 미래로의 방향성이 결코 장밋빛만은 아닌 방향으로 가고 있음을 부정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렇다고 시대적인 큰 흐름을 거부할 수도 없는 일이었다. 문제는 무엇이었을까? 바로 소통의 문제였을 것이다. 지구환경 보호를 위해서 지속가능한 개발을 한다는 부분에 있어서 건축계가 결코 반대할 이유는 없다. 혹시라도 반대의 의견이 있다면 그것은 건축실무현장과 분리된 연구와 정책개발과정이 이루어지며 일방적인 규제가 생산되고 있다는 불신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 불신을 해소할 수 있는 최고의 소통채널을 만들게 되었으니, 그것이 바로 〈녹색건축한마당〉의 협회 총괄 개최인 것이다.

국토교통부 내에 건축정책국이 생기고 관련부서로 녹색건축과가 신설되면서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방향 제시의 틀인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이 만들어지고 다양한 관련법과 하부법령들이 만들어졌다. 그 중에는 이미 알고 있는 내용도 있으나 대부분은 새롭거나 기존의 내용을 더욱 보강한 전혀 다른 차원의 내용들이었다. 그렇기에 건축사와 협회 입장에서 보면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특히 '녹색건축센터'로 지정된 기관들과 각종 인증기관들

을 통해 생산되고 실행되는 내용들에 대한 불신이 결코 적지 않았을 것이다. 건축계 최고 전문가라 자부하는 건축사의 입장에서 보면 각종 기관들에 대한 '건축실무지식의 하극상'이라는 불만이 팽배해지고 있는 상황이었다. 간단한 이유, 즉 소통의 부재에서 나타나는 위기 상황이었다 말할 수 있다. 그 소통의 부재를 단번에 해소할 수 있는 것이 '녹색건축한마당'이다.

'녹색건축한마당'은 지속가능한 개발을 추구하는 우리 모두의 축제다. 축제라는 것은 일단 모이는 것이다. 모이고, 만나고, 즐기고, 소통하고 미래를 함께 만들자는 노력을 약속하는 것이다. 건축전문가는 물론 일반국민 모두를 초청하여 한바탕 흥겨운 잔치를 펼치는 마당이다. 국토교통부와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물론 5곳으로 지정된 '녹색건축센터'와 녹색건축물인증기관, 에너지효율등급인증기관, 기타 녹색건축 관련기관들이 모두 참여한다. 전국 지자체의 공공기관들도 함께하기로 하였으며, 학회에서도 십시일반 도와서 함께하기로 약속하였다. 건축사와 대한건축사협회가 함께하는 것은 물론이다. 그래서 더 이상의 소통 부재에 따른 불신은 없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정책의 큰 방향을 들을 수 있고 건축실무현장의 지식과 정보 그리고 애로점을 전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우리 건축사와 협회가 앞장설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 것이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와 대한건축사협회가 꾸준히 노력하여 얻은 결실이 이번 '2014 녹색건축한마당'이다.

행사프로그램도 보다 다양하고 풍성하게 준비하였다. 기존에 오전 공식행사와 오후 세미나로 구성되었던 다소 형식적인 하루 행사를 바꿔서 4일간의 전시기간을 비롯해 첫날은 공식행사 및 작품발표회와 녹색건축토론회, 축하행사 등으로 구성되며, 2일차에는 제로에너지건축정책 및 기술세미나와 국제세미나 그리고 3일차에는 각종 공공정책과 민간기술세미나로 구성되는 건축 최고의 정보교류의 장으로 준비한 것이다. 이제는 함께 모여 행사를 즐기는 우리의 역할이 남았을 뿐이다.

이제는 공급 위주의 개발성장시대에서 품질과 성능 특히 환경을 고려한 지속가능한 발전의 시대로 이미 진입한 상태다. 이때 우리 건축사와 협회의 역할도 그에 걸맞게 새로운 각오와 노력을 보여야 하는 위치에 와 있다. 준비하고 노력하면 분명 새로운 기회가 우리에게 올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행사를 준비하였다. 모두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

2014 녹색건축한마당 행사 일정 및 전체 프로그램

10/29(수)	401호	402호	403호	전시 / B홀
오전 09:30~12:00	오프닝 및 시상식		오찬	
오후 13:30~18:00	녹색건축 UCC 공모전	그린리모델링 성과공유 및 정책방향 발표	녹색건축대전	· 한국건축산업대전 · 녹색건축대전 · 친환경건축디자인공모전 · 생태환경건축대상
	녹색건축 정책 토론회		친환경건축 디자인공모전	
	축하공연	녹색건축 상담(로비)		
10/30(목)		402호		
오전 09:30~12:00		국제세미나		
		제로에너지빌딩세미나		
오후 13:30~17:30		해외녹색건축물 인증 제도 및 진출사례		
10/31(금)	307호	308호		※기타행사 : · 건축사미술전 · 신진건축사대상
오전 10:00~11:30	공공정책 세미나-1	민간기술 세미나-1		
오후 13:00~17:30	공공정책세미나-2	민간기술세미나-2		※동시개최행사 : 국제승강기엑스포(A홀)
	공공정책세미나-3	민간기술세미나-3		
11/1(토)				

산업대전 전시현장

녹색건축한마당 세미나

기고.

글. **신춘규**_ Shin, Chun-gyu / KIRA
대한건축사협회 국제위원회 자문위원
씨지에스 건축사사무소 대표

UIA 2014 더반 세계건축대회 참가보고서

UIA 2014 Durban World Architects Congress and General Assembly Report

국제건축사연맹(UIA)이 주관하는 UIA 2014 더반 세계건축대회(25th UIA World Architects Congress and General Assembly, 이하 World Architects Congress: '세계건축대회'라 칭하기로 함)가 남아프리카공화국의 항구도시 더반의 ICC(국제컨벤션센터)에서 2014년 8월 3일부터 10일까지 개최되었다. 이번 대회에는 2017년에 개최될 서울의 제26회 세계건축대회 인수를 위하여 대회 조직위원회 위원(변 용 위원장 외)들과 국토교통부(김용수 사무관, 권희만 주무관), 서울시 관계자(진희선 주택실장, 박순규 과장 외) 및 건축계의 인사들 약 35명이 참석하였다. 대한건축사협회에서는 김영수 회장과 이번 UIA 제4지역 이사로 선출된 이근창 국제위원회 자문위원이 대표로 참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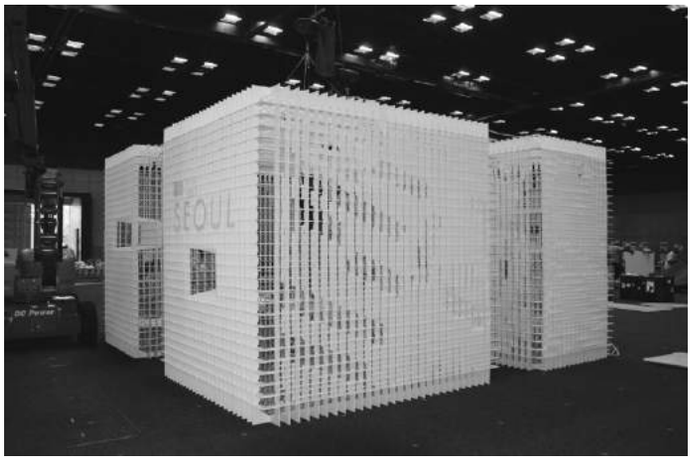
이번 더반 세계건축대회(Congress)의 전반 3일간은 대회의 주제 〈Otherwhere(다른 장소)〉를 바탕으로 한 기조연설과 논문 발표뿐 아니라 각종 UIA의 Work 프로그램, 학생 및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동시에 진행되었다. 후반 3일 동안에는 일반 총회(General Assembly)를 하는 형식으로 지난 3년간 임원진과 이사 그리고 각 위원회의 활동 내용, 정관 개정, 새로운 집행부 선출, 2020년 개최지 선정 등 회원의 뜻에 따라 결정해야 할 사항들을 처리하였다.

한국대표단

더반 세계건축사대회의 주제 〈Otherwhere(다른 장소)〉는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한 다른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다른 장소에서 배운다'는 의미이며, 'Resilience(회복)', 'Ecology(생태)', 'Values(가치)' 세 개의 소주제로 분리하여 하루 한 개의 주제를 놓고 프로그램을 계획하였다. 대회에는 학생들을 포함하여 약 4,200여명의 건축전문인들이 등록하였다. 기조연설자 15명 중에는 프리츠커 상을 수상한 중국의 왕 슈와 일본의 도요 이또(Toyo Ito)가 포함되었고, 많은 건축 전문가들과 학생들이 참석하여 경청하였다.

포럼과 더불어 학생들이나 어린이들이 참여하는 UIA work programme이 주변 지역사회에서 이루어졌으며, 전시장에는 각종 자재 전시를 포함한 각 위원회와 회원국 홍보, 지역 건축사단체와 차기 · 차차기 후보 도시의 홍보관 등 여러 형태의 전시가 총회 전 일정에 걸쳐 다양하게 펼쳐졌다. 특히 ICC에 전시되어 차기 대회를 소개한 서울 파빌리온은 다른 전시와는 확연이 다른 컨셉으로 많은 관람객의 주목을 받기에 충분하였다. 조직위원회가 주

관하여 젊은 건축인들을 대상으로 현상공모를 진행한 서울 파빌리온은 이강준(한양대 교수)과 김영아 팀의 당선안(The City of Hidden Dimension)에 따라 13,000피스로 조립되었다. 대회 내내 가장 인기가 많았던 전시관으로, 각국 대표들이 방문하여 엄지를 치켜 올렸다.



서울홍보관(설계자 : 이강준+김영아)

대회 폐막식 전에 시행된 여러 UIA Awards의 수여식에서는 중국계 미국인 I.M.Pei가 올해의 UIA 골드메달을 받았고, 서울시는 영등포 쪽방촌 개선사업으로 탁월한 주거복지에 이바지한 프로젝트에 주는 특별상인 로버트 매튜 경(Sir Robert Matthew) 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누렸다. 시상식에는 진희선 주택실장이 서울시 대표로 참석하였다.

이번 세계건축대회에는 북한에서도 3명(조선건축사동맹 중앙위원회 심영학 부위원장 외)의 대표단이 참석하였다. 고무적인 것은 다른 대회 때와는 다르게 인사도 나누고 같이 사진 촬영도 하였다는 점이다. 쉬는 시간에는 간단하게 건축에 관련된 대화도 하고 지속적으로 교류를 유지할 수 있는 방안 및 자료교환 등을 요청하였다. 대화에 있어 서로의 입장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 ARCASIA 회장에게 중재를 요청하였고, 그는 후속 조치로 북한에 ARCASIA에 입회할 수 있는 신청서를 발송하여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

총회(General Assembly)에는 108개의 회원국 330투표권 중 개략 233투표권이 출석하였으며, 옵서버 포함 약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현 회장인 알베르 드뷸러(Albert Dubler, France)의 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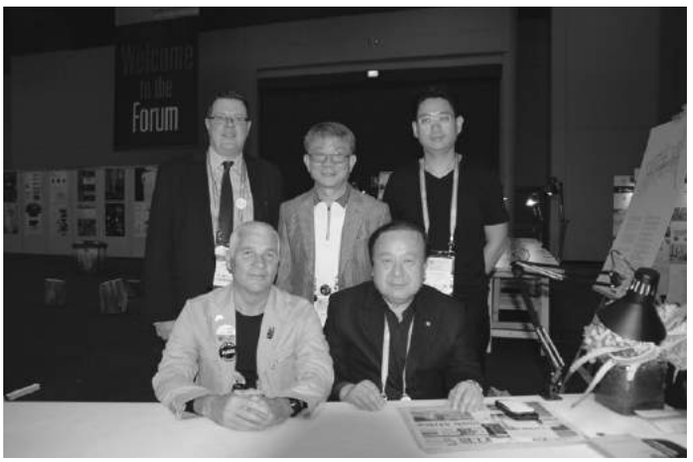
'로버트 매튜 경'상을 수상한 서울시 진희선 실장

북한대표 심영학 건축연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으로 개최되었다. 총회에서 결정된 주요 사항들 중 회장선거는 현 사무총장인 레바논의 미셸 바마키(Michel Barmaki)와 수석부회장인 말레이시아의 에사 모하메드(Esa Mohamed)가 경쟁하여 에사 모하메드가 압도적으로 당선되었고, 2020년 세계건축대회의 개최지는 호주 멜버른, 프랑스 파리, 브라질 리오가 경합을 벌인 결과 2차 투표에서 리오가 멜버른을 12표차로 누르고 유치도시가 되었다. 그 외의 주요 결정사항에는 각국 회비 산정의 불합리성을 개선하기 위해 재무관인 남아공의 트레이시가 제안한 새 회비 산정 안이 결의되었고, 이 새로운 회비시스템으로 우리나라의 회비가 15,000유로에서 13,000유로로 감소되어 다소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되었다.

사무총장의 제안으로 젊은 건축사의 미래 역할의 중요성을 고려, UIA 내 젊은 건축사 위원회를 두고 지역별로 대표단을 구성하였다. 4지역의 대표로는 대회에 유일하게 참석한 뉴질랜드 대표 한국계 Alexandra Jayeun Lee(이자연) 박사가 지명되어 한국과의 관계가 자연스러워질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이번 총회에서는 튀니지 등 일부 회원국들이 정치적 문제인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습에 대한 비난과 무고한 어린 생명들의 희생을 막기 위한 UIA 결의안을 채택코자 지속적으로 건의하였다. 이에 대해 미국회장의 'UIA 창립 기본정신은 건축 전문분야의 발전을 위한 것이지 정치적인 것이 아니'라는 논조의 간곡한 반대연설 후 행해진 찬반 투표 결과 찬성이 과반을 넘었지만 정관에 의한 요구표수인 75%를 넘지 못해 부결된 것이 눈에 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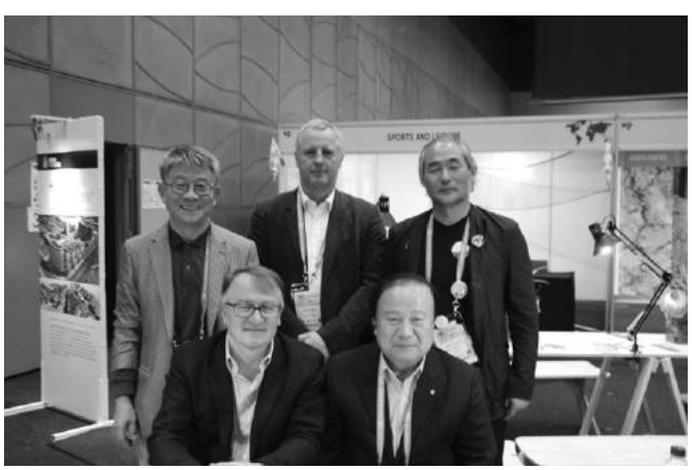
신설된 UIA 젊은 건축사 분과위원들과의 대화



ACE(유럽건축사이사회)와 협의 후 기념촬영

9일, 차기대회 개최를 위한 2017 서울대회 보고의 마지막을 미래재단의 아프리카 어린이들로 구성된 사물놀이패 라마코카 팀 공연으로 마무리해 갈채를 받았다.

김영수 회장은 UIA 더반대회 참석 중 유럽건축연합회(ACE, Architect Council of Europe, 회장 Luciano Lazzari)와 영국왕립건축사회(RIBA, Royal Institute of British Architects, 회장 Stephen Hodder)의 요청으로 일정을 쪼개어 서로의 관심사에 대한 논의를 하고 계속교육 프로그램과 방법 등을 상호 인정하고 교환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으며, 건축 관련 각종 정보 및 건축 전시 등을 교환하는 내용 등을 담는 MOU 초안을 작성 · 검토하고 추후 적절한 시기에 체결하기로 하였다.


RIBA(영국왕립건축사협회)와 협의 후 기념촬영

이제는 2017년 서울 세계건축대회를 준비해야 할 시간이다. 서울시, 국토교통부 그리고 건축계가 단합하여야 한다. 모든 건축인들은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이 대회를 새로운 건축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멋진 대회가 되도록 만들어가야 한다. 이제까지 대한민국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기적을 여러 곳에서 이루어왔다. 지금은 우리가 사랑하는 건축의 차례다. 한국전쟁 후 60여 년간 건축은 경제 부흥과 주택 공급의 논리에 밀려 건설의 하수인으로 자리해왔다. 이제 시대의 요구에 의해 서서히 바뀌어 가고 있다. 2017년 세계건축대회가 그 기폭제가 되었으면 한다.

지금까지 여러 국제활동(2008년 아카시아 대회 및 2011년 UIA 동경 세계건축대회 유치 활동 등)을 통해 아시아 및 세계의 건축인들이 대한민국의 단합된 힘을 기대하도록 만들어 놓았다고 자부한다. 이제 그 기대에 부응하는 행사를 준비하고 이 행사를 통해 국내 건축계의 도약을 기대해본다.

총회 전경

서울대회 인수인계 후

UIA 국제건축사연맹에 대하여

UIA는 비정부단체로서 건축사들의 국가단체연합기구이며 주요 목적은 어떤 차별도 없는 세계 건축사들의 통합에 있다. 1948년 27개국이 모여 스위스 로잔느에서 창립되었고, 현재는 124개국의 회원국이 가입되어 있다. 북한은 1958년에 가입하였고, 한국의 경우는 한국건축가협회가 1963년에 가입하고 2001년에 대한건축사협회 및 건축학회와 함께 FIKA(Federated Institutes of Korean Architects)로 변경하여 가입 신청을 해 시드니에서 가진 101차 이사회의 승인을 득함으로써 우리협회는 FIKA라는 이름으로 발을 디디게 되었다.

FIKA 회장은 3단체 회장이 공동대표가 되고 교차로 공동대표회장을 1년씩 순번제로 돌아가며 하고 있다. 현재는 한국건축가협회의 한종률 회장이 FIKA공동대표회장을 맡고 있다.

UIA는 세 개의 주요 조직, 즉 총회(The General Assembly), 이사회(Council Members), 회장단(Bureau Members)로 구성되어 있다. 총회는 3년에 한 번씩 만나고 3년 동안의 활동보고 및 전략을 의논하며 회장단과 이사회를 구성한다. 회장단은 회장과 직전회장, 사무총장, 재무관 그리고 지역별 부회장으로 구성되고 1년에 2회씩 이사회 중간에 만나며, 이사회의 일부가 된다. 이사회는 1년에 두 번씩 만나도록 되어 있다.

3년 마다 개최되는 UIA 세계건축대회는 두 개의 파트로 구성되어 있는데, 전반부는 대회(Congress)의 성격을 갖고 후반부는 총회(General Assembly)로 진행된다. 총회는 3년간의 활동 및 앞으로 3년의 전략 및 비전과 임원 및 이사의 선거 등을 주로 다룬다. 반면 대회는 주제를 정해 주최 도시를 배경으로 각종 UIA Work Programme들을 진행하고, 유명 건축사를 초청하여 기조 발표를 하게하고, 심포지엄, 세미나 및 워크샵 등을 개최함으로써 전 세계 건축계의 주목을 받는 대회로 거듭나고 있다.

총회에서 회장 및 임원들의 선거와 각종 주요 이슈들은 투표에 의해 결정하게 되는데, 각국의 인구수, 국민소득, 건축사 수 등을 고려해 회비를 산정하고 등록건축사 수에 비례해 투표수를 배정받는다. 회비가 가장 많은 미국은 연 97,000유로이며 한국은 13,000유로이고, 투표수는 미국 11표, 중국 8표, 한국 6표, 북한 1표 등을 보유하고 있다.

UIA 2017 서울 세계건축대회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의미를 갖는다. 우리 건축계는 한국전쟁 이후 60여 년간 경제 부흥과 주택 공급이라는 미명 아래 건설의 하수인으로 전락해 있었다. 하지만 부단한 노력과 정책수립자의 인식 변화로 지난 몇 년 동안 건축문화의 중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했고, 그 변화는 건축기본법 수립과 건축정책위원회 신설, 그리고 국토부에 건축정책관 설치 등 다양한 모습으로 건축계에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아직 현실 부재의 문제는 일반인들의 건축에 대한 인식이다. 건축은 아파트가 전부고, 아파트를 사는 공간(居住)이기보다는 투자의 물리적 현상으로 받아들이는 인식에는 아직 변화가 없다. 그래서 개발업자들이 건축인들을 짓밟고 있다. 아니 건축인들이 스스로 개발업자들의 하수인이 되고 있다.

서울 세계건축대회를 통해 우리는 국제적으로 유명하고 실무적으로 단단한 기초를 가진 해외 저명 건축인들을 5,000명 이상 불러들일 것이다. 또한 10,000명 이상의 국내외 건축인들이 대회에 등록하여 건축전공 학생들과 젊은 건축인들이 함께하고 일반인들의 참여도 가능한 다양한 건축축제를 통해 건축이 문화이고 삶임과 동시에 도시일 수밖에 없고 도시가 곧 문화임을 대중에게 알릴 수 있는 계기를 갖고자 한다.

이 계기를 통해 내부적으로는 건축계가 통합하고 외부적으로는 건축인들이 사회적으로 조금은 더 존중 받고 건축문화의 소중함을 일반인들에게 널리 홍보함으로써 후손들을 위한 초석을 다지는 일을 할 수 있다고 믿는다.

기고.

글. **오동희**_ Oh,Dong-hee / KIRA
대한건축사협회 국제위원회 위원장
㈜간삼건축 종합건축사사무소 사장

제16차 아시아건축사대회 및 제35차 ARCASIA이사회 참가 보고서

The 16th Asian Congress of Architects &
35th ARCASIA Council Meeting Report

1. 참가 개요

장 소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컨벤션센터(KLCC)
기 간	2014년 6월 23일 ~ 30일 / 7박8일
주요행사	– 이사회 및 임원회의 – 위원회별 회의 / 건축교육위원회, 건축실무위원회, 친환경위원회, 사회책임위원회, 펠로우쉽회의 – 아시아 건축사대회와 학생잼보리 등 행사
부대행사	말레이시아건축사협회(PAM) 행사(전시 및 각종 포럼)
대 표 단	김영수 회장, 심재호 부회장, 김지덕 고문, 오동희 국제위원장, 이근창 · 신춘규 · 봉주희 국제자문위원, 김성민 · 강호원 국제위원, 이승호 · 정찬호 학생대표 (학생잼보리 참가)
주요일정	6월 23일 ARCASIA 펠로우십 골프 대회 6월 24일 임원회의, 각 분과위원회, 환영 리셉션 6월 25일 ARCASIA 이사회 제1일, 칵테일 리셉션 6월 26일 ARCASIA 이사회 제2일, ARCASIA 건축상 시상식 6월 27일 아시아건축사대회 포럼, 제1일, 갈라디너 6월 28일 아시아건축사대회 포럼, 제2일, 우정의 밤 6월 29일 사회책임 건축심포지엄 ※ 6월 23일~28일 : 학생 잼보리

2. 제16차 아시아건축사대회

2.1 배경

ARCASIA(아시아건축사협의회)는 1967년 뉴델리에서 개최된 CAA에서 최초 논의가 되어 1970년에 6개국(인도, 파키스탄, 스리랑카, 말레이시아, 싱가폴, 홍콩)으로 창설된 후 지금은 아시아 지역의 19개국이 회원국으로 참여하는 명실공히 아시아 건축을 대표하는 연합단체다. 우리나라는 1985년에 가입하여 활발한 활동을 해오고 있으며, 1988년과 1999년에 서울에서, 2008년에 부산에서 각각 ARCASIA 대회를 유치하고 2007~2008년 회장(이근창)을 배출하는 등 주요국가로서의 적극적인 활동을 해오고 있다.

2.2 행사개요

제16차 아시아건축사대회와 더불어 35차 이사회(Council meeting)는 말레이시아건축사협회가 주관을 하여 6월 23일부터 6월 29일까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되었다. 주요행사(일정표 참고)와 함께 말레이시아건축사협회가 자국 건축사 및 학생들을 대상으로 주관하는 행사 PPF(Pratical Practice Forum), GBF(Green Building Forum), KLDF(Kuala Lumpur Design Forum)가 6월 25일~26일 양일간 개최되었고, Archidex14 건축전시가 6월 25일~28일 열려 수많은 관람객의 발길을 사로잡았다.

2.3 주제

이번 제16차 아시아건축사대회는 주제는 "Rejuvenation(되젊어짐, 회춘, 원기회복)"으로, 아시아 도시 및 세계 각처에 이미 노쇠했거나 현재에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소비적인 개발에 대해 미래 유산으로서의 건축의 가치를 진지한 관점에서 새롭게 접근하자는 목표 아래 아시아 19개국의 회원단체 대표와 관련자들이 함께 모여 머리를 맞대고 개선점을 찾아내고, 아울러 이를 실천에 옮기고 있는 사례에 대한 강연을 통해 그 가능성을 모색하였다.

아시아건축사대회의 주제, 'Rejuvenation'

3. 회의결과

3.1 임원회의 및 분과위원회

ARCASIA에는 임원회의를 비롯해 각 건축실무위원회(ACPP), 건축교육위원회(ACAE), 친환경건축위원회(ACGSA), 사회책임위원회(ACSR)와 펠로우쉽위원회 회의가 있다. 이사회 하루 전 각 분야별로 모여 준비된 안건을 갖고 토론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되어있다.

3.2 임원회의 : 국제위원회 자문위원 이근창

1) 제7차 ARCASIA 임원회의는 6월24일 KLCC 중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임원회의 안건과 마닐라에서 개최된 제6차 회의록 추인이 특별한 수정 없이 통과되었다.
2) 재무 보고에서는 홍콩 상하이은행(HSBC)에 ARCASIA 계좌 명의 변경의 건이 홍콩건축사협회와 필리핀건축사협회의 협조로 완료되었고, 인터넷으로 출금이 가능하도록 조치되었음이 보고되었다. 현재까지의 입 · 출금 보고와 함께 2015년 예산도 원안대로 이사회의 승인을 받기로 하였다. 일부 회원국의 송금료와 송금 시 문제가 된 필리핀과 방글라데시의 회비는 이사회 회의 전 해당국에서 적절히 처리한 후 이사회에 상정하기로 하였다.
3) Zone별 부회장 보고는 회원국 행사의 보고가 아닌 Zone 내의 공동관심사와 대응에 대해서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하였다. Zone "B"의 부회장인 필리핀의 에드릭 마르코는 ARCASIA 로고 상표등록의 건을 상정하기로 하고, 이에 따른 제 경비를 보고하였다.
4) Heritage Book과 History Book에서 인도/파키스탄과의 국경선 표기는 UN 표기를 기준으로 하고, 내용 중 철자와 문장이 어색한 부분은 자문위원인 파기스탄의 아킬 빌그래미가 정리하여 차기 임원회의에 상정하기로 하였다.
5) ARCASIA 재정과 현 회장을 지원하는 스폰서 재정은 구별하여 관리하기로 하였으며, 금회 거의 모든 행사의 경비는 프레티니엄 스폰서인 ROCA, GROHE, SIKA, DULUX, FERUNI의 지원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이 보고되었고, 추후 잔액이 남는 경우 차기 회장에게 이관 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하였다.
6) ARCASIA의 웹사이트는 회원국뿐만 아니라 관심 있는 이외 국가에서도 접속 횟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통계가 보고되었다. 정보 중 회의록은 회원국에서만 참고할 수 있게 되어 있다.
7) 필리핀에 설립된 ARCASIA 법인은 차기 회장 취임에 맞추어 제반서류를 갱신하기로 하고, 홍보용으로 제작한 ARCASIA 다큐멘터리는 건축사의 역할보다 조직구성과 역사 중심으로 한 최종안으로 웹사이트에 등재하였다. 더불어 필리핀에서의 발족 당시 정신을 담은 가사를 기초로 태국의 스미스 오바앗이 작곡한 ARCASIA 송의 초안을 이사회에 상정하기로 하였다.
8) ARCASIA 건축상과 Emerging 건축상은 각 카테고리별로 2차 심사가 완료되었고 최종발표는 행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기로 하였다.
9) 각 지역 및 국가 간 체결된 MOU는 단독국가와는 더 이상 연장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하고, UIA, AUA, ACE, MASA와는 유효기간을 3년으로 하되 AIA와는 더 이상 체결하지 않기로 하였다. MOU를 요청한 VFA(헝가리, 폴란드, 체코, 슬로바키아 4개국의 건축사협회가 구성한 유럽 내의 지역단체)와는 그 조직의 구성과 활동을 좀 더 면밀히 확인한 차후에 그 체결 여부를 정하기로 하였다.
10) 정관과 핸드북, 운영매뉴얼에서 문구와 정의가 모호한 내용은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수정하기로 하였다.
11) ACASIA의 UIA 더반 Booth는 싱가폴, 말레이시아, 태국이 공동으로 준비하여 사전에 오픈하도록 하였다.
12) 각 위원회의 보고는 회의내용이 수정 없이 통과되었고, 단지 위원장으로 구성된 위원회인 Inter Committee는 필요성을 제고하기로 하였다.
13) 이번 이사회 이후 남은 임기 5개월간 있을 임원회의와 인계 · 인수를 위한 회의가 늦어도 내년 1월중에 갖기로 하였다.

OB Meeting 장면

3.3 건축교육위원회 : 국제위원장 오동희

1) 각국 건축교육 활동
   - 태국에서 제안한 TOY Architecture에 대한 참여를 독려하기로 함.
2) ARCASIA 버추얼건축학교(Virtual School of Architecture)
   - 아시아 각국의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가상공간 속의 건축 스튜디오로 "ARCASIA Pavilion Design Workshop"이라고 하며,

이번 회의를 통해 8개국(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한국, 파키스탄, 태국, 스리랑카, 마카오)의 참여를 전제로 추진하기로 함.

3) ARCASIA 프라이즈(Arcasia Prize in Concept paper)
- ARCASIA 회원국 및 기관에 속한 35세 이하의 젊은 건축사를 대상으로 건축여행과 연구장학금을 제공하는 건축상으로, 각국의 참여를 독려하기로 함.

4) 타임라인차트 개정(Architectural Timeline Chart 2nd Edition)
- 자료제공을 위해 각국의 협회가 협력하기로 함.

5) 크로스보더 인턴십(Cross Border Internship)
- ARCASIA가 추진하는 젊은 건축사 교류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각국의 사정에 따라 추진하되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을 구하고 프로그램 참여희망 설계업체 조사를 추진하기로 함.

6) 건축학교 디렉토리(Architectural School Directory)
- 자료제공을 위해 각국의 협회가 협력하기로 함.

ACAE 각국 대표단

3.4 건축실무위원회 : 국제위원회 자문위원 신춘규

1) 주요 안건
- ARCASIA 실무 매뉴얼/핸드 북
- ARCASIA 실무 데이터베이스 업데이트
- ARCASIA CPD 가이드라인
- ARCASIA MRA 가이드라인

2) 결론
- 토론이 아닌 실제 나눌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나 핸드북이 필요
- 관을 참여시키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우리가 먼저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각 단체별로 관과 협의가 가능하도록 추진하기로 함.
- 일단 사례조사를 통해 어떤 상황들이 있는지 취합하는 것을 1단계로 보고 사례를 모으기로 함.
- 10월이나 11월 인도나 인도네시아 중 가능한 곳에서 working group 회의를 가지고 취합하기로 함.
- 실무위원회의 토론 및 발전 내용이 생산적이기 위해서는 각국의 대표 또는 옵서버가 최소 2년 이상 참석할 수 있도록 조치해주어야 함을 당부함.

ACPP 회의장면

3.5 친환경건축위원회 : 대한건축사협회 부회장 심재호

1) 참가국의 단체별로 Country report를 발표하고 이에 대한 논의와 차기 의장인 방글라데시의 Qazi M Arif의 2015~16년 임기 동안의 중점사항에 대하여 논의가 있었음. 대한건축사협회는 왕정한 친환경위원장이 작성한 "건축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정책대응"의 내용을 위주로 발표하고 올 10월 14일 시행키로 되어 있는 건축협정의 내용을 친환경설계의 측면에서 설명하였음.

2) UMA: 친환경 Roundtable 회의를 다카와 싱가포르에 이어 유치할 의사를 표명함.

3) 차기 의장은 친환경위원회의 향후 과제로
- 각국별로 조상으로부터 전래되어온 친환경에 대한 Know-How를 조사, 취합하여 ARCASIA의 유산으로 보존.
- 1년에 한 번씩은 경험을 공유하는 회의를 개최하고 웹사이트를 보완하여 적극적으로 활용.
- Resilience, Climate Change, Security 등의 다른 환경적 요소들을 융합.
- 출판물 간행
- 향후 페이스북을 소통 수단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이를 IAP가 주관하도록 함.

3.6 사회책임위원회 : 국제위원 김성민

1) 사회책임과 건축에 관한 국가별 주요 이슈에 대한 보고
- 필리핀 : ARCASIA의 Emergency Center를 구축하고 프랑스 및 스웨덴과 협력관계 수립. 재난에 대비한 건물 가이드북을 만화로 발간, 태풍으로 소실된 초등학교 재건립(필리핀건

축사협회 공동 후원).

- 일본 : 과거의 대형 지진과 그 이후의 재건 기간에 관한 자료 분석
- 태국 :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한 타운하우스와 가로계획 및 일반인에게 장애인을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 소개
- 한국 : 김성민 위원이 국토부의 건축물 범죄예방설계 가이드라인, 대한건축사협회의 한옥설계 전문인력 양성과정과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설립에 대하여 설명
- 네팔 : 전통건축물의 보존과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
- 인도 : 사회책임에 대한 건축사, 정부의 역할 및 젊은 건축사 포럼
- 파키스탄 : 사회책임에 대한 역사적인 선각자의 철학과 사회와 기업의 책임
- 방글라데시 : 홍수에 대한 재난방지, 에코하우스 및 흙주머니를 이용한 주택 소개

2) 사회책임에 대한 개념을 정의하고 이에 따른 ARCASIA 건축사의 선언문을 작성하여 각국의 협회에서 인지하도록 소개

ACSR 각국대표단

3.7 Fellowship Meeting : 국제위원회 자문위원 김지덕

1) 우리가 어떻게 아시아건축사대회를 더 좋은 틀 안에서 지속할 것인가를 논의함.
2) ARCASIA는 National Institute로서 매년 참가의 의의가 있고, 모든 행사에 각국의 자격인증을 위한 논의를 계속해야 함.
3) ARCASIA 원래의 참가조항 등을 계승,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야 하며, 특히 젊은 건축사들로 하여금 ARCASIA를 계승, 유지, 발전시키도록 함.

3.8 이사회(Council Meeting) : 국제위원장 오동희

아시아건축사연맹 제35차이사회가 6월 25일~26일 양일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되어 회원국 19개국 중 18개국의 대표단이 참석, 아시아의 건축사에 관련된 제반 현안을 논의하였다. 우리 협회에서는 김영수 회장과 오동희 국제위원장이 공식대표로, 심재호 부회장을 비롯한 김지덕, 신춘규, 김성민, 강호원 국제위원 등 5명이 옵저버로 참석하였다. 회장단에는 이근창 자문위원이 ARCASIA 어드바이저 자격으로 참석하였다.

※ 회원단체는 한국(KIRA), 일본(JIA), 중국(ASC), 몽골(UMA), 홍콩(HKIA), 마카오(AAM), 싱가폴(SIA), 태국(ASA), 말레이시아(PAM), 필리핀(UAP), 라오스(ALACE), 베트남(VAA), 인도(IIA), 파키스탄(IAP), 방글라데시(IAB). 스리랑카(SLIA), 인도네시아(IAI), 네팔(SONA) 등 총 18개국과 이번 대회에 불참한 부탄을 포함해 총 19개국임.

1) 세션-1: 6월 25일 09:00~10:30

- 개회 선언에 앞서 35회 이사회를 축하하는 ARCASIA 기(Flag)를 공포하고 이어 탄페이잉 회장은 참가국 대표에게 회원증을 수여하였는데, 우리 협회는 김영수 회장이 수여받았다. 탄페이잉 회장의 개회선언에 이어 회장단과 자문단을 소개하였는데, 우리 협회에서는 이근창 자문위원이 ARCASIA 고문으로 참가하였다. 처음 참가하는 회원국에 대한 회원증서 전달 및 차차년도 개최지로 선정된 홍콩(HKIA)에게 증서를 전달하였다.

ARCASIA Council Meeting 장면

2) 세션-2: 6월 25일 10:45~13:00

- 탄페이잉 회장은 이번 이사회의 중요 안건을 상정하고 순서에 입각해서 논의를 끌어감. 2013년 네팔, 카투만두에서 개최되었던 제34회 아시아건축사연맹이사회 회의록을 검토하고 이를 승인함. 재무 보고(홍콩 상하이은행에 ARCASIA 계좌의 명의 변경 완료, 인터넷으로 출금 가능토록 조치), 회장 보고(지난해 이후 활동 및 진행된 사업에 대한 보고 등), 부회장 보고(A, B의 2개 Zone 부회장이 지난해 이후의 활동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 에 대해 승인 받음. 국가별 단체 대표가 차례로 각국의 현안과 계획 등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함. 한국은 오동희 국제위원장이 발표하였음.

3) 세션-3: 6월 26일 09:40~
- ARCASIA 프로젝트 : History Book(e-copy 작성), 기금 및 스폰서십, ARCASIA 웹사이트 & 페이스북(홍보 및 소통의 장으로 활용), ARCASIA CI System(최종안 승인), ARCASIA Documentary(시사회 진행), ARCASIA 본부 건립(안건 삭제), 태풍 하이옌 지원(재난구호기구 'UAP Emergency Architects' 발족 설명), Patent pending Logo(특허 출연 소개), ARCASIA Handbook 및 운영매뉴얼 개정, 회칙 개정

4) 세션-4:
- Architecture Asia Magazine, ARCASIA Awards, MOUs Update, Renewal, New MOU, New membership/ Brunai, Cambodia, Myanmar

5) 세션-5:
- ACA Forum

6) 세션-6:
- Committee Reports : 6월 24일 개최되었던 ACAE, ACGSA, ACPP, ACSR 각 위원회에서 논의되었던 내용에 대하여 각 위원회 위원장은 그 결과를 요약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고 이에 대해 승인을 받음.

7) 세션-7:
- 부회장 선거 : Zone-A는 Janhangir Sherpao(파키스탄), Zone-B는 Endy Subijono(인도네시아), Zone-C는 대한건축사협회 심재호 부회장이 선출, 확정됨. 3인의 부회장은 차기 회장 Satirut Nui Tandanand(ASA)를 보좌하여 2015~16년 활동하게 됨. 아울러 대한건축사협회 신춘규 이사가 지난 카투만두 회의에서 ACPP위원장으로 선출되었으므로 차기 회장단으로 활동하게 될 것임.

ARCASIA Council Meeting 차기회장단

- 차기 회장 인사말 : ARCASIA 차기회장인 Satirut Nui Tandanand는 현 회장이 추진해 왔던 중점추진사업을 계승·발전시키는 한편, Young Architect를 위한 프로그램 및 새로운 위원회의 구축, Faculty Training Program, ARCASIA criteria for Architectural School, 각 위원회 추진사업 지원, UIA와 건축전시회 교류 등에 대하여 성과를 이루도록 하겠다고 설명하였음. ARCASIA Prize와 관련하여 Young Architect의 연령을 45세 이하로 하자는 의견과 40세 이하로 하자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나, 최종적으로 40세 이하로 결정하였음.
- 필리핀 태풍 피해에 대한 현황 설명 : 필리핀은 태풍 피해 후의 ARCASIA 및 각국의 후원에 대한 감사를 공식적으로 전하고, 현재까지의 복구 상황 및 향후의 전망에 대하여 설명하였음. 특히 피해 초기에 KIRA로부터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진 것을 구체적으로 거명하며 감사함을 표하고, 이로 인해 추후의 지원에 도움이 되었다고 설명함.
- 이근창 대한건축사협회 국제위원회 자문위원이 ARCASIA 회장단 고문의 자격으로 ARCASIA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에 인정받아 감사장을 수여받음.

3.9 제2회 사회책임건축 심포지엄

(2nd ARCASIA Committee on Social Responsibility(ACSR) Architecture Symposium 2014) : 국제위원회 심재호, 신춘규, 김성민 위원
- 세션1. 재난 방지, 준비 및 감소를 위한 건축
- 세션2. 공공주택 및 살기 좋은 환경
- 세션3. 유니버설 디자인 - 접근성

4. 제16차 Asia Congress of Architects : 국제위원회 김지덕, 신춘규, 오동희, 김성민 위원

- 포럼은 격년으로 개최되고, 연사들을 초청하여 이틀 동안 발표 및 토론을 진행하였다. 이번 주제는 'RejuveNATION ; 되젊어짐, 회춘, 원기회복(강·토지의 회복)'으로, 11명의 연사가 이와 관련된 작품들을 발표함. 한국에서는 국제위원회 봉주희 위원이 "세계평화공원으로 제안한 DMZ"를 발표하였다. 이번 특별강연을 통해 이 시대 건축의 중요 이슈인 Rejuvenation에 대하여 이미 많은 관점이 있어 왔고, 또 진행중인 것임을 알게 되었다. 이는 새로운 것이 아니며 인류가 존속하는 한 지속될 것이다. 그러나 이 시대의 물질적인 소비와

에너지의 고갈, 그리고 이에 따른 지구의 미래에 대한 불안한 전망에 대해서는 새로운 전개가 되었다고 생각된다. 이 주제는 완결적이지 않으며 늘 현재진행형의 상황에 놓여 있고, 건축은 이 숙제를 늘 안고서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함을 천명하는 좋은 자리가 되었다.

ASIA Congress of Architects 행사장 전경

5. ARCASIA 건축상 : 국제위원장 오동희

– 600여명이 등록을 하여 276개의 작품을 제출했으며, 골드메달을 수상한 나라를 보면 중국이 4개로 가장 많고, 싱가포르 2개, 말레이시아, 베트남, 한국, 파키스탄이 각 1개씩 수상하였다. 한국은 한국건축문화대상 수상자 중에서 선별해 제출한 결과 산업건축물 카테고리에서 임재용 건축사의 '태평양제약 헬스케어캠퍼스'가 골드메달을, 공공건축물 카테고리에서 김주경 · 최교식 건축사의 '슬로우아일랜드 여행센터'가 우수상을 받았다. 특이할 만한 점은 중국이 70여점 이상의 작품을 제출하여 12점의 작품이 골드메달 및 우수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ARCASIA AWARD 수상자와 함께

6. 기타 : 국제위원장 오동희

1) 베트남건축사협회(VAA)과 MOU체결

– 2014년 6월 25일 김영수 회장, 심재호 부회장, 김지덕, 이근창 자문위원 외 4인(KIRA)과 NGO DOAN DUC 부회장, VUONG DAO HOANG 외 2인(VAA)이 양국 간의 호혜적인 발전을 지원하며 교류하기로 함.

2) 라오스건축사협회(ALACE)와 Accord 및 Working Plan 갱신

– 2014년 6월 27일 대한건축사협회와 라오스건축사협회는 2013년에 논의되고 2014년 1월에 합의되었던 내용에 따라 MOU 및 Working Plan을 갱신하였음.

ALACE와의 MOU 갱신

3) 몽고건축사협회(UMA)와의 간담회를 통한 협의

– 2014년 6월 일 김영수 회장과 심재호부회장(KIRA), Bat Dash(UMA)는 2014 UMA 건축사대회의 공식일정에 참가하기로 하였음. 9월 중에 UMA와 북한 간의 MOU 갱신을 위해 평양을 방문할 예정으로, UMA는 KIRA의 북한건축사협회와의 접촉의사를 전달하기로 하였으며, 10월 초 ASC(중국건축학회)의 몽골 방문시 KIRA와 북한건축사협회를 함께 초청하여 4자 회의를 하는 방안이 논의됨. KIRA는 UMA가 이 사안에 대해 주도적으로 역할을 해줄 것을 부탁하였음. KIRA의 개성공단 건축자문업무에 대하여 설명하고 UMA가 북한의 건축법 및 제도에 대한 자료정보 수집에 협력을 요청하였음.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유효한 Working Plan에 대하여 보완의 필요성 여부를 논의하고 지속적인 협력을 하기로 하였음.

기고.

글. **봉주희**_ Bong, Joo-hee
대한건축사협회 국제위원회 위원
봉주희건축 대표

세계평화공원으로 제안한 한국 D.M.Z.의 RejuveN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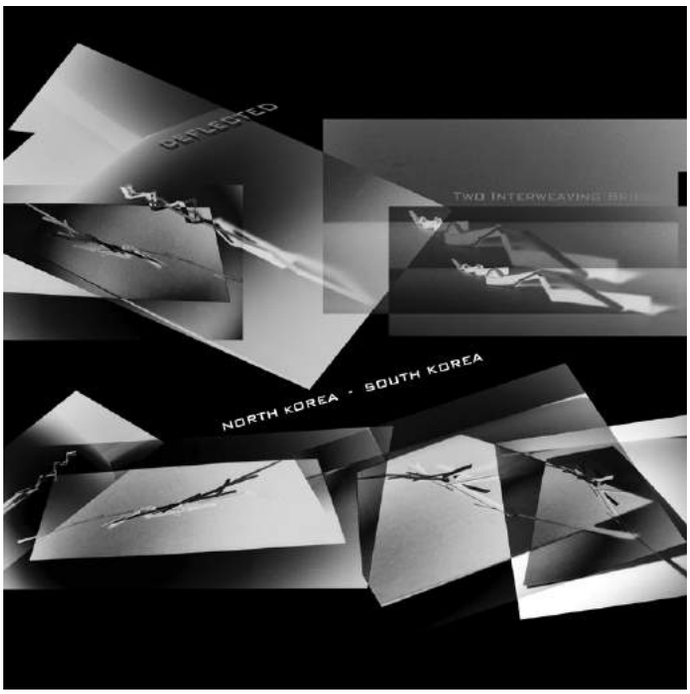
제16차 아시아건축사대회 포럼 중

Towards A World Peace Park_RejuveNATION of the Korean D.M.Z.

필자는 제16차 아시아건축사대회(The 16th Asia Congress of Architects, ACA16/Datum: KL 2014)의 연사 초청을 받아, 한국 대표이자 대한건축사협회의 국제위원으로서 대회 주제인 'RejuveNATION'를 기조로 하여 직접 디자인한 '한국 비무장지대, D.M.Z의 RejuveNATION' 프로젝트들에 대해 강연했다. 이번 Datum:KL 강연회는 6월 23부터 29일까지 개최된 제16차 아시아건축사대회와 제35차 아시아건축사협의회(The 35th Architect Regional Council of Asia, ARCASIA) 이사회의 다양한 프로그램들(회의, 심포지엄, 포럼, 전시회 등) 중 하나로, 말레이시아건축사협회(PAM)가 주관하여 6월 27일과 28일 양일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강연회는 'Rejuve'NATION'이라는 주제 아래, 아시아 도시 및 세계 각처에서 이미 노쇠했거나 현재에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개발 패턴에 대한, 미래 유산으로서의 건축의 가치에 대한 진지한 관점에서의 새로운 접근을 목표로 한다. 전 세계에서 초청된 11명의 연사는 이를 실천에 옮기고 있는 각자의 프로젝트들을 통해 'RejuveNATION'의 현주소를 재조명하고 개선점을 찾아내어 가까운 미래의 새로운 방향과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강연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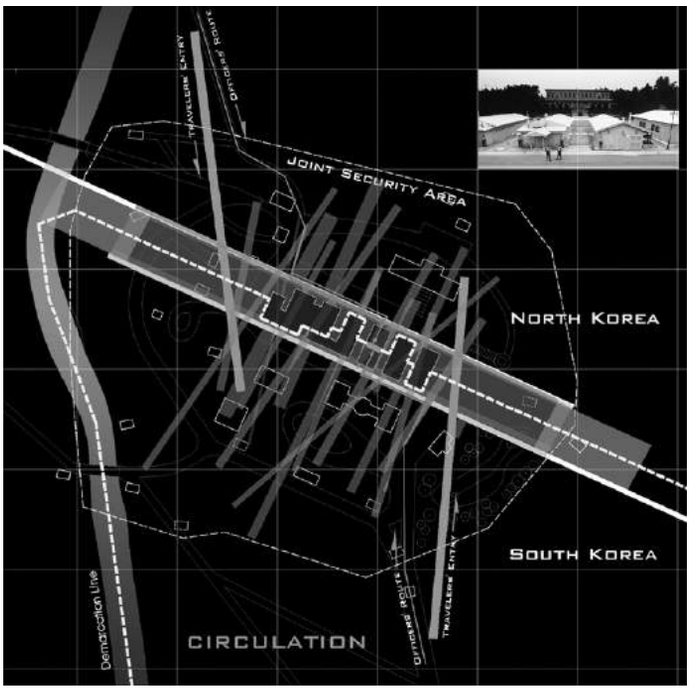
DMZ-South Korea_ North Korea-Two Interweaving Deflected Bridges

필자는 포럼의 주제인 'RejuveNATION'의 개념을 재정의(redefine)하여 '한국 D.M.Z.의 RejuveNATION'에 대해 1시간 동안 강연하였다. 이 포럼이 다른 포럼들과 다르게 독특한 점은 각 나라별로 한 명씩 연사를 초청하여 강연하도록 기획되었다. 따라서 다른 나라에는 없고 오로지 한국만이 가지고 있는 지정학적인(Geo-Political) 장소성과 지역성(site-specific siteness, context, and condition)을 재해석하여 개념을 본인만의 건축어휘(architectural language)로 구현하여 도출시킨 D.M.Z. 프로젝트들 중 2개의 프로젝트를 발표하였다.

D.M.Z. 프로젝트 강연은 주제 'RejuveNATION'에서 'NATION'만 대문자로 표기되어 있는 만큼 빌딩이나 지역, 도시 등의 리모델링 · 리노베이션 · 리제너레이션(Regeneration) · 리뉴얼 차원에서 벗어나 한층 더 나아가서 국가적 차원으로의 RejuveNATION을 지향하는 거시적 차원으로 시각과 관점을 넓히는 것의 필요성을 재인식 할 제에, 현재 대한민국의 국가적 차원에서 가장 중요한 지역/영토(the utmost critical condition & territory)인 한반도 남북한 사이의 D.M.Z.를 대한민국의 건축사로서 어떻게 RejuveNATION 할지에 대해 디자인한 본인의 프로젝트들과 더불어 관련 이슈들을 강연함으로써, 다른 강연자들 및 청중들과 소통하고 의견을 공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DATUM 2014의 강연회 주제와 맥락(context)에 매우 잘 맞는 적합성과 더불어 시사점을 가진다.

그러므로 필자의 강연은 한국의 지정학적인 특수성에서 기인한 비무장지대(D.M.Z)를 독특한 관점에서 접근하여 이곳을 남북교류 및 평화벨트로 규정하고 그 전제 아래에서 남과 북의 주민이 함께 만나는 '시간과 공간(Time & Place)'의 융합 장소를 제시하는 건축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본인만의 건축적 어휘를 사용해 형태적이고 프로그램적(architectural formal language & programmatic)으로 도출시킨 2개의 D.M.Z. 디자인 안에 대해서 발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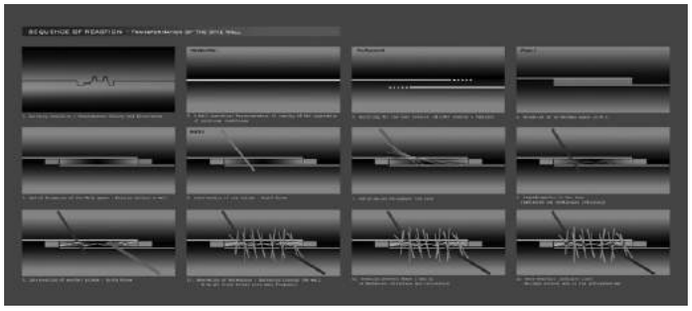
▶ 첫 번째 프로젝트_ Bridges Of No Return : 판문점의 공동경비구역(JSA: Joint Security Area)에 남북한의 정상회담 장소와 남북한 주민들의 만남의 장소, 이산가족과 관광객들을 위한 장소, 더불어 기념비적인 장소로서 존재할 수 있는 'Wall Complex Memorial'로 디자인한 '한국 D.M.Z.의 RejuveNATION' 프로젝트다.



JSA Circulation Diagram

"종합적으로 봤을 때 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은 155mile×4km의 D.M.Z.구역(Dead-Zone, No-Man's Land)을 생태공원으로 보전하면서 3~5개 지점을 선정하여 선별적으로 개발(selective-development)하는 것이다. 즉, 이미 천연기념물 수준의 가치가 있은 동 · 식물들이 생존하는 광활한 이 구역의 생태학적 가치를 더욱 부각시키고, 동시에 남북한의 교류 · 화합 · 만남이 이루어지며 기념하고 여행할 만한 지역(memorial & touristic site) 몇 개 지점에서만 서로 왕래하고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도록 하는 디자인 계획이다. 남북한의 대화와 관계가 더욱 호전되는 상황이 되면, 3~5개로 설정한 지점의 개수는 더욱 증가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가진다.

그러므로 전체 D.M.Z. 지역의 보전과 개발의 균형 및 조화를 추구하면서, 동시에 여러 가지 적당한 접점(relevant interface)들을 모두 통합하는 차원에서 RejuveNATION하는 것이 나의 디자인 아이디어다. 또한 건축사로서 이러한 건축적인 중재와 제스처들을 계기로 가까운 미래에 한민족인 남한과 북한의 우호적 관계, 더불어 통일이라는 '하나의 국가로 재탄생하는 RejuveNATION'을 도모할 수 있는 역할도 가능할 수 있다는 시사점을 제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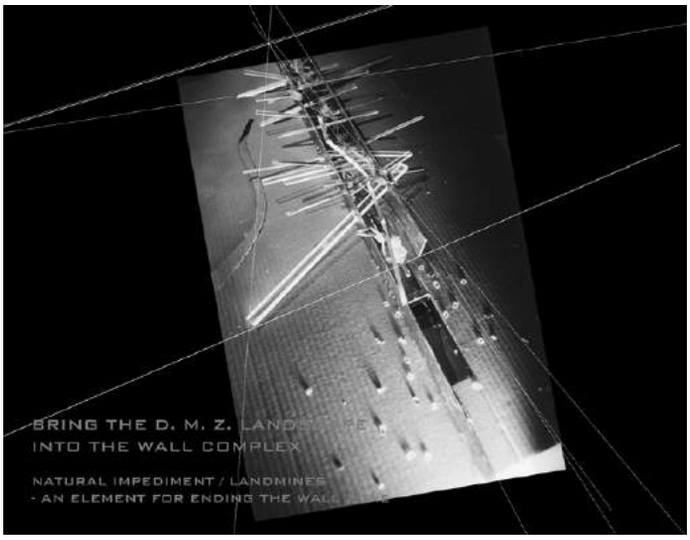


DMZ–Bridges Of No Return

남북한의 브리지 역할을 하는 몇 개의 지점 중 첫 번째로 계획하는 것은 판문점의 J.S.A.(Joint Security Area, 공동경비구역)다. 휴전선(Concrete demarcation line)의 토폴로지(topology)를 유지하면서, 분단선을 제외한 땅을 모두 carve out 하고 구름다리들과 선큰가든을 디자인하여 'D.M.Z. Wall–Complex'를 방문하는 남북한 사람들에게 'Over the borderline & Below the borderline'의 길로 분단선을 넘어갈 수도 있고 반대편 나라를 조망하는 생생한 경험을 제공하는 건축적 구현을 도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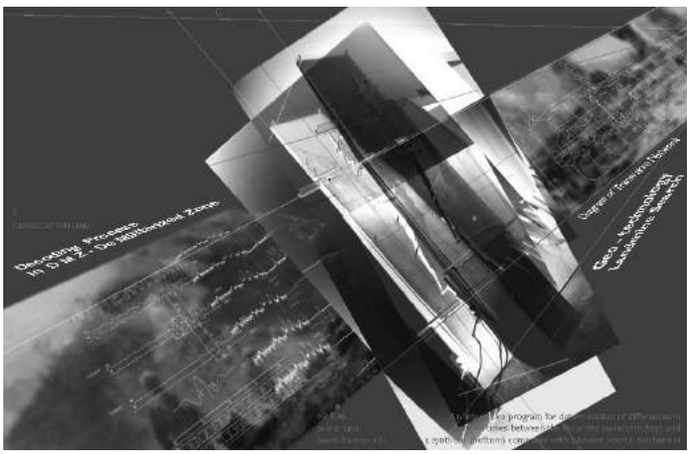
'D.M.Z. Wall–Complex'는 3가지 기능의 프로그램(military, commemorative, and touristic intervention)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산가족을 찾고 만나는 공간은 물론 그들을 위해 제사를 지내는 공간도 포함한다. 통일이 될 경우, wall–complex 는 역사적인 행사가 있을 때 기념비적인 공간으로 존재할 것이다."

(프리젠테이션 내용 中)



DMZ–Wall and Bridge Complex

▶ 두 번째 프로젝트 _Golf Course Over Mine Field : D.M.Z. 인근 문산에 위치한 'The World's Most Dangerous Golf Club'으로, 뉴욕타임즈에 개재된 지뢰밭과 수뢰밭에 위치한 D.M.Z. 골프장과 인근지역을 RejuveNATION하는 프로젝트다.



DMZ–Landmine Golf Course

"골퍼(Golfer)들과 관광객들의 안전 및 전쟁지역 관광의 진정성 (authenticity of war-tourism)이라는 맥락 아래, 골프장의 지뢰밭과 수뢰밭을 rejuveNATION의 디자인 요소로 포괄하고 통합하였다. 확장된 골프코스는 골퍼들의 안전을 위해서 공중에 부유하는 flying golf course로 디자인했고, 클럽하우스 건물은 새로 만들어지는 인공대지 골프코스 밑에 매달아 구축(suspended structured)되며, 바닥을 유리(glass floor)로 처리하여 골퍼들이 발아래의 지뢰밭을 생생히 관찰할 수 있는 체험을 제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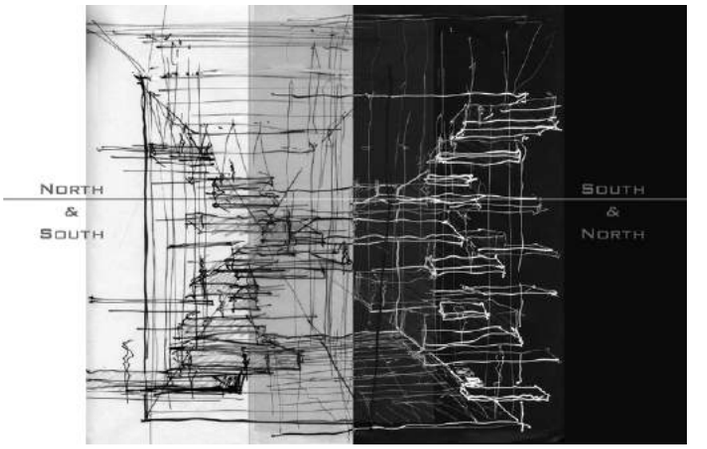
Watermine Swimming Pool 또한 골퍼 및 관광객들의 안전을 위해서 공중에 부유하는 flying swimming pool이며, 유리 수영장과 유리 선큰가든으로 수뢰밭을 가까이서 생생히 관찰할 수 있는, 여행자들의 모험심(keen sense of adventures)을 건축적 어휘로 구현하고 도출시켰다."

(프리젠테이션 내용 中)

강연이 끝난 후 모더레이터(moderator)인 말레이시아 건축사 Indra Ramanathan 및 1차로 강연한 6명의 연사들과 질의 및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포럼은 필자가 여태까지 했던 모든 강연회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다. 모든 프로그램의 콘텐츠들이 매우 풍성했으며, 포럼의 에너지와 정신(spirit)으로 RejuveNATION이 많이 되었다. 공개 강연회에서 D.M.Z. 프로젝트들을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는데, 청중들의 많은 관심 표명에 매우 놀라왔으며, 강연 도중 계속 터지는 카메라 플래시에 흐름을 놓칠 뻔한 순간들도 몇 번 있었다.

또한, 한국의 D.M.Z. 상황에 대해서 많은 나라의 건축사들과 관계자들이 관심을 가짐에, 대한민국의 건축사로서 책임감을 되새기는 의미 있는 시간이기도 했다. 강연을 마치고는 우리나라의 분단선 분쟁(borderline conflict)과 흡사한 맥락과 상황을 가진 국가들로부터 특강 초청을 받기도 하였다. 헝가리와 파키스탄이다.

마지막으로 역시 중요한 것은, 이번 포럼은, 특히 올해 봄 학기부터 처음으로 한국의 건축학도들을 가르치고 있는 필자의 입장에서, 많은 것을 느끼게 해주었다. 강연이 끝난 후 싱가포르와 홍콩



Buffering Zone Between 2 Koreas

학생들이 몰려와 필자의 디자인을 스케치한 노트북에 사인 공세를 해왔다. 각 슬라이드 페이지가 넘어가는 시간이 길어야 30초밖에 안 되는 짧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스케치가 너무나 정확하게 묘사되어 있어서 자못 놀라왔다. 우리나라의 건축학도들도 앞으로 전 세계를 무대로 하는 다양한 건축시장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며 경험과 체험, 소통과 네트워킹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주어진다면, 그들의 건축적 커리어가 더욱 더 풍성해지고 도전적으로 될 것임을 믿어 마지않는다.

이사회 개최 현황

제9회 이사회

2014년 제9회 이사회가 지난 9월 17일 오후 2시 협회 중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이사회에서는 협의사항으로 「대한건축사협회 공로회원 표창 계획에 관한 건」, 「2014 서울 도코모모 세계대회 후원의 건」, 부의안건으로 「지역건축사회 설치 및 운영규정 개정의 건」, 「표준회칙 개정의 건」, 「(가칭)건축사업무 선진화 방안 연구용역 시행의 건」, 「한국건축산업대전 정부포상 대상자 추천의 건」이 논의됐다. 주요 협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 협의사항 |

- 제1호 : 대한건축사협회 공로회원 표창 계획에 관한 건
  - 2014 대한민국건축사대회 행사시 원안대로 협회장상을 수여키로 하고, 예산 조달 및 집행방법은 회장에서 위임함.
  - 표창시기 및 수여방법에 대해서는 조직위원회에서 논의
- 제2호 : 2014 서울 도코모모 세계대회 후원의 건
  - 일반회계 '보조금' 목에서 1,000만원을 후원하기로 함.

| 부의안건 |

- 제1호 : 지역건축사회 설치 및 운영규정 개정의 건
  - 원안대로 승인함.
- 제2호 : 표준회칙 개정의 건
  - 원안대로 승인함.
  - 정관변경내용(임원 및 대의원의 임기, 회원징계 등) 반영
- 제3호 : (가칭) 건축사업무 선진화 방안 연구용역 시행의 건
  - 원안대로 승인함.
- 제4호 : 한국건축산업대전 정부포상 대상자 추천의 건
  - 대한건축사협회장(4~5개)을 추가키로 하고, 공적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포상 대상자를 선정토록 회장에 위임함.

| 기타사항 |

- 미군기지평택이전사업단의 자재인증부서와 협회 내 관련위원회와의 회의 등을 통해 협회에 맞는 자재인증제도 도입을 검토키로 함.(필요시 연구용역을 통해 매뉴얼화 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 검토)

위원회 개최 현황

제6회 회장단회의

제6회 회장단회의가 지난 8월 19일 협회 8층 회장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 협의사항 |

- 제1호 : 감리제도 개선에 관한 건
  - 한국건축가협회에서 제시한 합의서(안)에 대하여 우리 협회에서는 건축법에 의한 사후설계만 우선 추진키로 하고, 주택법과 건기법에 대해서는 추후 별도의 건으로 공동 추진하기로 함.
- 제2호 : 특수구조건축물 관련 건축법시행령 · 시행규칙 입법예고에 관한 건
  - 한국건축가협회 및 여성건축가협회 등 관련단체와 공동으로 대처하기로 함.
  - 분리 발주의 우려가 있기는 하나 구조기술사가 확인한 사항은 전적으로 구조기술사가 책임을 지도록 하는 제도로 전환 필요
- 제3호 : 인력난 해소를 위해 '구조기술사'를 '구조기술자'로 변경하는 방안 검토
  - 구조기술사 자격을 가진 교수 등이 관계법령에 따른 등록은 하지 않고 구조기술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개선 필요
- 제4호 : 건축협정 관련 건축법시행령 · 시행규칙 입법예고에 관한 건
  - 건축협정TF에서 맞벽과 합벽에 대한 문제도 검토해주도록 요청함.
- 제5호 : 민간발주 건축설계업무 대가관련 연구용역 실태조사에 관한 건
  - 실태조사 작성방법이 어려우므로 Q&A를 보완하여 적극 홍보하고, 필요시 시도건축사회를 방문 설명하기로 함.

제3회 시도건축사회 회장회의

제3회 시도건축사회 회장회의가 지난 8월 22일 인천광역시 소재 식당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 협의사항 |

- 제1호 : 협회 주요현안에 관한 건
  - 감리제도 개선과 관련하여 건축가협회와 합의과정에 있는 내용을 설명하고, 시 · 도건축사회장들의 이해와 협조를 구함.
  - 현장조사검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령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을 철저하게 이행해줄 것을 요청함.
  - 9월 22일 개최하는 「2014 대한건축사협회장배 골프대회」 행사시 시도건축사회장들의 행운상 추첨 참여 및 선물 준비를 요청함.

제4회 법제위원회 팀장회의

제4회 법제위원회 팀장회의가 지난 8월 11일 협회 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 협의사항 |

- 제1호 : 표준계약서 개발 과업지시서(안) 검토 결과
  - 민간 · 공공부문의 구분할 필요 없이 개발하기로 함.

– 표준계약서 개발유형은 세 가지로 큰 틀을 제시하였으며, 연구진행 초기에 집중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 개발유형 추가 등에 대한 자문위원의 의견을 반영하기로 함.

● 제2호 : 건축사 업역 확대를 위한 연구계획서(안) 검토 결과

– 건축사 업역 확대를 위한 연구에서는 핵심사항을 주로 연구하고, 일반사항을 부로 구분하여 작성하도록 의견을 제시함.

제2회 녹색건축위원회

제2회 녹색건축위원회 회의가 지난 8월 22일 협회 중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 협의사항 |

● 제1호 : 녹색건축한마당 세미나 계획에 관한 건

– 녹색건축한마당의 토론회, 상담, 세미나는 회의자료의 계획(안)대로 기획하되 향후 변동 상황에 따라 보완

● 제2호 : 건축물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개정(안)에 관한 건

– 동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를 다음과 같이 추진하기로 함.

제2회 비상대책위원회

제2회 비상대책위원회 회의가 지난 9월 2일 협회 중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 협의사항 |

● 제1호 : 감리제도 개선 추진방안에 관한 건

– 입법발의 방안 : 기존 발의안이 수정(안)으로 진행되도록 노력

– 정부(국토부) 설득전략 : 우리협회 2인과 한국건축가협회 2인이 함께 설득방안 구상 및 협의를 진행

– 언론홍보방안 : 집행부에서 사후설계관리 신설 및 허가권자의 감리자 지정 당위성에 대해 내용을 정리하고, 적절한 언론매체 및 홍보방법을 검토 및 협의

● 제2호 : 건설업체 설계겸업 허용 대응에 관한 건

– 회의자료에 첨부된 대응TFT 구성(안)대로 구성하여 체계적으로 대처하기로 함.

제2회 건축영화제TF

제2회 건축영화제TF 회의가 지난 8월 4일 협회 임원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 협의사항 |

● 제1호 : 건축영화제 행사시행에 관한 건

– 행사일시는 10월 29일(수)~11월 3일(월)까지 확정, 업무대행사로 선정된 맥스무비와 계약을 체결해 업무일정표에 따라 행사준비

제1회 대한민국건축사대회 조직위원회

제1회 대한민국건축사대회 조직위원회 회의가 지난 8월 19일 협회 중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 협의사항 |

● 제1호 : 2014 대한민국건축사대회 개최계획(안)의 건

– 23일(목) 환영만찬 시 외부 공연자보다는 회원 중에 연주를 잘하는 밴드를 초청하여 같이 어울릴 수 있도록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함.

● 제2호 : 대회 기념품(메달) 제작에 관한 사항

– 각 대회마다 기념이 될 수 있도록 메달의 기본 디자인을 만들고 중심 공간에 대회를 상징하는 문양을 넣어 제작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번 건축사대회 메달도 포스터에 있는 문양을 메달에 넣는 방향으로 검토하기로 함.

● 제3호 : 건축사실무교육에 관한 사항

– 건축사실무교육은 3개의 교육장에서 24일(금) 오전(09:00~12:00)에 하기로 함.

제2회 대한민국건축사대회 조직위원회

제2회 대한민국건축사대회 조직위원회 회의가 지난 9월 12일 협회 중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 협의사항 |

● 제1호 : 2014 대한민국건축사대회 전체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 VIP(대통령, 국무총리) 초청문제는 집행위원장이 9월 15일에 경북도청에 방문하여 협의

– 본대회 입장식 중 조직위원장 입장시에는 조직위원(시도회장만 제외)이 함께 입장하고 피켓도우미는 제외(사회자 멘트 및 영상자막 활용)

– 비전선포문은 경상북도건축사회에서 대회 주제영상을 참조하여 원고를 작성한 후 대회장과 협의하여 확정

– 행운권 추첨은 삭제하고 경북 17개 지역건축사회 회장들이 시도건축사회장들에게 전달식을 갖는 것으로 변경

– 본대회 입장식에 설정된 꽃길은 AIA 대회를 참고해서 변경

● 제2호 : 대회 기념품(메달) 제작에 관한 사항

– 메달은 오늘 가져온 시안을 회의 종료이후에 검토하여 선정하기로 함.

임시 국제위원회

임시 국제위원회 회의가 지난 8월 19일 협회 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 협의사항 |

● 제1호 : 2014 대한민국건축사대회 해외단체장 초청 및 Zone C 회의 개최의 건

– ASC Zhang Baiping으로부터 Xu Zongwei Zone C 부회장을 대신하여 KIRA의 Zone C 대회개최에 대한 동의(2014년 8월 15일)가 있어 이를 개최하는 것으로 확정하고 계획을 수립하기로 함.

● 제2호 : AIA 회장 서울 방문의 건

– 9월 28일(일)~30일(화)에 예정된 AIA회장 방문을 위하여 간담회의 아젠다에 대한 논의를 함. AIA 계속교육에 대한 상호인정 논의, 2008년 진행한 후 진전이 없는 MRA의 진전, 한국 내의 AIA에 대한 현황 및 교류방안 등을 준비하기로 함.

●제3호 : 제17차 한중일건축사협의회 개최 준비의 건

– 개최일자에 대해 JFABEA의 요청에 따라 일정 변경을 보고하고, NABAR에 일정확인을 위한 서신을 즉시 발송하기로 함.

●제4호 : 2014 일본건축가협회(JIA) 전국대회 참가의 건

– 2014 일본건축가협회(JIA) 전국대회 참가 대표 2인 : 김영수 회장, 강호원 및 김지덕 국제위원 외 1인

제5회 50년사 발간소위원회

제5회 50년사 발간소위원회 회의가 지난 8월 27일 협회 임원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 협의사항 |

●제1호 : 50년사 제작에 관한 건

– 챕터 순서를 변경(2장 : 건축문화 → 건축사협회, 3장 : 건축사협회 → 건축문화)에 따른 편집계획 및 제작일정에 맞춰 50년사를 제작하기로 함.

협동조합 MOU 체결을 위한 선정위원회

협동조합 MOU 체결을 위한 선정위원회 회의가 지난 9월 12일 협회 임원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 협의사항 |

●제1호 : MOU 대상 협동조합 선정의 건

– 본 협회의 MOU 대상 협동조합은 대한건축물유지관리경영 협동조합으로 선정함.

– 기타 협동조합 추진전략기획서 별첨정관의 소재지 사항, 사업내용의 현실성 유무, 협회의 협동조합 사업방향에 대한 의문 등 일부 의견도 있었으나 결론적으로 회원, 협회, 조합이 상호 상생하는 것임을 설명하여 이해를 구함.

제5회 사업위원회

제5회 사업위원회 회의가 지난 8월 5일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 협의사항 |

●제1호 : 2014 KAFF 개최 중간점검의 건

– 자재 분야별로 위원을 전담 분배 후 서울국제건축박람회 8월 18일(월), MBC건축박람회 9월 1일(월) 등 타 전시회에 직접 참여하여 관심 자재업체를 방문, 현장에서 안내를 통한 적극적인 업체 유치를 추진키로 함.

●제2호 : 부스유치 인센티브 요율의 건

– 부스유치 인센티브 요율(안)은 전시사업의 효율성과 사업위원 및 직원의 동기부여를 위해 꼭 필요한 사항이므로 전시가 모두 종료된 후 사업의 규모와 손익에 따라 차후 추진키로 협의함.

●제3호 : 2014 녹색건축한마당 행사의 건

– 2014년도 녹색건축한마당 행사를 우리협회 주관으로 추진함에 따라 사업위원회의 업무범위가 상당부분 넓어졌으므로 이에 따라 사업위원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함.

●제4호 : 2014 우수건축자재추천제 심사 준비의 건

– 2014년도 우수건축자재추천제 심사는 김은철 위원, 고순만 위원이 담당하여 추진키로 하며, 1차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하여 다음 회의에서 검토키로 함.

●제5호 : 우수건축자재추천사 협의체 구성의 건

– 우수건축자재추천사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유대감 조성 및 효율적인 전시사업 진행을 목적으로 김상언 위원, 김혜경 위원, 김종범 위원이 담당하여 협의체를 구성하며 전시회 종료 후 추진키로 협의함.

건축계 소식

대한건축사협회 제31대 회장선거

협회 최초 직선제로 내년 1월 20~21일 양일간 투표

협회 역사상 정회원 직선제로 최초 시행되는 대한건축사협회 제31대 회장 선거에 대한 일정이 나왔다. 협회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지난 9월 25일 공고를 내고 선거에 대한 세부일정을 공개했다. 이번 회장선거는 내년 1월 20일부터 21일까지 양일간에 걸쳐 온라인 투표를 통해 진행된다. 투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투표소(kvoting.go.kr)에서 실시되며, 인터넷을 활용하지 못하는 회원들을 위해 전국 16개 시도건축사회에 현장 인터넷투표소가 설치될 예정이다.
10월 8일부터 14일까지 예비후보자 등록, 11월 13일부터 19일까지 후보자 등록기간을 거쳐 후보자가 확정되면 오는 12월 1일부터 내년 1월 15일 사이 총 6회에 걸쳐 권역별로 후보자 합동토론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내년 1월 초 선거인명부 확정, 후보자 투·개표 참관인 신고를 거쳐 1월 20~21일 양일간 선거가 진행된다. 선거결과 유효투표 20%이상 득표자 중 최다득표자가 당선되며, 1차 투표에서 당선자가 없을 경우 다득표 2인이 7일 이내 결선투표를 해 이중 다수 득표자가 최종 당선된다.

2014 대한건축사협회장배 골프대회 개최

대한건축사협회는 지난 9월 22일 전북 남원에 위치한 드래곤레이크CC에서 본 협회를 비롯한 시도건축사회 회장 및 임원과 회원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4 대한건축사협회장배 골프대회'를 개최했다. 낮 12시 Tee-off후 1시간 남짓 지나 '홀인원'이 나왔다는데, 주인공은 대구광역시건축사회 유흥재 회장이 6번홀에서 달성했다.

– 9월 28일(일)~30일(화)에 예정된 AIA회장 방문을 위하여 간담회의 아젠다에 대한 논의를 함. AIA 계속교육에 대한 상호인정 논의, 2008년 진행한 후 진전이 없는 MRA의 진전, 한국 내의 AIA에 대한 현황 및 교류방안 등을 준비하기로 함.

●제3호 : 제17차 한중일건축사협의회 개최 준비의 건

– 개최일자에 대해 JFABEA의 요청에 따라 일정 변경을 보고하고, NABAR에 일정확인을 위한 서신을 즉시 발송하기로 함.

●제4호 : 2014 일본건축가협회(JIA) 전국대회 참가의 건

– 2014 일본건축가협회(JIA) 전국대회 참가 대표 2인 : 김영수 회장, 강호원 및 김지덕 국제위원 외 1인

제5회 50년사 발간소위원회

제5회 50년사 발간소위원회 회의가 지난 8월 27일 협회 임원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 협의사항 |

●제1호 : 50년사 제작에 관한 건

– 챕터 순서를 변경(2장 : 건축문화 → 건축사협회, 3장 : 건축사협회 → 건축문화)에 따른 편집계획 및 제작일정에 맞춰 50년사를 제작하기로 함.

협동조합 MOU 체결을 위한 선정위원회

협동조합 MOU 체결을 위한 선정위원회 회의가 지난 9월 12일 협회 임원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 협의사항 |

●제1호 : MOU 대상 협동조합 선정의 건

– 본 협회의 MOU 대상 협동조합은 대한건축물유지관리경영 협동조합으로 선정함.

– 기타 협동조합 추진전략기획서 별첨정관의 소재지 사항, 사업내용의 현실성 유무, 협회의 협동조합 사업방향에 대한 의문 등 일부 의견도 있었으나 결론적으로 회원, 협회, 조합이 상호 상생하는 것임을 설명하여 이해를 구함.

제5회 사업위원회

제5회 사업위원회 회의가 지난 8월 5일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 협의사항 |

●제1호 : 2014 KAFF 개최 중간점검의 건

– 자재 분야별로 위원을 전담 분배 후 서울국제건축박람회 8월 18일(월), MBC건축박람회 9월 1일(월) 등 타 전시회에 직접 참여하여 관심 자재업체를 방문, 현장에서 안내를 통한 적극적인 업체 유치를 추진키로 함.

●제2호 : 부스유치 인센티브 요율의 건

– 부스유치 인센티브 요율(안)은 전시사업의 효율성과 사업위원 및 직원의 동기부여를 위해 꼭 필요한 사항이므로 전시가 모두 종료된 후 사업의 규모와 손익에 따라 차후 추진키로 협의함.

●제3호 : 2014 녹색건축한마당 행사의 건

– 2014년도 녹색건축한마당 행사를 우리협회 주관으로 추진함에 따라 사업위원회의 업무범위가 상당부분 넓어졌으므로 이에 따라 사업위원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함.

●제4호 : 2014 우수건축자재추천제 심사 준비의 건

– 2014년도 우수건축자재추천제 심사는 김은철 위원, 고순만 위원이 담당하여 추진키로 하며, 1차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하여 다음 회의에서 검토키로 함.

●제5호 : 우수건축자재추천사 협의체 구성의 건

– 우수건축자재추천사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유대감 조성 및 효율적인 전시사업 진행을 목적으로 김상언 위원, 김혜경 위원, 김종범 위원이 담당하여 협의체를 구성하며 전시회 종료 후 추진키로 협의함.

건축계 소식

대한건축사협회 제31대 회장선거

협회 최초 직선제로 내년 1월 20~21일 양일간 투표

협회 역사상 정회원 직선제로 최초 시행되는 대한건축사협회 제31대 회장 선거에 대한 일정이 나왔다. 협회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지난 9월 25일 공고를 내고 선거에 대한 세부일정을 공개했다. 이번 회장선거는 내년 1월 20일부터 21일까지 양일간에 걸쳐 온라인 투표를 통해 진행된다. 투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투표소(kvoting.go.kr)에서 실시되며, 인터넷을 활용하지 못하는 회원들을 위해 전국 16개 시도건축사회에 현장 인터넷투표소가 설치될 예정이다.
10월 8일부터 14일까지 예비후보자 등록, 11월 13일부터 19일까지 후보자 등록기간을 거쳐 후보자가 확정되면 오는 12월 1일부터 내년 1월 15일 사이 총 6회에 걸쳐 권역별로 후보자 합동토론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내년 1월 초 선거인명부 확정, 후보자 투·개표 참관인 신고를 거쳐 1월 20~21일 양일간 선거가 진행된다. 선거결과 유효투표 20%이상 득표자 중 최다득표자가 당선되며, 1차 투표에서 당선자가 없을 경우 다득표 2인이 7일 이내 결선투표를 해 이중 다수 득표자가 최종 당선된다.

2014 대한건축사협회장배 골프대회 개최

대한건축사협회는 지난 9월 22일 전북 남원에 위치한 드래곤레이크CC에서 본 협회를 비롯한 시도건축사회 회장 및 임원과 회원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4 대한건축사협회장배 골프대회'를 개최했다. 낮 12시 Tee-off후 1시간 남짓 지나 '홀인원'이 나왔다는데, 주인공은 대구광역시건축사회 유흥재 회장이 6번홀에서 달성했다.

본 대회 직후 열린 2부행사는 시상식과 만찬으로 진행됐다. 단체전 우승은 316타를 친 경기도건축사회(김영묵 · 정내수 · 민홍기 · 신만석 건축사)가 받았으며, 개인전 우승은 68타를 친 이재효 건축사(경북/건축사사무소 공간)에게 돌아갔다. 이밖에 롱기스트는 285m를 친 손윤락 건축사(대구/우진 건축사사무소)가, 메달리스트는 71타를 친 이광영 건축사(전남/리가 건축사사무소)가 각각 받았다.

대한건축사협회, 건축도시공간연구소와 MOU 체결

대한건축사협회가 건축도시공간연구소(AURI)와 건축관련 제도개선 및 건축산업 발전을 위한 연구, 건축 관련 정보체계의 구축, 국내외 건축 관련 행사의 개최 등 협력을 본격화한다.

대한건축사협회는 지난 9월 17일 건축사회관(서초동 소재)에서 AURI와 MOU를 체결하고 건축제도분야 개선발전을 위한 네트워크 확대, 정보교환, 상생 협력방안을 적극 모색하기로 했다. 이밖에 각 기관이 발간한 학술자료, 출판물 및 지식정보 등의 교환을 통한 정보교류, 공동 관심사항 및 주요현안에 대해서도 협조할 방침이다.

대한건축사협회, 다솜둥지복지재단과 MOU 체결

대한건축사협회는 지난 9월 23일 건축사회관(서초동 소재)에서 다솜둥지복지재단과 MOU를 체결하고 함께 농어촌취약계층의 주거환경을 개선에 앞장 서기로 했다. 양 단체는 ▲재능기부 자원봉사 활동에 의한 집 고쳐주기 사업추진 및 홍보 ▲지역, 단체,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봉사활동 참여 및 협력에 대해서 협조할 방침이다. 김영수 회장은 "소득분배 못지않게 주거환경의 상향평준화 또한 중요하다. 이번 다솜둥지복지재단과 업무협력 체결을 통해 취약계층과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에 이바지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옥설계 전문인력양성과정' 정기학술세미나 개최

대한건축사협회는 국토교통부로부터 위탁받아 운영 중인 '한옥설계 전문인력 양성과정'의 일환으로 제2회 정기학술세미나 〈한옥의 새로운 도전〉을 오늘 10월 21일 건축사회관 1층 대강당에서 개최한다. 지난 1차 세미나 〈그 많던 한옥은 다 어디로 갔는가〉에서 도시 지역의 한옥들이 왜, 어떠한 과정으로 사라지게 되었는가를 다루었다면, 이번 세미나에서는 최근 새롭게 지어지는 한옥들이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를 살피고자 한다.

특히, 이번 세미나는 숙박시설, 전원주택단지, 기업연수원 등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새로운 유형의 한옥들이 갖는 건축적, 경제적, 시대적 가능성과 한계를 함께 모색하는 자리로, 전봉희(서울대) 교수가 기획 및 진행을 맡았다. 주제발표는 ▲곡성 한옥팬션 '두가헌' 설계사례/우석 건축사사무소 전우석 대표 ▲아내가 더 좋아하는 한옥(호연당)–도심 속 한옥마을/피데스하우징 문경 대표 ▲재능교육연수원 산청율수원 설계사례 /건축사사무소 삼간일목 권현호 대표 순서로 진행되며, 이어서 김형우(홍익대), 심교언(건국대), 김도경(강원대) 교수가 참석하는 토론이 예정돼 있다.

별도의 참가제한이 없는 공개세미나로 진행돼 관심 있는 누구나 참석이 가능하며, 참석자 중 건축사는 실무교육 자기계발(1시간)이 인정된다. 신청방법 및 자세한 내용은 대한건축사협회 홈페이지(www.kira.or.kr)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문의) 대한건축사협회 위탁교육팀(02–3415–6879)

'2014 어린이 건축창의교실' 개최

국가건축정책위원회와 국토교통부, 대한건축사협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14 어린이 건축창의교실'이 오는 11월 7일부터 8일까지 경기도 성남에 위치한 새마을연수원에서 열린다. 이번 행사에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초등학생 4~6학년 120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건축창의교실은 해마다 5월 어린이날 즈음에 개최됐으나, 올해는 세월호 사고로 인해 무기한 연장되었다가 11월에 개최하게 됐다. 첫째 날 발대식으로 시작으로 ▲건축역사현장 답사 ▲레크레이션 ▲한옥 및 전통 목수체험 ▲현장고수와의 대화(재미있는 건축이야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사무소 등록현황

(사 : 사무소수, 회 : 회원수) 2014년 10월초순

구분 / 건축사회	개인사무소								법인사무소												합계	
	1인		2인		3인이상		소계		1인		2인		3인		4인		5인이상		소계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합계	6,434	6,434	72	144	8	24	6,514	6,602	1,879	1,879	232	464	55	165	25	100	16	109	2,207	2,717	8,721	9,319
서울	976	976	22	44	0	0	998	1,020	921	921	125	250	36	108	12	48	11	68	1,105	1,395	2,103	2,415
부산	560	560	8	16	2	6	570	582	129	129	26	52	3	9	2	8	1	7	161	205	731	787
대구	558	558	11	22	5	15	574	595	73	73	13	26	3	9	3	12	0	0	92	120	666	715
인천	305	305	3	6	0	0	308	311	63	63	7	14	1	3	0	0	0	0	71	80	379	391
광주	234	234	1	2	0	0	235	236	53	53	6	12	1	3	2	8	1	5	63	81	298	317
대전	269	269	5	10	0	0	274	279	36	36	9	18	3	9	1	4	1	14	50	81	324	360
울산	206	206	4	8	0	0	210	214	21	21	3	6	0	0	0	0	0	0	24	27	234	241
경기	925	925	2	4	0	0	927	929	280	280	13	26	6	18	1	4	0	0	300	328	1,227	1,257
강원	207	207	2	4	0	0	209	211	29	29	2	4	0	0	1	4	0	0	32	37	241	248
충북	239	239	2	4	0	0	241	243	44	44	4	8	2	6	2	8	1	9	53	75	294	318
충남	317	317	1	2	0	0	318	319	67	67	8	16	0	0	1	4	0	0	76	87	394	406
전북	284	284	4	8	0	0	288	292	29	29	5	10	0	0	0	0	0	0	34	39	322	331
전남	221	221	0	0	0	0	221	221	24	24	1	2	0	0	0	0	1	6	26	32	247	253
경북	455	455	4	8	1	3	460	466	44	44	5	10	0	0	0	0	0	0	49	54	509	520
경남	527	527	3	6	0	0	530	533	43	43	4	8	0	0	0	0	0	0	47	51	577	584
제주	151	151	0	0	0	0	151	151	23	23	1	2	0	0	0	0	0	0	24	25	175	176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회별 회원현황

구분 / 건축사회	회원	
	건축사	비율
합계	9,319	100%
서울	2,415	25.91%
부산	787	8.45%
대구	715	7.67%
인천	391	4.20%
광주	317	3.40%
대전	360	3.86%
울산	241	2.59%
경기	1,257	13.49%
강원	248	2.66%
충북	318	3.41%
충남	406	4.36%
전북	331	3.55%
전남	253	2.71%
경북	520	5.58%
경남	584	6.27%
제주	176	1.89%

건축사등록원 통계현황

2014년 9월말

구분	자격등록	실무수련
계	12,544	3,442
서울	3,954	2,245
부산	778	145
대구	686	95
인천	387	10
광주	309	76
대전	363	59
울산	237	48
경기	1,460	167
강원	262	28
충북	328	87
충남	386	83
전북	339	39
전남	275	75
경북	493	36
경남	608	76
제주	178	57
기타	1,501	116
비고	회원 : 9,160 / 비회원 : 3,384	대학 : 3,165 / 대학원 : 277

대한건축사협회 사무소형태별 회원현황

구분	개인사무소	법인사무소	합계	비고
회원수	6,602	2,717	9,319	
비율	70.84%	29.16%	100%	
사무소수	6,514	2,207	8,721	
비율	74.69%	25.31%	100%	